금주의 법구–〈원각경〉
헛것인 줄 알았으면 곧 떠나라.
헛것을 떠나면
그것이 곧 해탈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4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6월 12일)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三寶로드’ 천리길 결사 대장정

상월결사, 9월 30일~10월 18일 ‘삼보사찰 천리순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사부대중의 여정,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19일간의 대장정으로 진행된다.

상월선원 만행결사(회주 자승, 조계종 前 총무원장)는 7월 14일 동국대 본관 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10월 1일 순천 송광사에서의 입재를 시작으로 10월 18일 양산 통도사에서 회향한다고 밝혔다.

주요 순례 일정은 9월 30일 송광사 집결 및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0월 1일 송광사 입재식, 2일 송광사 일대, 3일 구례 화엄사와 사성암, 4일 천은사와 시암재, 5일 남원 성삼재, 6일 실상사, 오도재, 7일 함안 지안재, 8일 함안 바래기재, 가조 살피재, 9일 해인사, 10일과 11일 고령, 12일 창녕, 13일 부곡, 14일 부곡 대중공사, 15일 밀양, 16일 표충사, 17일 사자평, 울산, 18일 양산 통도사 등으로 진행된다. 전라남도부터 전라북도, 경상남도로 이어지는 423Km의 천리길에는 해발 1079m의 지리산 성삼재를 비롯해 958m의 지리산 시암재, 989m의 재악산 사자평 등 10여 고갯길이 순례단을 기다리고 있다.

순례단은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을 중심으로 총도감 호산 스님, 지객 원명 스님과 스님 50여 명, 재가자 30여 명 등으로 구성되고, 지원단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한다.

순례는 새벽 3시 기상과 함께 3시 40분 새벽예불과 몸풀기 체조로 시작해 묵언 행선으로 이어진다. 식사는 도시락으로 길 위에서 해결하며, 자비순례와 마찬가지로 1인 1텐트를 기반으로 숙영한다.

천년고찰서 대중 함께 신심 증장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자비순례와 달리 천년고찰들을 순례 과정에서 참배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불 · 법 · 승 삼보의 의미를 간직한 삼보사찰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잇고 있는 곳으로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국난을 극복하고, 삼보신앙 문화를 되살려 불교중흥으로 이끌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사부대중과 함께하자’는 취지에서 포교와 전법, 수행과 순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순례단은 사찰 측 행사일정을 맞추기 위해 9월 30일 오리엔테이션으로 일정을 하루 앞당기기도 했다.

순례일정 중 10월 3일에는 화엄십찰 하나인 화엄사서 개산대재를 겸해 화엄사 대중들과 함께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문화행사가 열린다.

10월 9일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보살계 수계산림과 결사대중의 참배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6일 진행되는 표충사 사명대사 다례재는 사명대사 성상이 있는 동국대와 열반지인 해인사 홍제암, 선양 중심지인 표충사를 잇는 호국정신 함양의미로 진행된다. 유일하게 2박을 머무는 부곡에서는 14일 ‘포교와 전법’을 주제로 한 대중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부대중 함께 하는 순례 주제
9월 30일부터 19일간 423Km
5개 광역시도, 11개 시군 만행
삼보사찰 비롯해 사찰9곳 참배
삼보신앙, 순례문화 조성 목적
‘포교와 전법’ 대중공사도 진행

삼보사찰 천리순례 총도감 호산 스님은 “한국불교의 위기를 느끼는 사부대중의 바람도 있고, 중흥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간절한 마음도 함께였다.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로 시작해, 태화산 예비순례와 국토를 순례하는 국난극복 자비순례를 진행했다”며 “승보에서 법보, 불보 종찰, 그 사이에 화엄십찰인 화엄사, 구산선문 중 하나인 실상사, 호국사찰인 표충사를 거치며 순례를 하는 것은 한국불교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중흥 원력을 잇는 순례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화합 · 국난극복 메시지도 전해

이어 호산 스님은 “불법승 삼보사찰은 호남과 영남에 걸쳐있다. 지역화합과 소통, 천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고찰이 있는데, 불자만의 삼보사찰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역사를 인식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크다”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친 마음들을 어루만지고 다독거리는 화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박기련 삼보사찰 천리순례 지원단장은 “삼보신앙은 한국불교의 자랑이다. 순례 이후 산티아고순례길, 시코쿠순례길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세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지자체들이 다양한 방편으로 순례사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참가자 전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자비순례 당시 내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통한 걷기, 발열체크 등 엄격한 방역 수칙도 그대로 이어진다. 또 자비순례 당시 9800명에 달했던 1일 참가 및 부분참가자,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백신 접종이 요구될 방침이다.

지객 원명 스님은 “이번 천리순례의 총거리는 거리는 자비순례에 비해 짧지만 고갯길이 9곳에 달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팬데믹 상황에서 최대한 안전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리순례 후 사회회향으로 전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우리 사회를 위한 또 다른 회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월선원 자비순례 후 결사 대중들은 후원금을 모아 우리 사회에 총 1억 8500여만 원을 전달했다. 구급차 교체와 소외계층 지원, 국가대표 선수 지원, 베트남 화장실 건립 등으로 이어졌다.

호산 스님은 “정말 많은 이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내주셨다. 이번 계기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자비순례 당시 재가자로 이뤄진 7조 조장을 맡았던 정충래 동국대 이사도 “스님과 재가대중이 함께하는 공동체 참여 의식이라고 본다. 이번 천리순례에서도 재가자들이 열심히 준비하여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련 지원단장은 “사부대중이 함께해야 한국불교에 미래가 있다는 회주 자승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한걸음씩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회향 후 11월 11일에는 삼보사찰 회향 및 상월결사 2주년을 기리는 기념법회도 진행되며, 순례에 앞선 9월 초에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동국대 만해마을부터 백담사까지의 20~25km를 걷는 백담사 예비순례가 진행된다.

호산 스님은 끝으로 “불교를 되살리는 일이자, 사회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결사에 많은 이들이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우리, 세상을 위한 걸음을 시작합니다



전법포교, 불교중흥을 염원하는
사부대중의 신심과 원력이
길 위의 야단법석으로 펼쳐집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모십니다.

순례일정 | 2021년 9월 30일 ~ 10월 18일
순 례 길 | 송광사 → 해인사 → 통도사
접수마감 | 2021년 8월 15일
문 의 | 지객 원명스님 010-5416-0616



불자들의 세가지 보물 ‘삼보(三寶)’
•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16국사의 숨결을
•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 진리의 깨우침을
•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내 안의 붓다를 만나는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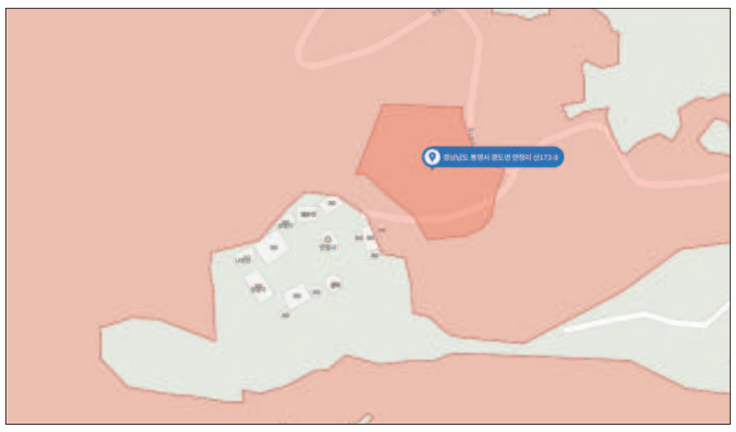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행의 시작
사부대중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발원합니다

법원, 안정사 토지 1천평 '처분금지'

법화종 종찰 통영 안정사, 토지 증여 논란

지난해 안정사영산재보존회로 진입로 등 1천평 소유권 이전
양도자·양수자 모두 승헌스님 전과 논란됐던 안정사 前 주지

총무원, "증여 승인기록 없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제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6월 23일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결정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에 양도된 안정사 토지. 유일한 진입로를 포함하고 있다.


구글맵에서 확인되는 증여부지 안정리 산 173-8.


소유권 이전 및 처분금지가 기재된 등기서류.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법화종 대표종찰이자 전통사찰인 통영 안정사를 두고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안정사 진입로를 포함한 부지 1000평에 대한 소유권이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로 이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전통사찰 보존법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종단 대표자의 승인서가 필요하지만 총무원 공식 자료에 토지 증여와 관련한 승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다가, 해당 부지가 안정사로 들어가는 유일한 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더욱이 해당 부지를 증여받은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 이사장이 지난해 전과이력으로 인한 자격 논란 물의를 빚었던 안정사 前 주지 승헌 스님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종단 내 이와 관련한 의혹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본지 취재에 따르면 증여계약서상 양측 당사자인 안정사와 안정사영산재보존회는 모두 대표자가 승헌 스님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서상 당시 안정사 주지 승헌 스님이 사찰 소유의 1천평 부지를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 이사장 승헌 스님에게 증여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 "전통사찰의 보존을 책임져야 할 주지가 소임을 활용해 사찰 부지를 사유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승헌 스님이 토지를 양도한 시점에 안정사 주지였는지 여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승헌 스님이 '법화신문'에 직접 공개한 '승인서'에 따르면 승인 시점은 2020년 9월 18일이다. 그러나 총무원 공식 문서에 따르면 당시 승헌 스님은 안정사 주지직에서 해임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총무원에 따르면 2020년 8월 대전지방법원이 前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의 승려 자격을 이유로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진우 스님이 행사한 인사권 등 종무행정 일체가 무효화됐다. 승헌 스님에 대한 안정사 주지 임명 또한 무효로 소급되면서, 2020년 9월 9일 총무원장 서리 지관 스님이 승헌 스님에게 '안정사 주지 직위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특히 안정사는 종단의 대표적인 종찰이자 전통사찰임에도,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총무원 공식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양도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총무원장의 승인서와 가계약서, 주지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하지만, 정작 총무원에 보관된 서류목록 중에는 관련 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총무원 공식자료에 따르면 안정사 부지와 관련한 기록은 2018년 1월 前 총무원장 도성 스님 당시 진행된 임원회의에서 영산재보존회 전수관건립에 관한 토지 사용승인의 건을 다룬 회의록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제한 증여가 아닌 사용승인의 건이며, 대상으로 명시된 필지도 실제 (재)안정사영산재보존회에 증여된 필지와 다른 위치로 확인됐다.

본지 확인결과 당시 임원회의에서 사용승인의 건으로 논의된 필지는 안정1길 363 소재지의 산173번지 내로, 당시 임원들은 토지사용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174번지 내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자부담으로 전수관 건립에 따른 토지이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현재 안정사영산재보존회에 증여된 필지는 안정리 산 173-8 주소지의 임야 3300㎡(1000평)로, 다른 위치인데다가 안정사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토지를 별개의 법인에 양도하는 행위는 전통사찰 보존 및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관련 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등기서류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필지분할을 통해 안정사영산재보존회로 증여됐으며, 등기 접수는 11월 3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총무원 관계자는 "안정사 토지 증여를 위한 분필등기 신청과 총무원장의 증여승인서, 안정사와 안정사영산회보존회 증여 계약, 안정사 임원회의, 사찰주지재적확인서 발급 등이 모두 같은 날인 2020년 9월 18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상식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의혹이 많다. 의혹 해소를 위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승헌 스님은 "2018년 임원회의에서 사용승인된 토지와 증여된 토지의 주소가 다른 이유는 '오기' 때문"이라며 "또 지관 스님에게 안정사 주지 직위 해지 통보를 받은 것은 맞지만 9월 23일 스스로 사직했다. 증여 과정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현재 해당부지는 법원에 의해 '부동산처분금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법화종 총무원(총무원장 서리 혜문)측이 즉각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6월 23일 총무원의 가처분 신청취지를 인용해 "안정사영산재보존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승헌 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저를 둘러싸고 불미스러운 소문들이 횡횡하고 있으나 전혀 근거없는 일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영산재보존회교육전수관 신축건립의 건립추진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며 "안정사영산보존회 건립불사에는 조금도 사심이 들어가지 않은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사비로 10억원을 들여 하루속히 불사를 건립해 도제양성을 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총무원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할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요청한데 이어, 관련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제6교구본사 주지후보에 원경스님 선출

마곡사, 7월 15일 산중 총회서
148명 중 84표를 획득해 당선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제30대 주지후보에 현 주지 원경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이에 따라 원경 스님은 사실상 마곡사 주지 3선에 성공했다.

조계종 제6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탄공)는 7월 15일 마곡사 관음전에서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주지로 현 주지 원경 스님을 선출했다. 기호 1번으로 출마한 원경 스님은 선거인단 151명 중 148명이 참석한 가운데 84표를 획득, 60표를 받은 기호 2번 선일 스님과 24표 득표차로 주지후보로 당선됐다. 무효표는 4표로 집계됐다.

이날 원경 스님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세영 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전달받은 후 인사말을 통해 "저를 다시 교구본사주지로 선출해 주신 교구 대중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말사 화합에 더욱 노력하면서 각종 불사와 교구 승려복지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달라는 엄중한 당부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교구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교구 발전을 위해 제시했던 공약들을 지킬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원경 스님은 선거를 앞두고 △교구 내 선·명상 수련 체험관 건립 △금어원 건립 △교구 다비장 건립 △노비구, 비구니 수행관 건립 △수좌 스님 수행비 지급 △학인 스님 장학금 확대 △노스님 수행비 지급 확대 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원경 스님은 진연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8년 봉선사에서 운경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1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은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마곡사 공주포교당 주지와 천안 성불사 주지, 제13~15대 중앙종회의원, 천안불교사암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마곡사 주지와 사회복지법인 마곡 이사장, 대전경찰청 경승지단장, 대전충남파라미타와 세종파라미타 총재 등을 맡고 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8월 26일

중앙선관위, 7월 13일 일정 확정

신흥사·은해사 직선직
포교 직능 대표도 선출
8월3~5일 후보자 등록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가 8월 26일 진행된다. 이번 보궐선거는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종회의원,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종회의원, 직능대표(포교분야) 3명을 선출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 이하 선관위)는 7월 13일 제379차 회의를 열고 제17대 보궐선거일 등 공고안을 확정했다.〈사진〉 보궐선거는 올 2월 신흥사 종회의원 정현 스님의 사직과 덕관 스님의 은해사 주지 취임에 따른 사직에 따른 것이며, 직능대표 포교분야 종회의원은 지난 3월 포교원장에 취임한 범해 스님의 후임이다.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등록은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로,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스님이면 출마가 가능하다. 겸직제한 소임의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8월 2일까지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선관위는 8월 12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며 8월 23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단일후보의 경우 선거인 명부 확정 없이 무투표 당선된다. 직능대표 선출위원회 회의는 8월 23일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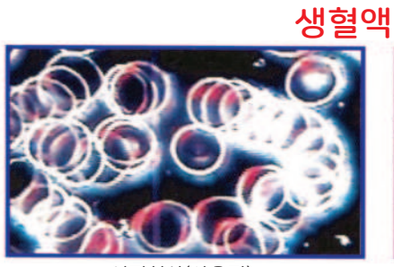
직선직 종회의원 선거권은 해당 교구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이거나 해당 교구의 본말사 주지, 혹은 해당 교구에서 임명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 종무원으로 해당 교구에서 결계포살을 4회 이상 참여한 경우 선거권이 부여된다. 또 해당 교구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는 스님 중 해당교구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했거나 결계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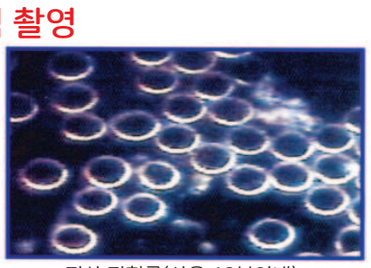
선거인 확정을 위한 거주승 신고는 7월 27~8월 2일,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다.

송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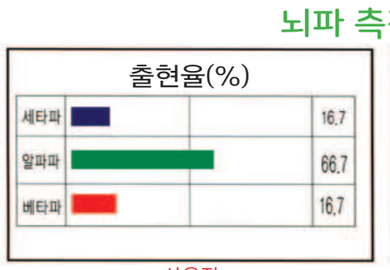
세정제인 비누가 감기, 몸살,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과 아토피, 무좀을 없애주며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비누!!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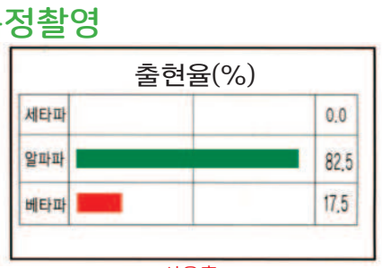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 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폐렴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99.9% 정균 감소 기능을 지닌 비누

체험사례
◎ 개발자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를 90년대 말에 개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0여년간 감기나 몸살로 약을 먹어본 적도, 드러누워 본 적도 없이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 BLOOD MATE®를 사용하기 전에는 안경을 써야 신문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안경을 쓰지 않고 신문을 보고 있으며 눈동자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 BLOOD MATE®를 설명서대로 사용하고 누워있으면 세포 움직임(혈액순환)이 손바닥에서 스물스물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어깨, 목, 허리 통증을 없애주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 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비누 : 120g 12개 300,000원
ORAL MATE® 치약 : 120g 3개 63,000원
363,000원 ➡ 100,000원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

코로나 4단계 격상에 사찰 방역 '초긴장'

송지희 · 노덕현 기자

7월 25일까지 수도권 4단계
조계종, 사찰 방역지침 공지
조계사, 마지 공양도 스님이
각 사찰들 방역 비상에 돌입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전국 사찰들이 다시 방역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재확산은 백신 접종율 증가에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정부가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지침을 4단계로 격상한 데 따라 사실상 최고수위 방역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은 7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사찰 방역수칙'을 하달했다. 정부의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수도권 사찰은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모든 법회를 비대면으로 전환토록 해 사실상 대면법회를 금지했다. 또 상주대중을 제외한 신도외 외부인의 대중공양을 중단하고 공용 음수대 사용 중단, 공용물품 사용을 자제토록 했다.

이외에는 조계종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방역지침이 그대로 유지됐다. 사찰 내 마스크 필수 착용과 1일 3회 이상 환기 및 출입인 발열체크와 대장 작성, 개인위생 준수 등이다.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사찰 상주대중의 유증상 발생시 즉지 조취를 취하도록 한 방침도 지속된다. 수도권 외 사찰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관도 기간 중 전면 중단된다. 기념관 내 외부 행사는 전면 금지됐고 기자실도 잠정 폐쇄키로 했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범해)도 7월 13일 전국 100여 불교대학에 방역지침을 하달했다. 조계종 방역지침에 근거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 전면 비대면 방식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2021년 학사운영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교과 및 신행 등 졸업인정 강의 이수시간을 96시간에서 64시간으로 변경했으며, 온라인으로 진행한 강의에 대해 강의 이수시간으로 인정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첫 사례인 만큼, 사찰들의 긴장감도 최고수위로 치닫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7월 11일 조계사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4단계 기간 중 법당 내 기도를 스님에 한정하고 신도들은 참배만 가능토록 했다. 49재를 비롯한 각종 제사는 직계가족만 참석 가능하며 불단에 공양미를 올리는 연화미 마지공양도 스님들이 대신 올리고 사진을 발송할 계획이다.

대신 기간중 유튜브로 사시불공을 생중계해 신도들의 아쉬움을 달랜다는 방침이다. 기본교육은 비대명 영상강의로 전환되며 불교대학 경전반과 백송대학 및 아카데미 수업은 2주간 휴강한다.

서울 봉은사는 모든 기도 · 법회를 스님 집전만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해당 시간 동안 신도들의 법당 출입을 금하고 비대면으로 추진한다. 템플스테이 운영은 물론 대중 공양간과 바루 운영, 계층법회와 합창단 · 무용 · 풍물 등 일체의 모임도 중단한다. 경내 연회다원 등 찻집은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토록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종교지도자 간담회에 앞서 원행 스님에게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

김부겸 총리, 종교계에 "방역 동참" 요청

7월 15일 종교지도자들 초청
총리공관서 긴급간담회 진행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종교계에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1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 총리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수도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거리두기 4단계와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종교계 지도자 어른들의 말씀이 필요해 절박한 심정으로 긴급하게 만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위기극복에도 다시 한번 동참해 달라"며 "종교계 지도자들이 나서서 종교활동 현장에서 신도들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한때 하루 확진자 2만 명이 나오던 이탈리아가 백신접종 70%를 넘어선 이후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다며 우리도 더 신속한 백신접종 등 대책들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종교계 지도자들은 서울과 경기지역 감염 확산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시행의 불가피성에 공감을 표한 데 이어 "이번 위기가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송지희 기자

코로나로 신음하는 남방불교에 온정 전달

로터스월드 · 전국비구니회
7월4일부터 7~8일 전달식
캄보디아 · 미얀마 · 라오스
사찰 4곳에 1차로 긴급지원



미얀마 샨마띠다 사찰에서 진행된 전달식.



캄보디아 쁘레아떼위엑 사찰 스님들이 지원물품을 받아 가는 모습.

코로나19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는 남방불교 승단에 한국불교계의 자비 온정이 닿았다. 로터스월드와 전국비구니회가 사찰 지원 긴급캠페인 '탁발이 어려워진 이웃 불교국가 스님들의 발심출가를 지켜주세요'를 통해 모연된 후원금을 현지사찰에 전달했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7월 4일과 7~8일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등 현지사찰 총 4곳에 1차 긴급 지원을 진행했다. 1차 지원 대상사찰은 라오스 방비엥 지역의 왓타(Wat That) 사원, 미얀마 양곤의 샨마띠다(San Mya Thida) 사원학교, 캄보디아 시엠립의 쁘레앙 뚜르엉(Phresh Angtrung) 사찰과 쁘레아 떼위엑(Preah Teak) 사찰이 선정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미 1년 넘게 지속된 만큼 각 사원들의 생계문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로터스월드와 전국비구니회는 캠페인 선포와 동시에 현지사찰들의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지원이 시급한 4개 사찰을 1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후원금 모금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모연되는 상황과 연동해 우선순위 사찰들에 대한 지원을 순차적으로 이어나가는 방식을 채택했다.

로터스월드에 따르면 라오스 왓타(Wat That) 사원은 방비엥 지역에서 동자승이 가장 많이 생활하고 있는 사찰이며, 캄보디아 쁘레앙 뚜르엉 사찰과 쁘레아 떼위엑 사찰은 시엠립 지역에서 동자승을 비롯해 수많은 스님들이 계율을 지키며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사찰이다. 미얀마 샨마띠다(San Mya Thida) 사원학교는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는 사찰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탁발 중단과 군부쿠데타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지원은 전국 사찰과 단체, 불자들이 모연한 금액을 현지 사찰의 사정에 맞게 분배해 로터스월드 현지 지부를 통해 현금으로 전달됐다. 특히 각 지부는 지원금으로 쌀과 라면, 설탕과 식용유, 비누 등을 현지 구매해 사찰에 지원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불자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 전달한 식자재를 스님들을 위해 음식으로 조리해 공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는 남방불교의 탁발 전통과 계율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조치다.

1차 지원에서는 쌀 150포와 라면 120박스, 설탕 100kg와 생필품 등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사찰의 스님 및 대중 500여 명에게 전달됐다.

캄보디아 쁘레앙 뚜루엉 사찰 주지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루 한 끼의 공양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스님들과 불자들의 아낌없는 후원이 사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사찰 긴급 지원캠페인 '탁발이 어려워진 이웃 불교국가 스님들의 발심출가를 지켜주세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남방불교계를 돕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등 불교국가 승단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가불자들의 보시 급감과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탁발 중단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캠페인은 기간 특정 없이 지속되며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로터스월드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의 사찰 뿐 아니라 사찰 인근의 주민들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상황과 사찰의 독자적인 운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캠페인 종료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02)725-4277, 농협 301-0059-6339-11 예금주 로터스월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복날, 삼계탕 대신 '채식'으로 건강 챙겨요

불교환경연대, 8월 10일까지
SNS로 복날채식캠페인 진행

불자라면 복날 원기회복 음식으로 '삼계탕' 대신 채소로 만든 '채계장'을 선택해 환경과 건강을 한 번에 챙겨 보면 어떨까.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가 초복인 7월 11일부터 말복인 8월 10일까지 한달간 복날 채식 캠페인을 진행한다.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기간 동안 육류 대신 채식 음식으로 지구를 지키고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다.

불교환경연대는 "축산업은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와 가축을 기르기 위한 농장을 만들고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 삼림을 파괴하고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꼽힌다"며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채식을 제안해 대중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7월 11일 초복을 시작으로, 7월 21일 중복, 8월 10일 말복에 SNS계정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자신의 SNS계정에 채식 식단을 담은 인증샷과 참여 소감을 #복날채식캠페인, #기후위기, #채식, #불교환경연대 등 해시태그와 함께 게재한 후, 구글 링크(https://forms.gle/tSPCJVrbuYHegTxL6)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해 캠페인 참여를 인증하면 된다.

불교환경연대는 캠페인 종료 후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한 참여자들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방침이다. 선물은 서울 금선사, 강릉 현덕사, 울산 백련사, 고창 참당암, 창원 성주사 등 녹색사찰 템플스테이 이용권 2매.

캠페인 참여 기간은 8월 10일까지이다. 불교환경연대는 "영양과잉인 현대인들이 이제는 복날에 육류로 만든 보양식을 먹는 대신에, 채소로 가볍게 먹으며 건강을 챙기는 날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캠페인 동참을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불교, ‘Digital First’로 코로나 파고 넘어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600명대를 오가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방역지침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모든 수도권 종교시설은 비대면 법회와 예배로 전환 · 운영됐다. 대면을 통한 의례와 행사, 포교에 치중된 종교계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일상이 도래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다룬 논문들이 잇달아 발표돼 눈길을 끈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최근 발간한 〈종학연구〉 제5집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찰경영 방안(조기룡)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도교육과 포교 활성화 방안(김응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템플스테이 운영 방안- 템플스테이에 대한 언론 보도의 변화를 중심으로(하원 스님)를 게재했다. 이들 학자들이 제시한 대응 방안들의 공통점은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였다.

사찰경영 활성화 방안을 진단한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사찰들은 종교활동 위축과 재정 감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특히 고정 지출이 많은 도심 대형사찰이나 문화재관람료 사찰의 경우 사정이 더 좋지 않다. 조 교수에 따르면 조계사의 경우 재정 수입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조계총림 송광사는 코로나19 이후 1개월 간 관람료 수입이 55% 감소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 교수는 △사이버 신행 문화 △온라인 보시 문화 △사찰 활동의 공공성 강화 △위로감과 안정감 제공 등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유튜브를 비롯한 SNS 플랫폼은 온라인 공간을 선호하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중요한 종교의 소통 도구가 될 수 있다”면서 “사회생활과 일정 부문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스님들은 온라인 소통 도구가 어렵기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대면 소통 도구의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IT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사찰경영과 불교포교에서 IT의 접목은 필연적”이라며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종교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보시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비대면과 가상공간의 활용이 강조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연간기도 회원제와 특정 불사 온라인 기부는 적합한 사찰경영 방안”이라며 “아직까지 연간기도 회원제와 특정 불사 온라인 기부는 전체 신행활동에서 비중이 적지만, 이는 한국불교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재정 부족과 신도 조직화의 개선 차원에서 꾸준히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줌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불련 온라인 법회 모습.

동국대 종학硏 〈종학연구〉서
코로나 대책 연구논문 ‘눈길’

대형사찰 고정예산 커 재정난
온라인보시 · 공공성 강화해야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필요해
명상 통한 불교대중화 모색을
비대면 템플스테이 전략 개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신도 교육과 포교 활성화 방안을 살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포교 활성화 방안으로 김 교수는 거시적 전략과 미시적 전략으로 나눠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거시적 포교 전략으로 김 교수는 단위 사찰, 신행단체 등의 포교 주체가 각자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데 종단이 집중적 투자를 할 것을 비롯해 △불교, 사찰, 스님에 대한 이미지 개선 △SNS 등을 통한 포교 기반 구축 △불교 수행방법 대중화 등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현대는 잘 만든 동영상 하나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콘텐츠를 만드냐는 것”이라면서 “포교콘텐츠 개발에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회를 유치하고 상금을 주는 공모와 시상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미시적 포교 방법은 각 사찰의 역량에 좌지우지되는 만큼 신도들의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평신도들의 발굴, 사찰 소임자들의 지원활동 확대 등의 요소가 결합될 때 효과적인 포교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하원 스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템플스테이 운영 방안을 언론 보도 변화를 통해 살폈다.

하원 스님은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를 활용해 코로나19 전후의 템플스테이 언론기사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2019년과 2020년 동일 기간 템플스테이 뉴스 건수는 608건에서 426건으로 줄었다. 키워드 역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변화했다. 특히 공익적 템플스테이 등 사회적 역할들이 중요 키워드가 됐으며, 사회적 거리, 휴식형 등도 키워드로 등장했다.

이를 통해 하원 스님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결 강화 △소규모 모임 · 가족 중심 템플스테이로 전환 △휴식형 템플스테이 강화 △비대면 서비스 채널을 통한 마케팅 전략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스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템플스테이 운영에 있어서도 건강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웰니스 경향의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청정한 자연환경과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심신 안정을 유발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운영 중단에도 템플스테이가 운영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채널을 통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줌(Zoom)을 통한 명상 및 사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계 복지관, 어르신 디지털교육 박차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교육 중심

코로나19로 비대면 · 디지털기기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불교계 복지관들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 소외계층이 증대하는 가운데 특히 노년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은 개인간 그 격차가 더욱 뚜렷하며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 영위에 직결된 디지털 영역에서 역량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이 운영하는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는 서울시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사업 ‘디지털배움터’로 선정돼 7월 8일부터 스마트 정보화 프로그램 ‘스마트클라쓰’ 운영을 시작했다.

석관실버복지센터는 지역사회의 스마트 정보화 프로그램 수요에 대응하고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디지털 종합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석관실버복지센터는 7월 8일 서울시와 ‘스마트 클라쓰’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디지털배움터 내 개설예정인 ‘스마트클라쓰’는 기존 센터 내 성북구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60+재능나눔 아카데미’의 ‘스마트폰 지도자 양성과정’ 참여자들이 심화 학습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나석원 센터장은 “디지털배움터 ‘스마트클라쓰’와 60+재능나눔 아카데미 ‘스마트폰 지도자 양성과정’을 통해 성북구 내 어르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02)957-9923

서울노인복지센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7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태블릿/스마트폰으로 그리는 그림, 디지털 드로잉’, ‘이제 혼자서도 주문하기-키오스크의 모든 것’,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쇼핑하기반’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서울노인복지센터(센터장 희유)는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라 온라인 교육센터 ‘도시락’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비대면 디지털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02)6220-8500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도 평생교육을 통한 어르신 정보화 SOC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스마트폰 기초과정과 어플 및 키오스크 사용교육 등은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현재 코로나 확산을 감안하여 휴강 중으로 차후 재개될 예정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디지털 역량이 떨어지는 어르신 뿐만 아니라 비용 문제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중앙신도회, 불교성전 손글씨 공모전 개최

8월 31일까지 우편 접수, 대상에 상금 100만 원 수여

조계종단본 〈불교성전〉을 활용한 수행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가 ‘손과 마음으로 읽는-불교성전 손글씨(필사) 공모전’을 진행한다.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성전 읽기를 하며 손글씨로 필사한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각 가정의 신행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필사지는 중앙신도회 홈페이지(LBA.or.kr) 공지게시판에서 양식을 선택하면 된다. 원하는 필기구를 사용해 200자 원고 5매 이내로 필사하면 된다. 조계종 신도증을 소지한 전국의 모든 불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대상에게는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에 50만 원이 수여되며, 우수상 장려상도 시상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5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함께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 선포식’을 시작으로 릴레이 불교성전 법공양 챌린지와 인증샷 이벤트 등 불교성전을 활용한 다양한 대중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농선 대원 선사의
대방광불화엄경 81권
완역본 출간기념
할인 판매

수덕사 만공선사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전등록 30권과 선문염송 30권을 역해하고 1,463칙 전 공안에 착어를 하신 바 있는 불조정맥 제78대 농선 대원 선사께서 81권 화엄경과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드디어 출간 완료하였습니다.

불교 경전의 정수에 해당하는 화엄경 81권 완역 출간을 기념하여 81권 세트 121만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100만원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300부 한정, 선착순 주문 받습니다.
차후로는 지면을 통한 화엄경 추가 출간 계획이 없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문젠 010-3880-8980







“무소의 뿔처럼, 남은 포교 원력 다할 터”

퇴임하는 제 4대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변의 말에 끄달리거나 동요되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간다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는 7월 24일 제4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소임을 내려놓는 선묵 혜자 스님은 담담한 어조로 지난 4년간의 소회를 전했다.

“참 세월이 유수같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제4대 군종특별교구장으로 역대 교구장스님들이 일구어 놓은 많은 일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포교 형태를 만들고 군불교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덧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지막에는 좀 더 열심히 할 것을, 좀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좀 더 자비롭게 할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는 법이죠.”

제4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으로 취임했던 2017년 7월, 선묵 혜자 스님은 여러 가지 군불교 중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전국 군법당 평화의불 봉안과 신행문화 활성화를 기치로 건 것은 역대 군종특별교구장들이 내건 법당 불사, 시스템 정비와는 다른 근본적인 군불교 활성화 방안이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군법당을 찾는 장병들은 연인원 20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단순히 법회 참여에만 그쳤던 것이 사실이었다. 정기법회 뿐만 아니라, 법당에서 이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선묵 혜자 스님에게는 ‘평화의 불’ 군법당 봉안은 하나의 화두가 됐다.

“부처님 탄생성지인 네팔 룸비니 동산에서 이운해 온 ‘평화의 불’을 108군법당에 봉안하고 남북의 평화와 나라의 안녕, 군장병들의 마음의 평화와 무사고 안전을 기원하고자 했습니다. 군장병 개개인이 평화의 초에 자신의 소원을 담아 불을 밝히도록 했고 단주 만들기를 통해 불교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탈종교화 시대, 군 내에서도 비종교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병들이 직접 법당에 있는 개인 ‘평화의 초’에 불을 붙이고, 신앙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청년포교이자 군포교에서 하나의 돌파구였다. ‘평화의 불’ 봉안은 군부대에서의 불교의 위상을 새롭게 하기도 했고 군 지휘관이 동참하여 법사들의 위상이 향상 되었으며 군장병들도 불교에 대해 쉽게 다가가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군내 총기난사와 같은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도 스님이 ‘평화의 불’ 봉안을 마음먹게 된 계기다.

“결국 마음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군불자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며 화쟁사상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장병들이 평화의 마음으로 대하여 사고 없이 무탈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섰으면 합니다.”

2018년 군승파송 50주년을 맞아 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야전가사를 제정하고 〈군승 50년사〉를 봉정하기도 했다.

특히 야전가사는 전투복 위에 착용 가능한 가사로 현역 군승들을 중심으로 심혈을 기울였다. 이는 군종특별교구가 2005년 출범 이후 군 실정에 맞게 법회와 수계의식을 정비하고 불상, 목탁, 요령 등을 간소화한 야전의식 정립의 일환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묵 혜자 스님은 결국 현장에서의 군승들과 군불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여 미리 대응 하는 것에 군불교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흔히들 한국 불교의 미래는 군불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와서는 구두선에 그치고 맙니다. 향후 군불교는 100년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군법당이 군장병들에게 마음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SNS를 통한 포교 방법 모색, 군법당과 본사급 사찰간의 유대를 통한 템플스테이 실시, 핸드폰 시대이니 만큼 이에 대비한 젊은 포교 등 다각적인 포교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큰 포부를 안고 시작했지만 선묵 혜자 스님의 제4대 군종특별교구장으로서의 임기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불자양성에 진력하던 2019년 말 터진 코로나19였다. 무엇보다 확진자 방지에 민감했던 군은 각종 행사 등을 취소하고, 엄격한 통제에 들어갔다.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 군불자들을 만나며 이뤄져 온 군포교 또한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평화의불 108군법당 봉안 계획도 60여 곳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당장 진행하던 수계법회 또한 군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한창 현장을 순회하던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의 날벼락 수준이었다. 선묵 혜자 스님도 “코로나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해야 했던 사업들과 좀 더 장병들과 소통을 통해 군포교를 활성화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잠자코 있을 수만은 없었다. 무엇보다 군포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불사 중 하나로 꼽히는 계룡대 호국 홍제사 불사의 과업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전국 군법당 ‘평화의불’ 봉안
군장병 불심 고취에 큰 공헌
코로나로 못다한사업 아쉬움
호국 홍제사 불사 관심 당부

〈법구경〉가르침은 나의소명
마음 공부 지혜 대중에 전해
코로나 속 기도 신행 새문화
새 원력 세우며 교구장 회향



제4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 1952년 출생하여 청담 스님을 은사로 1967년 사미계를 받았다. 총무원 문화부장과 사서실장, 서울 강북구 도선사 주지, 제16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 노원구 도안사 주지를 맡고 있다. 스님은 특히 108산사순례기도회를 이끌며 연인원 54만명의 군장병에게 430만 여 개의 초코파이를 전달해 2015년 군승의날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불사 가운데 하나인 계룡대 영외법당 신축불사는 군종특별교구에서는 핵심사업 중 하나다. 계룡대는 육해공군 3군 사령부가 함께 있는 국군의 심장부로, 각 종교 교당도 영내에 자리하고 있었다. 불교도 계룡대 내 호국사가 있었지만 국군 사령부가 있는 계룡대인 관계로 출입이 까다로워 군불자들이 신행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장병들을 비롯한 불자들이 편하게 찾고, 법회 외의 다른 다양한 불교문화를 향유하기에는 새로운 불사가 필요했다. 계룡대의 장병과 장성포교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불사였기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발 벗고 뛸 수밖에 없었다.

이웃종교계는 이미 영외에 교육관을 명분으로 불사를 진행해 운영 중인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불사가 필요했다. 2019년 3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계룡대 호국사를 방문해 상황을 보고받고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포함시키면서 불사는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19년 11월 불사 계획 공개 후 2020년 11월 24일 기공식이 진행됐으며, 2021년 6월 9일 불사성만 기원재가 봉행됐다.

홍제사 법당은 대지면적 2만8868㎡(8733평), 연면적 3483㎡(1054평) 규모로 지상3층 1개동으로 지어지며 건물 내에는 대법당과 소법당, 회의실, 다목적실과 식당, 카페 등이 들어선다. 현재도 불사 중인 홍제사 법당 예산은 총 62억여 원으로 불자들의 불사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스님은 “육해공군 삼군 본부 영외법당인 호국홍제사 불사에 첫 삽을 떠 공사가 여법하게 진행되고 있음도 보람이라면 보람”이라고 전했다.

종단 안팎의 주요 소임을 잠시 내려놓는 스님은 항상 마음을 닦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만나는 이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스님만의 비결이다.

스님은 〈법구경〉의 구절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전했다.

“ ‘활을 만드는 사람은 활촉을 단속하고, 뱃사공은 선박을 단속한다. 목수는 목재를 단속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을 신중하게 하여 비방과 칭찬에 동요하지 않는다. 마치 큰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깨끗하고 텅 빔이 마치 깊은 못이 맑고 환한 것과 같다’ 는 〈법구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그것이 마음을 편안케 하는 지름길입니다.”

108산사순례회라는 불교계에서 혁신적인 신행문화를 제창해 끌고 온 선묵 혜자 스님이기에 그 기대는 더욱 컸다. 아쉬움을 뒤로 스님은 이제 주석처인 도안사로 돌아가 새로운 신행문화 창달에 힘쓸 계획이다.

스님은 “코로나 19로 인해 순례문화가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며 새로운 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현재 제가 주석하고 있는 수락산 도안사에서 광명진언 1080독 기도와 사경을 봉행하고 있다. 수행자가 기도와 포교를 등한시해서야 되겠는가?”라며 “포교에 대한 생각은 입적하는 그날까지 해야 할 것이고 기도 또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스님은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힘을 내자고 당부했다.

“불교는 인연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코로나19도 악연이라면 악연이죠. 우리 불자들은 이 악연을 선연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일은 계속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양극화와 이념간, 지역간, 계층간, 세대별 갈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긴장하고 움츠러들며 자신만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남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남을 원망하기보다 공업중생임을 인지하고 이를 극하고자 하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웃과 인정을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모두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나선다면 해결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한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제4대 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과 제5대 교구장 선일 스님의 이취임 법회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취소됐으며, 7월 22일 조계종 총무원 4층 접견실에서 5대 교구장 임명장 수여 및 4대 교구장 공로패 수여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사미·사미니스님

입원진료비 신청 및 지원절차 안내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그동안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우리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난 3월 중앙종회에서 의료비 수혜대상을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스님으로 확대하는 승려복지법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청 자격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사미·사미니계 수계 이후 3분의 2이상 등재 또는 최근 2년간 전부 등재)으로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스님
※ 다만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 서류
1) 입원진료비 지원신청서(종단홈페이지 – ‘승려복지’에서 양식 다운)
※ 당해 기본교육기관장의 확인(지원신청서 하단)을 받아야 함
2) 진료비 내역이 표시된 납부영수증 사본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지원 범위
1)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 :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입원진료비 전액(미용 및 보양목적은 제외)
2) 일반병원 :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1회 신청금액 10만원 이하는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 기간
퇴원 후 1년 이내(사미·사미니의 경우 휴학 중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다만 질병에 의한 휴학 중인 경우에는 승려복지회의 의결로 지원)
※ 2021년 7월 1일부터 입원진료 적용

지원 절차
1) 자격심사 : 결계록 등재여부,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 해당여부,
기본교육기관 재학여부(교육원 확인) 등
2) 신청자에게 입원진료비 입금
3) 교구본사와 분기별로 정산

접수및 문의
1) 접수 : 우편 및 팩스 (02-733-3603)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승려복지회
2) 문의 : **02-2011-1726~7, 1980~2**

불기2565(2021)년 7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

“음악으로 소통의 길 함께 걸을 것”

(사)향기로운문화동행 · 부산오페라聯 등 협약

지역소재 문화예술 발전
인재양성 신인발굴 주력
문화행사 공동기획 추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향기로운문화동행과 부산오페라연합회 협동조합 그리고 부산뮤지컬단 이 7월 13일 BOF아트홀에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문화로 소통하고 동행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이 부산오페라연합회, 부산뮤지컬단과 협약식을 진행했다. 세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 예술을 위한 사업을 기획 발굴하고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과 부산오페라연합회 협동조합(대표 윤장미) 그리고 부산뮤지컬단(단장 김지현)이 7월 13일 BOF아트홀에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단체는 지역을 소재로 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역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뿐 아니라 지역 특색을 연구해 새로운 문화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단체의 문화, 예술 연구 인력을 교류하고 예술인 양성에 노력을 기울인다. 세 단체는 무엇보다 지역의 축제와 공연 등 문화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사장 보혜 스님은 “문화를 위한 우리의 협력은 코로나로 인해 지친 모든 이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아름다운 문화는 종교가 달라도 함께 미소 짓게 하고 국가와 이념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있다. 문화를 통해 참된 동행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은 차(茶) 문화를 중심으로 예술문화 활동을 펼치는 단체다. 기장차문화대학에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해 차를 통해 각 분야의 문화예술인들과 동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고 있다. 아울러 해마다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 와 ‘동행달빛음악제’ 를 열어 한 · 중 · 일 · 인도와 차문화를 교류하고 문화행사를 주도하고 있다. 또, 가야문화발전을 위해 허황후를 기리는 헌다례를 주관, 허황옥차인상, 수로문화상, 차성문학상을 시상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부산오페라연합회 협동조합은 2014년 부산지역 오페라 관련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원활한 작품 제작과 지역 공연 활성화를 위해 창립된 단체이다. 부산 원도심의 문화 · 예술 부흥과 예술로 도시로 만들고자 원도심인 부산 중구 대청로로 이전했다. 2018년 12월 1일 부산오페라연합회(협동조합 특수법인)로 재발족해 공연예술문화 사업 및 전문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소외계층의 예술문화 향유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대표인 윤장미 소프라노는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에서 특별상과 러시아 옴스크 문화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유럽에서 예술경영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로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윤장미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문화예술계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함께하고 소통하고 문화 예술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부산뮤지컬단은 다양한 계층과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작 공연제작에 앞장서며 지역 신인 예술가의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예술 영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지현 부산뮤지컬단 대표는 창작뮤지컬 제작과 팝페라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 부산국제뮤지컬콩쿨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시민 뮤지컬단과 부산주니어 뮤지컬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제1회 부산 어린이 · 청소년 뮤지컬페스티벌’ 을 기획하고 있다.

김지현 대표는 “음악을 사랑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미래 인재들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때이다”며 “이번 협약은 미래 예술인들의 밝은 길을 열어 주는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경없는민들레 코로나19 산소기금 모금

총 1억여 원 모아 네팔 등 도와

정토마을 해외 의료봉사기구인 국경없는민들레가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위해 긴급 지원 모금을 실시한 결과 1억 246만 원이 모연됐다.

울산 정토마을(이사장 능행) 국경없는민들레는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네팔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산소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펼쳐 7월 8일 기준 총 1억 246만 원이 모금되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산소발생기, 의료용 산소통 구입 및 산소 충전비용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국경없는민들레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과 정성으로 수없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덜고 생명을 건지며 희망의 빛을 찾게 되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052)255-8588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밀양 재악산으로 이름 변경해야”

재악산 표지석바로세우기 운동 추진위 창립


밀양 재악산 산이름(표지석)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위원회는 7월 13일 밀양시청 대강당 2층에서 ‘재악산 산이름(표지석)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표충사는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받드는 곳입니다. 표충사가 재악산의 이름을 지키지 못하고 일본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밀양 재악산 산이름(표지석)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위원회는 7월 13일 밀양시청 대강당 2층에서 ‘재악산 산이름(표지석)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창립총회에는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용궁사 정무 스님, 박일호 밀양시장, 황걸연 밀양시의회의장, 엄수면 추진위원회부의장, 예상원 경남도의원, 박필호 시의원 외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말양 재악산은 1923년 일본이 천황산으로, 수미봉을 재약산으로 지명을 변경하며 불리게 됐다. 밀양시와 관계 향토사학자들은 꾸준히 지명 변경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가지명위원회를 통과 못해 현재 일본의 잔재인 천황산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표충사는 2017년 산문 현판에 재악산 표충사로 표기하고 있다”며 “민족의 정기를 억누르는 이름 바꾸기 운동은 사명대사의 혼을 되살리고 자존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표충사와 사부대중은 모두 함께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시민 위한 산사문화재 활용사업

거제 신광사, ‘석불의 미소’ 개막식 진행

2021산사문화재 활용사업
불교문화 체험의 기회제공
4가지 무료 프로그램 선뵈
상생형 관광자원으로 평가



신광사는 7월10일 대웅전에서 2021년 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석불의 미소’ 개막식을 개최했다.

거제 신광사에서 시민들을 위한 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이 진행됐다. 신광사는 이를 계기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 힐링 사찰로 거듭난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광사(주지 선안)는 7월 10일 경내 대웅전에서 2021년 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석불의 미소’ 개막식을 개최했다.

‘석불의 미소’는 문화재청과 거제시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문화행사다. 불교뿐 아니라 인문, 예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에는 주지 선안 스님과 거제사암연합회 회장 선암 스님을 비롯해 변광용 거제시장, 서일준 국회의원, 옥은숙 경남도의회 의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주지 선안 스님의 인사말을 비롯해 내빈들의 축사 및 행사내용을 설명하는 영상 시청 등으로 진행됐다.

주지 선안 스님은 “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산사가 고유한 문화재를 이용해 고품격 산사문화 체험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 앞으로 신광사는 거제불교의 중심에 서서 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사암연합회 회장 선암 스님은 “힐링이란 단어가 익숙해질 만큼 현대인은 많이 지치고 고되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치유할 것이 없는 삶이며 이대로 완성되어 있는 인생이다”며 “신광사가 현대인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는 시작점이자 종착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광용 거제 시장은 “영상을 통해 신광사의 원대한 계획을 들었다. 주지 스님 이하 대중들의 원력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신광사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나를 찾아가는 힐링명상 -삶’ 이란 주제로 선암 스님이 생활명상을 지도했다.

선암 스님은 “특정한 명상법을 따로 익히고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생활과 삶이 명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생명나눔실천 부산 생명존중 강좌 개최

7월 22일, 부산 영광도서에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는 7월 22일 오후 1시 서면 영광도서 10층 문화홀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숭고한 마음 생명존중 강좌’ 를 개최한다.

강의 주제는 숭고한 마음 생명존중(장기기증의 필요성)과 장기 · 인체조직기증방법(뇌사자 판정 및 기증진행과정)이다. 강사는 박동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과 복춘희 한국장기조직기증원 前 영남지부장이 담당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수강자 전원에게 수료증 및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230석 공간에 80여 명의 수강자만 사전접수를 받아 진행된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며, 생명나눔과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했다”며 “장기기증희망등록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051)853-0429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어린이 청소년 연희단 활성화 시킬 터”

광주불교聯, 어린이청소년 연희단복 제작 지원 나서

2020년부터 연등회 전통 확대 광주시 후원해 전통복 제작해 빛고을 관등회서 선보일 예정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로부터 전통연희단복을 전달받은 연화유치원과 정광중학교 연희단의 모습.

“어린이 · 청소년 연희단의 활성화를 통해 광주봉축행사를 더욱 신명나는 행사로 만들겠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가 광주지역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의 연희단으로 활동 중인 어린이 · 청소년 단체에 전통복장으로 만든 연희단복을 제작 지원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7월 2일과 5일, 8일 등 3일에 걸쳐 학교법인 정광중학교(청소년), 연화유치원(어린이),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어린이, 청소년)를 방문해 각 단체별로 주문 제작한 연희단복을 전달했다.

이번에 연희단복이 전달된 단체는 빛고을관등회 어린이 · 청소년 연희단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다.

광주불교연합회는 2020년 12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문화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연등회 광주행사인 빛고을관등회 행사를 전통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 청소년연희단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전통복장 대신 그동안 사용해오던 단체복장을 착용하고 참가하고 있었다. 이런 어려움에 광주광역시가 전통문화 창달을 위해 후원했고, 각 연희단 성격에 맞는 전통복장을 제작해 지원하게 됐다. 연희단 전통연희단복 제작비용은 총 2000여만 원으로 2022년 빛고을관등회 어울림마당 연희단 공연에서 선보인다.

이번 연희단복을 전달하거나 받은 불교 각 단체들은 기대를 표했다.

광주불교연합회 연희기획단장 명신스님(연화사 주지)은 “어린이 · 청소년 단체에 연희단복을 지원해 앞으로 빛고을관등회가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행사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더불어 유네스코 인류문화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광주시민의 문화축제로 더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지원소감을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연희단을 운영하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무등스님은 “세계적인 문화가치로 인정받은 봉축행사에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으로 연희단복을 만들지 못했다. 이번에 광주시를 비롯한 각계에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연희단을 운영하는 이동배 정광중학교 교법사도 “지원해주신 연희단복으로 아이들이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는 추억이 될 것”이라며 “단복을 받은 아이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준비할 것 같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광주불교연합회는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회(어린이)에도 8월 14일 연희복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주교도소 교정協, 생수 2만병 전달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기 기원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진성, 태고종 전북종무원장)가 수용자들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얼음용 생수 2만 병을 전달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진성 스님을 비롯한 전주교도소 교정위원들은 7월 13일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와 수형생활을 돕기 위해 얼음 생수 2만 병을 전주교도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얼음 생수는 광주교정청교정연합회장 승천 스님(3000병), 불교위원장 현진 스님(3000병), 태광산업 임관 운영위원(1만병)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진성 스님, 현진 스님을 비롯해 정인택 교정협의회 운영위원, 남상준 사무국장, 전주교도소 김용국 소장 직무대리, 태고종 나누우리 봉사단원, 탑사 탑밴드 봉사단원 등이 참석했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수용자들을 위해 얼음용 생수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수형자들이 봉사 나눔을 실천하는 교정위원들이 모아온 생수로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위원장 현진 스님(전주 천지사 주지)은 “작은 물 한 병이 수형자들에게는 감로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에서는 해마다 수용자들을 위한 교정교화활동의 일환으로 얼음생수를 전달해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광제선원, 뜨거운 참선수행 열기

무더운 여름이지만, 여름만큼이나 참선수행 열기가 뜨거운 곳이 있다. 광주의 유일한 시민선방인 광제선원(선원장 보명)은 스님들의 하안거 기간 중 용맹정진 기간인 음력 7월 1일부터 7일간 여름 집중수행을 진행한다. 정진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그 외 시간은 참여자의 형편에 맞추어 진행한다. 특히 7일 정진 후 회향기념으로 선원에 대중공양을 진행한다. 광제선원은 현재 매주 금요일 저녁 ‘참선 집중 수행’을 진행하고 있다.

보명 스님은 “한국 불교의 선지식인 전강 송담 스님의 가풍에 따라 화두 참선을 하는 수행도량으로 매주 금요일 집중수행을 하고 있으며, 누구라도 정진에 참석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빈암, 광주불교회관 건립 기금 전달



광주 청빈암(주지 정현)은 지난 7월 12일 광주불교회관 건립기금을 전달했다. 청빈암은 지난 초파일에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만들어진 기금 300만 원을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광주불교회관 추진단장인 도계 스님이 참석해 기금 전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용호복지관 · 다모애, 저소득가정 나눔

독거노인 · 장애인 · 소년소녀가정 등 1000세대 후원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7월9일 복지관 내 및 지역에서 ‘Cool한(寒) 여름나기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길 기원하며 소외 이웃에게 물품 나눔식을 진행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은 7월 9일 복지관에서 ‘Cool한(寒) 여름나기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Cool한(寒) 여름나기 지원사업은 초복을 맞아 홀로어르신,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세대 등 1000세대에게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 물품을 전달하는 행사다. 이날 지원사업을 위해 다모애 자원봉사단(회장 정차선)도 함께 동참했다. 다모애 자원봉사단은 나눔 전달식에 앞서 7월 6일 열무, 무, 고춧가루, 액젓 등 여름김장(열무김치) 물품을 후원했으며 열무김치를 담그는 자원봉사활동도 실시했다. 열무김치는 초복행사에서 삼계탕 및 여름물품과 함께 이용자에게 전달됐다.

Cool한(寒) 여름나기 지원사업 후원물품은 직접 조리한 1000인분의 삼계탕과 열무김치, 여름이불, 여름내의, 손선풍기, 쿨토시, 쿨마스크, 코로나19 방역키트 등이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세대에도 방문해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주 한지와 전통문화의 만남 눈길

(사)장엄, 전통 한지등 제작 강좌



(사)장엄이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화강좌를 개설했다.

(사)장엄(이사장 진성. 태고종 전북종무원장)이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화강좌를 개설했다.

매주 목요일 (사)장엄 갤러리에서 열리는 한지등 강좌는 취미반, 작가반, 강사반으로 나뉘어 디자인, 골조작업, 배접, 채색, 전기 배선 등을 강의한다.

김성규 강사는 “전주는 한지의 고장이라 할 만큼 한지산업이 발달했던 지역”이라며 “퇴색해 가는 한지산업을 발전시키고 예술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한지등 공예를 알려나가고 작가를 발굴해 나가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강생들은 한지 연꽃등, 수박등, 팔모등의 전통등은 물론 자신 만의 독특한 등의 뼈대를 만들고 배접한 후 직접 그림과 색을 입히고 있다. 장엄은 향후 대형 장엄등을 만드는 작업도 수강생들과 함께 진행해 연등축제에서 직접 제작한 장엄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 준비 중인 장엄등은 백신주사기 등 등으로 전주 천지사 현진 스님과 익산 태봉사 현담 스님도 20여 수강생과 함께 한지등 만들기 강좌에 빠지지 않고 참가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4~7/2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조선이여 법의 등불을 밝혀라	원행 스님	불교신문사	6	현실은 영원이다	지광	위로
2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7	부처님 건강법	현담 스님	선
3	지옥에서 연꽃을 피운 수도자 아내의 수기	변영희	바른법연구원	8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4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컬러)	초펠	하늘호수	9	진리와 자유의 길	법정 스님	지식을 만드는 지식
5	술술 읽으며 깨쳐가는 금강경	하도겸/정호선 외	운주사	10	모든 발걸음마다 평화	틱낫한	불광

책세상

인터넷시대, 더 어두워진 業의 굴레



인터넷 카르마
사사키 시즈카 지음
법장 옮김
모과나무 펴냄
1만6천원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1세기 인간은 더 이상 '인터넷' 이란 공간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됐다. 앉은 자리서 클릭과 손가락 터치 몇 번이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며, 자신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전 세계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

이 같은 편리성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SNS와 관련한 확증편향 문제다. 이것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한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일컫는 심리학 용어이다. SNS 시대에는 이 같은 확증편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SNS를 다른 사람과 집단과의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수단으로 활용돼 벌어진 일이다.

최근 한강변서 음주 후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대학생 사건에 대해 경찰 재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들 입에서 나온 "우린 유튜브만 믿어! 유튜브가 진실이야"라는 말은 확증편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이 같은 집단적 확증편향은 불필요한 사회 갈등부터 스스로 인터넷 자경단을 자청하며 이뤄지는 신상털기 등으로 이어지고, 무분별한 피해자를 양성한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불교 교단사 연구자이자 계율 연구자인 사사키 시즈카(佐佐木閑) 하나조노대학 불교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에 번역된 저서 〈인터넷 카르마〉를 통해 자신이 쌓은 인터넷 속 업(業, 카르마)들이 박제되고 편집돼 악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인터넷 시대를 바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제시한다.

석학이 바라본 인터넷 세계는 '잊혀질 권리'가 사리진 '업의 세계'다. 붓다는 '자신의 행동 모든 것이 기록돼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된다는 세계가 과연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가'를 생각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성찰해 불교를 탄생시켰다. 불교의 '업'은 우리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는 일종의 시스템인 것이다.

하지만, "20세기까지 가졌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지르면 모른다'는 느슨한 생각은 '인터넷이 보지 않은 곳이란 어디에도 없다'라는 새로운 세계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실제 사물인터넷 등 고도로 발단된 IT기술들은 우리의 행동과 기호, 성격들을 전부 데이터화해 기록한다. 이것이 선한 행동이든 악한 행동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 박제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사키 교수는 붓다가 처음 불교를 탄생시킨 시대보다 현재의 인터넷 시대 '업'이 더욱 악질적이고 어둡다고 진단한다. 조각조각 흩어져 아무 관계없이 보존된 인터넷 정보가 어떠한 계기로 드러나 융합되면 이는 문제의 당사자 자신도 예상 못한 정밀한 인간상이 나타난다. 저자는 여기서 나타난 인간성이 진짜 본인 모습을 바르게 나타낸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인터넷 카르마'의 무서운 점에 대해 이 같이 역설한다.

인터넷서 파생된 새 시스템 속
자기 業, 박제·편집돼 돌아와
누구든 피해자 될수 있는 시대

석학제시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계정혜 등 三學 통해 정보 선택
자비심으로 타인 아픔 공감해야

"거기(인터넷)에 떠오른 인간상은 결코 본인 모습을 바르게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정보가 낱낱이 기록되는 것까지는 완전히 기계적 작용입니다만, 그 다음 단계부터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손대거나 변형시키는 행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의 누구인지도 모르는 제3자에 의해 편집된 형태로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책임보다 한층 무거운 결과가 되어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인터넷의 업은 붓다 시대의 업보다 악질적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석학이 제시한 '인터넷 카르마'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자는 계·정·혜(戒·定·慧) 삼학에 입각한 일종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해 분석 평가하고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능력 향상을 제시한다.

그는 '인터넷 카르마'의 먹이가 될 만한 행동을 삼가는 스스로의 규제를 계율삼아 인터넷 정보에 일일이 휩쓸리지 않게 침착함을 유지하는 '정'을 추구할 것을 주문하며, 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정보를 거르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발견하는 '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인 자비심 배양도 스스로 인터넷 카르마에 사로잡히지 않을 방법으로 저자는 제시한다. 나아가 인터넷 속 불합리한 언어폭력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인터넷을 넘어 보다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던진다.

한편, 이 책의 역자인 법장 스님(해인사승가대학 학감)은 사사키 교수의 제자로, 제자 스님이 나서서 스승의 저서를 번역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저자 사사키 시즈카 교수는?

세계적인 불교 교단사 및 계율 연구자이다. 1956년 일본 후쿠이현(福井縣)에서 태어났다. 과학자를 꿈꾸며 교토대학 공학부 공업화학과를 졸업했으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길이라는 생각에 교토대학 문학부에 들어가 불교학을 전공하게 된다.

교토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박사과정을 마친 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유학을 거쳐 하나조노대학 문학부 강사, 조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하나조노대학 불교학과 교수이다. 한국에 번역된 책으로는 〈출가란 무엇인가?〉 〈붓다와 아인슈타인〉 〈일일시수행〉 〈인도불교의 변천〉 〈과학의 불교-아비달마불교의 과학적 세계관〉 등이 있다.

고통과 성스런 '폐쇄공간' 詩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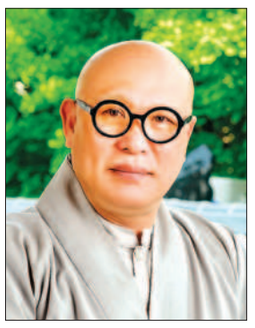
그리운 173
승한 스님 지음
문학연대 펴냄
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인 승한 스님〈사진〉은 글쟁이다. 그래서 한동안 本紙에 필자로 활동했다. 그러던 어느날 신문 마감날로 기억된다. 원고 담당 기자가 필자인 승한 스님 핸드폰이 꺼져 있고 연락이 안된다고 발을 동동 굴렀다. 결국엔 스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 원고는 불가피하게 다른 원고로 채워졌다. 그리고 얼마간 스님을 원망했다. 어릴 적부터 유전적으로, 심리적·환경적 요인으로 '자살충동'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정신적 아픔과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기전까지는 말이다. 아마 그때도 병원에 입원했을 거란 짐작이 든다.

저자는 청소년기 때부터 앓던 정신적 고통과 내면의 상처가 재발돼 두 차례나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173 폐쇄병동에 입원해 몇 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이번 시집은 그때 겪고 느끼고 체험한 폐쇄병동 생활과 내용을 매우 객관적이고 직접(直接)적인 발성법으로 실감나게 그려낸다. 시집 제목을 '173'이라 붙인 것도 폐쇄병동을 상징한다는 의미다. 이 시집은 우선 독창적이다. 정신병원 폐쇄병동을 소재로 전편(62편)을 연작시로 썼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을 소재로 쓴 소설작품은 많지만, 시집 한 권을 통째로, 그것도 문학적 완성도가 높게 형상화된 시집은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해 저자인 승한 스님은 "처음엔 저의 정신건강 문제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삶의 비밀로 꾹꾹 눌러두고 살았지만 출가수행자가 되면서 모든 것을 내리고 비우고 참회하면서 제2의 삶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제 삶의 치부조차 모두 고백하게 됐다"며 "오히려 그 아픔과 비밀을 시로 승화시켜 저처럼 정신적 아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승한 스님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직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그들을 좀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잘 보듬길 발원하는 마음에서 5년 전부터 이 시편들을 쓰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들은 '173 폐쇄병동'으로 귀결되는 연작시로 구성됐지만, 각 시마다 부제가 붙어있어 변별점을 지닌다. 하지만 저자가 입원한 폐쇄병동서 이루어진 경험과 사유가 시집 내용의 전부라서 이 시집은 폐쇄병동서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는 정신질환을 잃고 있는 환우들을 위한 헌사라 할만하다. 저자인 승한 스님은 책 서두에서 〈나의 173 동료들에게 이 시집을 바친다〉란 부제의 시로 애절한 그 심정을 생생히 전했다. "그들과 함께 나는 진화하고 생존했다. 앞으로도 나는 그들과 함께 진화하고, 생존할 것이다. 모든 삶은 진화하고 생존하다 명멸한다"라고.

저자, 정신 폐쇄병동서 입원치료
그 아픔과 비밀을 시심으로 승화
삶의 목적과 원동력 찾는 기회로

전 62편 연작시…각 시마다 부제
애절한 시어로 현장 생생히 전해
구도의 공간으로 변화…시어의힘

황치복 문학평론가는 책 말미에 붙인 해설을 통해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공간, 감시와 처벌의 감옥과 같은 공간이 구도(求道)의 공간과 성스러운 공간으로 변화되는 극적인 장면을 보는 것은 감동적"이라며 "시집을 읽는 내내 독자들은 가슴 아린 통증을 느끼면서도 극단의 폐쇄적 공간에서도, 그리고 극도로 고독한 상황에서도 깨달음을 향한 인간의 정신이 형형하게 살아 있음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태준 시인도 승한 스님의 시집 원고를 읽은 뒤 "시집 속에 등장하는 '173 폐쇄병동'은 우리의 고통스런 이 사바세계이며, 실감 있는 삶의 현장 그 자체이다. 스님은 이 연작시들을 통해 삶과 죽음, 폐색과 개방, 속됨과 신성, 실재와 환(幻), 그리고 자유에 대해 끝없이 질문하고 있다"며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무상과 무아를 깨닫게 하며, 이 시편들은 한 편 한 편이 아프고 격렬함과 동시에 고성(高聲)으로 몰아쳐 가며 읽는 불경(佛經)과도 같다. 그러나 시심의 결이 곱고 여리어 우리는 이 시편들 속에서 '오른쪽 뺨에 고이는 볼우물'과 같은 애틋함과 순수, 그리고 사랑을 함께 발견한다"고 평했다.

승한 스님의 이번 시집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출가수행자'로서 감추고 싶은 자신의 '비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커밍 아웃(coming-out)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승한 스님은 "사람들은 누구나 정신적인 문제를 조금씩은 갖고 있다. 오히려 그런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을 감추고 싶은 병(病)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그 본질을 직시함으로서 삶의 목적과 자유 도덕 행복 인간의 존엄성 등을 찾아가는 원동력으로 삼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인간적이고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문(門)'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속내를 내비쳤다.

▲저자 승한 스님은?

중앙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서 동양철학과 불교철학을 공부하고 있다. 198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 200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시가 당선됐다. 시집으로 〈수렵도〉 〈퍽 환한 하늘〉 등과 산문집으로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 〈스님의 자녀수업〉 〈네 마음을 들어줘〉 등이 있다. 현재는 한국불교태고종 〈한국불교신문사〉 주필로 재직중이다.

팔만대장경을 260자로 압축한 경전!

반야심경 제대로 공부하기



불교의 공空사상을 담은 방대한 600권 『반야경』의 정수를
간략하게 260자로 압축한 『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이광준 지음/184쪽/값 12,000원

정토에 관한 최초의 논서!

용수보살, 정토를 설하다



– 『이행품易行品』 강의 –

정토사상의 핵심을 다 망라하고 있는 용수보살의 『이행품』에 대해,
그 구성과 내용, 의미, 사상 등을 상세히 설하였다.

혜정법사 법문/정전스님 번역/492쪽/값 23,000원

재가 및 출가 수행의 생생한 체험기!

너울치는 삶에서 달을 건져라



재가 수행자에서 늦깎이 수행자로! 수행 여정에서 만난
각종 장애들과 깨달음, 선지식들과의 인연과 가르침이
진솔하게 그려져 있다.

법운 지음/268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부탄 비구니 교육 및 지원센터 개소

열악한 수행환경 개선 및 비구니 역량 강화에 나서

비구니 스님 12명 첫 입소해
상담·리더십 등 현대화교육
향후 여성 재가자 문호 확대

박영빈 객원기자



교육 및 자원센터 개원식에 참석한 체링양된 부탄 왕대비(중앙)와 따시상모 사무총장(우측).
사진출처=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히말라야 불교왕국 부탄에서 비구니 스님들을 교육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비구니 교육 및 자원센터'를 공식으로 개원했다.

센터 개원식에는 비구니 교단의 최대 후원자이자 부탄왕실 어른인 아시 체링양된 왕축 왕대비가 참석했다.

7월 5일,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보도에 따르면 센터는 체링양된 왕대비의 생일이자 부탄 비구니의 날인 6월 21일에 맞춰 개원했다.

부탄 비구니 재단(BNF)의 사무총장인 따시상모 박사는 "부탄 비구니 재단의 오랜 꿈이 마침내 이뤄졌다. 이 꿈이 실현되기까지 아낌없이 지원을 해준 전 세계의 모든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현재 모든 건물이 완공된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교육과 거주에 필요한 건물들이 완공됨에 따라 공식개원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인 팀푸 남쪽 교외에 설립된 센터에 첫 입소한 비구니 스님은 12명이다. BNF측은 10인은 푸나카(Punakha)에 소재한 상첸 도르제 헨둡 사원의 강원을 졸업했고, 2인은 통사(Tongsa)에 소재한 언어문화연구소를 졸업한 스님들이라고 밝혔다.

따시상모 박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얻었다"며 장기적으로는 여성 재가자들에게도 교육의 문호를 넓힐 것이며, 정기적으로 단기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BNF는 부탄 내 28개소의 비구니 사찰과 협력하고 있다. 또 코로나19가 진정되면 해외 비구니 승단과의 교류도 계획하고 있다.

센터의 주목적은 부탄 비구니 스님들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전통적인 강원교육과 함께 현대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대외적으로 비구니라고 말하지만, 현대에는 사미니계만 전해지는 티베트-부탄 불교계에서 여성수행자들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농촌이나 산악지방의 비구니사찰들은 전통적인 강원교육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후원이나 보시 역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NF는 이곳에서 교육을 마친 비구니 스님들을 부탄 각지의 농촌이나 소속 사찰로 파견하여 다른 비구니스님들과 여성들을 교육하며, 부탄의 불교문화를 보존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에는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교육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특히 상담, 호스피스와 기본 건강관리, 리더십과 인재관리 등과 같은 교육은 이 센터를 졸업한 여성 수행자가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나설 수 있게 마련한 것이다.

따시상모 박사는 "해당 센터에선 38개의 모듈로 구성된 교육 매뉴얼에 따라 교육이 진행된다. 현재 BNF에선 이를 통해 수행을 시작하거나, 관심이 있는 여성과 대중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자급자족을 통한 역량강화로 건강한 수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美, 티베트 비구니 게쎄마시험 응시 시작

목표액 10만 달러 중 1만 6000달러 모금



게쎄 자격을 취득한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
사진출처=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지난 7월 9일 해외불교 전문매체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는 티베트 비구니의 게쎄마 시험 응시 및 취득을 위한 기금 모금 소식을 전했다. 게쎄마는 티베트 불교계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전통적인 강원 교육을 마치고 취득하는 가장 높은 학위이다.

모금을 진행하는 곳은 미국에서 설립된 단체인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로 여성 출가자의 고등교육과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 게쎄마 기금은 목표액 10만 달러 중 현재 1만6000달러(한화 약 1800만원)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 관계자는 "게쎄마 기금은 여성출가자의 훈련과 자격검정에 관한 모든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님들이 재정적인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각종 부대비용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게쎄'란 티베트어로 '선지식'이라는 뜻으로, 20년 가까이 되는 전통강원 교육을 마치고,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스님에게 부여되는 법계다. 일반사회의 불교학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이다. 게쎄 시험은 2011년까지 비구 스님만 자격 취득이 가능했다. 그러나 달라이라마가 "여성출가자들도 남성출가자들과 수학하고 수행하는 데 차별이 없다"고 천명하면서, 2013년부터 여성 출가자들에게도 게쎄 시험응시 및 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는 "우리 프로젝트로 비구니스님들의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비구니스님들은 교학이나 수행을 공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문맹인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스님이라도 대부분의 명상수행과 수행지도에만 역할이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로 여성출가자가 고등교육을 받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모델로 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들 스스로 사원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했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日, 호우로 흩어진 불상들 방치돼

박물관에 임시보관, 예경처 소실

마을 단위 신앙중심지
호우피해에 복구 난망



자료관에 임시보관중인 불상들을 가리켜 보이는 오히라 카즈아키 관장.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지난해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일본 구마모토현 히토요시(人吉)시의 쿠마(球磨)지구에서 유실된 불상들이 예경을 받지 못한 채 박물관에 방치되고 있다. 일부 불상들은 본래 봉안되어 있던 법당이나 사찰들이 소실되어 더욱 안타까움을 일으키고 있다. 7월 9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갈 곳을 잃은 성보들에 대해 보도했다.

히토요시시의 쿠마지구는 오랜 세월 전란이 피해가 적었기에 오랜 역사를 가진 불상과 사찰 등이 다수 보존되고 있다. 해당지역 역사민속자료관의 오히라 카즈아키 관장은 "가마쿠라 시대부터 700년간 한 가문의 영주가 통치한 까닭에 정세가 안정됐고, 마을단위로 신행활동을 위한 소규모 사찰이나 법당 등을 건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주나 스님이 불상을 조성한 것이 아닌 마을주민들의 발원으로 불상을 조성하고, 지금까지 중근세의 불상을 반상회나 지역 신행단체가 보존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일본의 유명 역사작가 시바 료타로는 쿠마지구에 대해 "일본에서 가장 풍요로운 은신처"라며 찬사를 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생활과 밀착된 까닭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불상이나,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법당들도 다수 존재해 이에 해당하는 성보들의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호우에서 쿠마지구에서만 15개소의 법당이나 신사가 파괴됐고, 80구 이상의 불상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호우에 휩쓸려 실종된 불상은 물론, 주민들의 피난으로 인한 관리자 부재로 갈 곳을 잃은 불상들도 다수. '요미우리신문'은 "수백 년간 이어온 지역신앙의 전통이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라 관장은 "지난해 수해 후 자료관에 임시로 보존했던 불상은 75구로 모두 휩쓸려온 토사나 붕괴된 법당에서 구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관장은 "수해직후의 조사에선 문화재로 지정됐던 불상이 행방불명되거나, 겨우 수습했으나 복구 중의 혼란 속에 도난당한 경우도 보고됐다"며 안타까운 현황을 말했다.

다행스럽게도 자료관에 임시 보관됐던 불상의 상당수가 다시 주민들의 품에 반환돼 예경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수장고엔 44구의 불상들이 원 봉안처 불명, 혹은 갈 곳을 잃은 채로 방치되고 있다. 호우로 대대로 살던 집과 관리하던 약사당을 잃어버린 한 주민은 "자료관에 대대로 모셔오던 약사여래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장 살던 집도 모두 철거된 마당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탄했다.

현 상황에 대하여 구마모토 대학의 이나바 츠구하루 교수는 "불상을 온전히 지역주민들에게만 맡겨서는 수리나 유지가 이어지기 어렵다. 이대로는 지역의 전통과 보물들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나바 교수는 "지난 2016년도 구마모토 지진 때엔 미지정 문화재들의 피해에 대해 모금됐던 구호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사용됐던 적이 있다. 이번 호우피해를 입은 문화재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고대유적서 승원 발견돼

발굴과정에서 불탑발견, 조사 후 재공개



승원 유적과 불탑에서 발굴된 유물 포스터.
사진출처=타임즈 오브 인디아

7월 7일 인도 주요 언론지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바드나가르(vadnagar)의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 중 승원 유적과 불탑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대중에게 공개됐다고 전했다. 고대 도시 유적 한 가운데 위치한 승원 유적은 약 2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의 고향으로 유명한 바드나가르에서 발견된 고대 유적지는 2000년대 초반, 마을 공사 중에 발견됐다. 마을 한가운데에서 발견된 이 도시유적은 한가운데 불탑이 봉안된 승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 고고학 연구소(ASI)는 지난 7년간의 발굴조사와 문헌연구를 통해 이 유적이 명실상부한 불교 유적지임을 밝혔다.

ASI의 수석 고고학자 아비짓 암베카르 박사는 "바드나가르 유적은 북인도의 다른 불교 유적지인 데브니 모리(Devni mori) 유적과 동시대에 건축됐을 가능성이 높다. 불탑으로 추정되는 유적에서 데브니 모리 유적에서 발견된 봉인과 동일한 봉인이 발굴됐다. 봉인에는 '일체지에 예경합니다(Namas-sarva-gyaya)'라고 날인돼 있다"고 밝혔다.

암베카르 박사는 "빨리어 문헌에서 자주 묘사되는 승원구조로, 회랑은 신도들이나 수행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쓰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연구와 증거들을 기반해, 유적지의 최초 조영은 기원후 1세기이며 기원후 6~7세기 사이에 몰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빙의지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의 정의 : 나와 다른 음의 에너지(죽은사람·동물·식물·기타 모든 영적 기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 빙의문제의 해결 :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음적 에너지(영가기운)를 몸으로부터 분리, 천도해 주어야 이상증세, 이상행동이 바로 잡아짐(퇴마와는 다름).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도 효과가 나타남.
■ 여러 빙의증세 및 음적 에너지(영가기운)의 여러가지 영향
① 이사후 집이나 가게 등에 머물러 있는 경우
(집에 우환 발생, 꿈자리 사나움, 가위눌림, 가족간 불화, 가게터와 사업장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 장사가 안됨, 사고나 싸움이 잦음)
② 사람에게 빙의된 경우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는데 증세는 여전한 경우
가위눌림(밤마다 또는 가끔씩, 수많은 꿈에 시달림, 비몽사몽, 자고나도 몸이 무거움. 토끼(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 불면증(잠못 이룸)
③ 환청(이상한 소리 들림), 환각 증세 일어남
자살충동, 과다한 음주, 폭식, 불안증세, 우울증, 대인기피증, 알수 없는 통증, 초·중·고등학생·대학생 이상행동 폭력적 행동, 집중력 저하, 학습능력저하
④ 장례식장, 상갓집, 국내 및 해외여행 다녀온 후 이상 증세 있는 경우
⑤ 동물영가가 들어온 경우
많이 키우고 10년넘게 장사한 경우(집안에 급병, 급사, 우환, 각종사고), 집에 키우던 개, 기타 동물 잡아먹은 경우, 뱀술 등을 먹은 후 이상증세 있는 경우
⑥ 식물영가 (거목 및 꽃나무를 베어낸 경우)가 몸에 들어온 경우
- 머리, 가슴, 팔, 다리 찢어지는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 신기운에 의한 신병, 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광증 있으신 분
· 병원 다니고 여러번 굿하고 천도재 해도 효과 못보신 분 · 정신과병원 오래 다녀도 차도가 없으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천도가능함) ·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타종교인, 무종교인 상담도 가능

■ 환자상태를 상담해서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진행 - 육지에 계신 분 당일천도(아침 비행기, 오후 비행기) 가능!
■ 차후 지속관리 상담해 드림 (또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빙의치유전문상담사 (전문자격 갖춤) - 전생빙의 트레이너과정 수료!
■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가, 신기운 제령 최고의 권위 실력 갖춤 - 20여년 경력, 임상 노하우 갖춤!
■ 원격치유가능 (외국에 있는 환자도 치유가능,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빙의 진단 및 해결)
◉ 오시는 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 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상담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 영가천도 전문상담원 문의전화 (064)746-0789

사찰서 보는 궁중기록화의 정수

월정사 왕조실록의궤박물관 특별전

'반차도로 만나는 국가의례~ '展
기획 전시실 7월 15일~8월 31일

'뎡니 의궤(프랑스)' 중 화성 성역도
모사본으로 국내서 처음 실견 기회
황치석작가의 창작품 포함 30여점


원행정리의궤도 중 낙남헌 양로연도 65X43cm, 본경 2018.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조선왕조의궤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강원도 진부 월정사 입구에 위치한 왕조실록의궤박물관(관장 해운)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전 '반차도로 만나는 국가의례-붓 끝으로 펼쳐낸 조선왕실의 기록화' 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의궤의 반차도를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재현하고 재해석해낸 황치석 작가의 작품을 통해 조선왕조의궤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대중에게 생동감 있는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오랜 동안 의궤 반차도 재현 작업에 매진해온 황 작가의 창작품을 비롯해 총 3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대표작품 '뎡니의궤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중 화성성역도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한국에서 진본을 실견할 수 없는 것 중 하나이다. 이번 전시에서 황 작가의 모사본으로 만날 수 있다. 1795년(정조 19) 윤 2월 정조가 수원으로 행차한 장면이 그려진 화첩식 의궤도인 한글로 표기된 30m의 원행정리의궤 반차도가 더해진 것이 특징이다.

'문효세자 책례도감의궤 반차도' 는 프랑스로부터 반환한 외규장각의궤로 1784년(정조 8) 7월에 정조의 맏아들 순(晙, 1782~1786)을 왕세자로 책봉한 책례를 기록한 의궤이다. 반차도에는 왕세자의 책봉을 의미하는 교명 · 죽책 · 옥인을 절차에 따라 대궐로 들여오는 행렬이 순서대로 그려져 있으며 목판으로 인쇄 제작한 분상용 의궤와는 다르게, 붓으로 그린 어람용 의궤를 모본으로 완성하여 왕실의 위엄을 보여준다.

'철종가례도감의궤 반차도' 는 일본으로부터 반환된 오대산 사고본 의궤로 1850년(철종 1)부터 행해진 철종과 철인왕후의 혼례 절차가 기록되어 있다. 24m에 이르는 반차도에서는 왕과 왕비의 결혼행렬을 묘사하고 있는데 현존 가례 행렬 중 가장 긴 행렬도이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오랜 기간 의궤 반차도 재현 작업에 매진해온 황 작가가 염원을 담아 재해석한 창작 작품이 소개된다. '천년의 기록유산' 은 규장각 현판 아래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기록유산을 한자리에 모아 그린 작품으로 기록유산과 문화유산, 현대 기술이 집약된 기록매체들을 함께 그려 소중한 유산이 영구히 보존되기를 바라는 염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2021년은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의궤와 강화도에 보관되었던 외규장각 의궤가 일본과 프랑스로부터 반환된 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특히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의궤의 환수는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의 각별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뜻깊은 성과다. 10년이 지난 지금,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 환수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유산이 모셔졌던 오대산이라는 역사적 장소에서 조선왕조의궤를 감상하고 선조들의 정신과 궁중기록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특별전이다.

반차도는 조선 시대 국가 의례에 참여하는 문무백관 및 각종 기물 등의 정해진 위치와 행사 장면을 묘사한 기록화이다. 국가 의례에 예모(禮貌)와 위엄을 갖추기 위해 반차(班次)를 숙지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됐다. 열을 지어 나아가는 행렬처럼 그린 행렬식 반차도와 의례 공간에서의 설위(設位) 반차를 글자로 표기한 배반도(排班圖) 형식이 있다. 또한 표현 방법에 따라 그림으로 그린 회화식 반차도와 글자로 표시한 문(文) 반차도가 있다. 반차도는 보통 의례 거행 시에 지침으로 활용된 후 후대의 참고를 위해 의궤에 수록되어 전하는데, 관청의 소장 업무와 관련한 배반도로 제작하여 소관 관청에서 소장하면서 평상시 업무 지침으로 삼기도 했다.

'의궤' 는 의례 행사와 궤범(본보기가 되는 기준)을 합친 것으로 왕실이나 국가가 치른 중요 행사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것이다. 유네스코는 2007년 조선왕조의궤의 가치를 인정해 세계인이 보존해야 할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의궤(보물 제1901-3호)는 1922년 조선총독부가 '기증' 이라는 명분으로 일본 궁내청으로 무단 반출했다.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한 후 한반도 식민통치와 수탈을 위해 일본이 세운 기관(조선총독부)이 일본 왕실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궁내청)에 '기증'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것이다. 이후 1965년 한일 문화재 · 문화협정의 환수문화재 목록에서 빠지면서 한 차례 환수 기회를 놓쳤고, 2011년 월정사와 환수위원회의 노력으로 81종 167책을 돌려받았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는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문화재)을 통해 약탈 문화재에 대한 주권이나 청구권이 박탈된 정부를 대신해 월정사 등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의 조항(7장 ·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이나 장소의 적정성, 보관, 연구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문화재를 지역에 돌려주지 않고 있다.

황치석 작가(서울여자대학교 초빙교수)는 20여 년간 조선왕조 의궤 반차도를 고증하여 모사하는 작업을 해왔다. 조선시대 도화서 화원의 궁중 화법을 전수받은 파인 송규태 화백의 지도를 받았다. 전통의 기법과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재료를 사용하여 조선시대 기록화를 새롭게 모사하여 조선왕실 의례 전모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033)339-7000

우리 모든 일상이 '만다라'

김인섭 '만다라, 색의 향연' 展
워킹 갤러리 8월 7일 ~ 21일


김인섭 作 '만다라 2020-A'.

새로운 시도의 만다라 전시가 열린다. 10여 년 동안 만다라를 연구하며 그려온 김인섭 작가가 8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 경남 창원시 워킹갤러리에서 자신의 5번째 개인전 '만다라, 색의 향연' 展을 연다.

그동안 사전적 의미의 만다라에만 집중해 왔던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만다라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에서 좀 더 확장된 새로운 만다라를 선보인다. 김 작가는 어느 순간 이 세상 모든 것이 '만다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불교라는 종교적인 의미로 접근한 만다라와 존재 자체의 다양성을 '만다라' 의 범주로 인식한 만다라는 같은 것이면서 또 다른 것이었다. 한 인간으로서의 개인을 생각해보면 누구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생로병사를 겪으며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작가는 이러한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한 생이라는 각자의 그림을 완성해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만다라' 라고 생각했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작품 '만다라 2020-A' 를 통해 작가 김인섭이 하루하루 또는 순간순간의 모습을 일기를 쓰듯 작업한 작품을 '색의 향연' 이라는 부제를 붙여 선보인다. 이렇듯 이번 전시는 다른 관점의 만다라를 만나볼 수 있다. 따뜻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담긴 일기의 한 쪽 한 쪽을 함께 들여다봄으로써 공감과 힐링의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다. (055)244-6578 박재완 기자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
불기 2565(2021) 십시일반 이주민 돕기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법보신문 공동 캠페인

희망 찾아 한국 온 몽골 소년에
부처님 가피 닿길

스님이 아이 이름 지어줄 정도로 불심 깊은 몽골출신 다와씨
아들 척추암이지만 수술 불가능해 한국행…혈액암도 발병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94년 종단개혁사, 비구니 활동 조명돼야”

김광식 교수, ‘비구니 정혜도량’ 역사 · 성격 조명

〈대각사상〉서 특집 논문 게재
비구 중심 개혁史에서 전환점
1994년 5월9일 정혜도량 창립
종단 개혁서 비구니 창구 활동
비구니 종단 참여 놓고 갈등도
“관련 자료 수집 절실해”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94년 조계종단 개혁은 현대 한국불교사, 조계종사에서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이다. 이때 만들어진 종단 운영체계와 종헌 · 종법들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건에 걸맞게 종단 개혁의 개요를 비롯해 성격, 영향, 평가, 한계점 등이 명확하게 연구되지 않았다. 그나마 있는 연구들도 대부분 비구스님 중심으로 비구니스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명되지 못했다. 1994년 종단 개혁에서 활동했던 ‘비구니 정혜도량’의 역사와 성격 등을 학술적으로 조명한 논문이 발표됐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대각사상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대각사상〉 제35집 특집논문으로 기고한 ‘비구니 정혜도량(1994)의 역사와 성격’을 통해 1994년 종단개혁에서 비구니 정혜도량의 역할 등을 조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정혜도량은 1994년 5월 9일 삼선포교원에서 500여 명의 비구니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통해 출범했다. 당시 언론기사 등을 살펴보면 정혜도량은 종단개혁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소극적 활동을 성찰하고 개혁의지 확산, 비구니 역할 및 위상 논의 등이 주요 목적임이 확인된다.

또한 창립법회에서 비구니스님들은 △비구니 위상 정립해 종단 화합 △불교 관계 악법 철폐해 불교 자주화 실현 △3.29, 4.10 법난 유발한 김영삼 대통령 공개 사과와 최형우 내무부 장관 즉각 해임 등이 담긴 결의문도 발표한다.

이 같은 결의를 다진 정혜도량의 전신은 ‘종단개혁을 뜻을 함께하는 비구니 모임’이다. 이들 모임은 1994년 4월 26일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자민 · 선중 스님 등 13명이 참여한 1차 모임부터 경북 영천 백흥암에서 선원 · 강원 대표 63명이 참여한 3차 모임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정혜도량은 창립법회 전 전국비구니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비구니스님들의 ‘공식적 단일창구’로 승인을 받았다.

김 교수는 “정혜도량은 종단개혁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공식적인 단체라는 위상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단개혁에서 ‘비구니 중심 단일 의사 창구’의 권한을 부여받은 정혜도량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두 번에 걸친 세미나와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비구니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모여진 의견들은 정혜도량에서 정리돼 총무원 등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어떤 내용의 안건들이 정리돼 전달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건은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주장에 대한 종단 내부 개혁 작업은 지난했다. 당시 비구 스님들은 비구니 팔경계 등을 들어 “비구 총무원장을 선출하는데 왜 비구니가 들어오는가”라고 힐난했다. 현실의 벽을 절감한 정혜도량은 8월 16일 종단개혁의 중추인 범승가종단개혁추진위(범종추)에 공문을 보내 탈퇴 의사를 밝힌다.

일련의 사실을 정리한 김 교수는 △개혁 최일선에 참여한 비구니 스님들의 성향과 참여하지 않은 스님들의 정혜도량에 대한 인식 △전국비구니회가 직접 개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전국비구니회에서의 정혜도량 계승 의식 등이 향후 더 조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94년 종단개혁사에서 비구니스님들의 고뇌와 활동이 적절히 평가돼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비구니스님들의 활동에 대한 서술과 평가가 부재했고, 비구니계에서도 주목받지 못했다. 그 연유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정혜도량에 대한 자료 수집과 관련 자료집 발간을 전국비구니회에 요청했다. 그는 “비구니 역사는 전국비구니회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조계종단사, 현대한국불교사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자료가 산실되기 전, 관련자가 생존시 자료를 찾고 증언을 채록해 자료집을 발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음성지순례, 동아시아 최적 문화상품”

이재수교수, 〈정토학연구〉에서
전통사찰 순례 관광 방안 모색
33관음순례, 외국인 지평 확대
브랜드화 · 대중화 전략은 부재
순례 사찰 신앙 중심 재편해야



2009년 마곡사에서 진행된 ‘김민종과 함께하는 33관음성지 순례 템플스테이’의 모습. 한국과 일본 팬미팅 형식으로 진행돼 화제가 됐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온 ‘33관음성지 순례사업’의 성과와 전통사찰 성지순례 활성화 방안을 살핀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는 한국정토학회 발간 학술지 〈정토학연구〉 제35집에 ‘전통사찰 순례 관광의 성과와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일본 관광객을 중심으로 시행한 ‘33관음성지 순례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고 전통사찰 성지순례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33관음성지 순례사업은 관음신앙 관련 유 · 무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33곳을 선정해서 순례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한국불교 관음신앙의 재발견, 전통불교문화를 연계한 고품격 성지순례 상품 개발, 템플스테이에 일본 순례객 확대 등을 도모했다.

순례 코스는 서남권(서해안 고속도로 중심) · 남부권(남해안 중심) · 동남권(영남 중심) · 동북권(강원도 중심)으로 구성됐다. 2017년 6월에 5년간 순례를 마친 내국인 순례자들이 회향식을 가졌고, 같은 해에는 혼자서 33관음성지를 모두 순례한 일본인 마에코 씨가 순례증서를 받아 화제가 됐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까지 순례를 완료해 공식 회향한 인원은 일본인 41명, 내국인 36명 총 77명으로 집계됐다.

33관음성지순례의 성과로 이 교수는 순례 문화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았음을 꼽았다. 또한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 체험의 폭을 넓힌 점도 주목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관음성지 순례 사업은 단순한 관광의 차원을 넘어서 불교인들에게는 신앙 표현의 기회이지만, 비종교인들에게는 힐링과 삶의 긍정적 원동력을 찾게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33관음성지 순례사업이 역사 · 정체성이 부족하고 브랜드화와 포교 대중화 전략이 부재했던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교수는 전통사찰 소재 성지순례 사업의 전망을 살폈다. 그는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보유한 아시아권과 중국이 모두 불교문화권임을 주목하며 “불교와 전통사찰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은 성지순례와 함께 성공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통사찰 관음성지 순례는 “현대인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는 최적의 관광문화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사찰 성지순례 개발과 활용을 위해 이 교수는 성지순례의 체험 요소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성지 관련 스토리텔링과 순례자들의 체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등이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지순례 활성화를 위한 전통사찰들을 성격별로 재정비할 것도 제언했다. 이 교수는 “신앙을 테마로 하는 콘텐츠의 진정성을 지닌 성지순례 사찰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신앙 중심으로 성지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선적으로 관음신앙을 지닌 사찰을 선정 · 재정비하고 정토성지, 지장성지 등 연차적으로 정비할 것도 제안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문화콘텐츠를 위한 성지순례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성지순례 운영조직체계 확대 개편 △온라인 · 모바일 기반 인증 체계 마련 등을 제언했다.

특히 이 교수는 “참여자가 성지 사찰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성지순례 사찰을 위한 누리집과 웹 및 모바일 접근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종로 조계사 석가불도 서울 ‘7월 문화재’ 선정

市 누리집 등 카드뉴스로 소개



서울시 유형문화재 종로 조계사 석가불도〈사진〉가 서울시 ‘7월의 문화재’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조계사 석가불도와 서울 한강철교(국가 등록문화재), 순명비 유강원 석물(서울시 유형문화재)을 ‘이달의 문화재’로 선정했다”고 7월 15일 밝혔다.

조계사 석가불도는 조계사 대웅전 불상 후불탱화로 지난 2000년 7월 15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등록됐다. 조계사 석가불교는 석가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로서 구도가 뛰어나고 인물의 형태가 개성 있게 표현됐다. 석가불도의 작가는 근대 불교 미술작가 김일섭 선생으로, 일제 치하에서 모든 종단이 뜻을 합쳐 불사를 일으켜 만든 불화라는 점에서 큰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서울의 문화재와 역사적 사건들은 카드뉴스로 제작해 온라인에 소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만해 스님의 거처였던 심우장이, 5월에는 연등회가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이달의 서울문화재 카드뉴스’는 매월 15일,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문화본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중론’으로 읽어낸 ‘입보리행론’ 논파법

중관학당 8월 6~7일 줌 강의

공성의 배움터 중관학당(대표 신상환)은 오는 8월 6일부터 7일까지 ‘〈중론〉으로 〈입보리행론〉을 읽는다- 깨달음의 길 〈입보리행론〉에 등장하는 주요 논파법’을 주제로 여름캠프를 줌(Zoom) 강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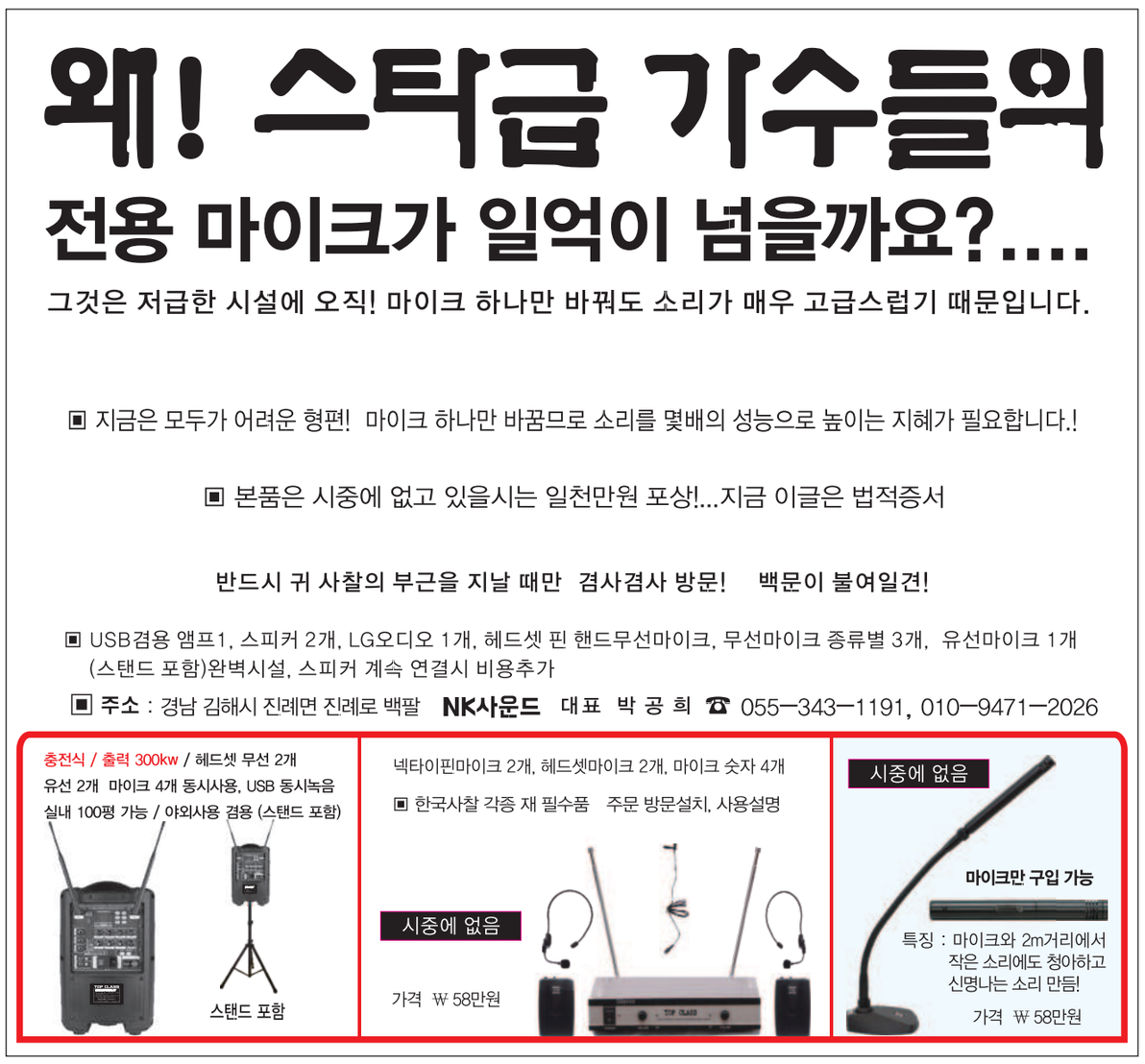
샨띠 데바의 〈입보리행론〉은 한국 불자들에게 널리 읽히는 티베트 현교를 대표하는 저작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입보리행론〉에 등장하는 〈중론〉의 주요 논파법을 살펴볼 예정이다.

신상환 중관학당 대표는 “이번 여름캠프에서는 〈입보리행론〉에 등장하는 힌두 6파 철학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에 등장하는 사유의 특징을 두루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름캠프 참가비는 12만 원이며, 중관학당 후원회원은 10만 원이다. (010)8801-4037

신성민 기자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7

▶ 28회 예고
아쇼까 진압군은 웃자인으로 가는 길에 베디샤에서 행군을 멈춘다. 베디샤 사람들이 가네샤신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진압군은 축제를 방해하지 않고 나아간다. 드디어 웃자인 부근에서 멈추어 공격 시점을 조절한다.



아쇼까, 우빠굽따에게 공양 올리다

사마왓띠가 더욱더 우데나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자, 마간디야는 한밤중에 별궁을 나와 숙부를 찾아갔다. 숙부를 만난 마간디야가 울면서 애원했다. 사마왓띠가 잠든 별궁에 불을 질러달라고 숙부의 팔을 잡고 늘어졌다. 숙부는 마간디야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고는 견딜 수 없었다. 마간디야의 청을 들어주겠다며 겨우 달래서 돌려보냈다.

며칠 뒤였다. 때를 엿보던 숙부는 우데나왕이 왕궁을 비운 사이에 심복하인을 시켜 사마왓띠 별궁에 불을 질러버렸다. 잠을 자고 있던 사마왓띠와 시녀 500명은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모두 타죽었다. 그런데 사마왓띠와 꾸줏따라를 비롯한 시녀 500명은 당황하지 않고 붓다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의연하게 고통 없이 죽어갔다.

성민들은 불에 탄 시신들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았다. 왕궁에 돌아온 우데나왕은 분노했다. 누군가의 소행인지 짐작했지만 신하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범인을 체포하려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범인의 자백도 필요했다. 우데나왕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춘 채 마간디야 별궁으로 가서 그녀에게 물었다. "왕비의 말처럼 사마왓띠가 나를 해칠 것 같아 나는 항상 불안했소. 머잖아 사마왓띠를 붙잡아 처형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내 속마음을 간파하고 먼저 죽인 것 같소. 사마왓띠의 별궁에 불을 지른 사람이야말로 나를 위한 사람이니 큰 상을 내려야겠소." "왕이시여, 불을 지른 사람은 바로 저이옵니다."

마간디야가 우데나왕의 속마음을 눈치 채지 못하고 대답했다. 마간디야에게 직접 자백을 들은 우데나왕은 거짓으로 기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왕비는 물론이고 숙부와 친척 모두에게 상을 내리겠소. 지금 즉시 수레를 보내겠으니 왕궁으로 들어오시오." 왕궁으로 돌아간 우데나왕은 군사들을 시켜 성문 안쪽에 커다란 구덩이를 파게 했다. 구덩이를 다 팠을 무렵이었다. 마간디야와 그녀의 숙부 등 친척 모두가 크고 작은 수레를 타고 성문을 향해 왔다. 마간디야는 상을 받을 생각에 들떠서 화려한 수레를 타고 급히 달려왔다. 그러나 수문장이 성문을 열자마자 달려오던 수레들이 깊은 구덩이로 곤두박질쳤다. 우데나왕이 군사들에게 큰소리로 명령했다.

"구덩이에 흙을 채워라!"

마간디야와 그녀의 숙부, 그리고 친척들이 살기 위해 흙속에서 힘껏 머리를 내밀었다. 마간디야가 우데나왕을 올려다보고는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우데나왕이 칼을 빼어들고 소리쳤다.

"네가 사마왓띠를 죽였다고 자백하지 않았느냐! 너로 인해 착한 꾸줏따라도 숯덩이처럼 타 죽었지 않았느냐!"

우데나왕은 구덩이 위에 짚단을 던지게 한 뒤 불을 질렀다. 그러자 순식간에 마간디야와 그녀의 친척들이 불길에 타 죽었다. 우데나왕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소와 말이 끄는 쟁기로 구덩이를 수십 번이나 갈아엎었다. 시신들은 사지가 갈기갈기 찢긴 채 누구의 살점과 뼈인지 알 수 없게 돼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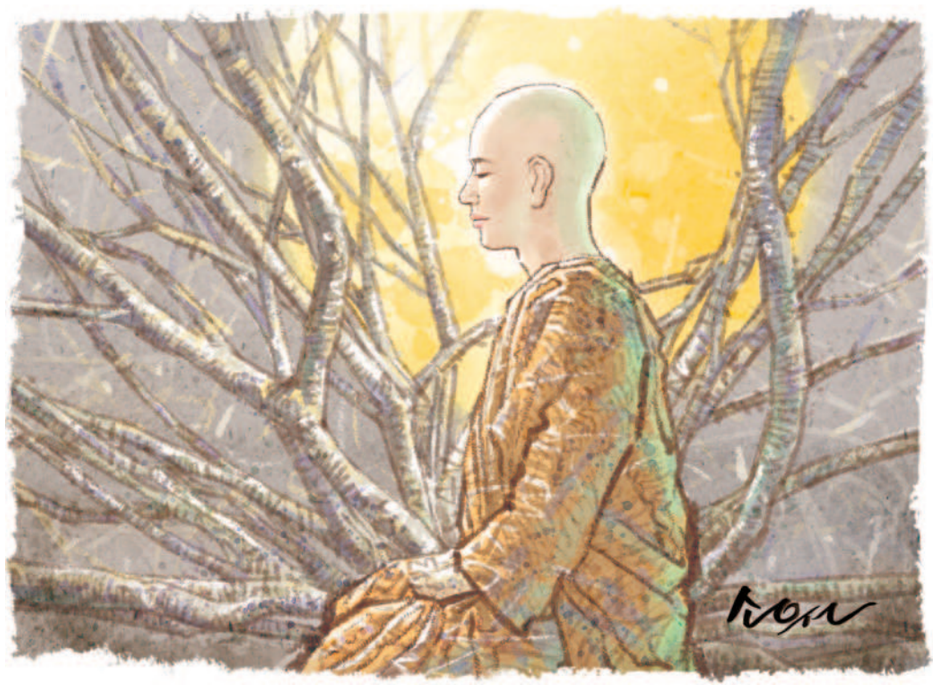
그제야 아쇼까는 어깨와 목덜미가 차갑다는 것을 느꼈다. 아쇼까는 가볍게 진저리를 쳤다. 야무나강이 피어올린 안개가 꾸꾸따라마 사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달빛이 투과하는 안개가 연기처럼 푸르스름했다. 아쇼까가 우빠굽따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오시오. 공양을 올리고 싶소."

"왕자님이시여, 고맙습니다. 고시따라마 사원도 붓다의 그림자가 어린 곳입니다. 그래서 더욱 고맙습니다."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붓다의 이야기는 내일 더 듣기로 하겠소."

선봉대장이 말을 끌고 아쇼까에게 다가왔다. 말도 안개의 냉기 때문인지 갈기를 흔들고는 푸르르 소리를 내며 고개를 쳐들었다. 말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면서 허연 입김을 내품었다. 아쇼까와 선봉대장은 말을 타고 꾸꾸따라마 사원을 떠났다. 우빠굽따는 두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반얀나무 아래 서서 합장을 했다.



우빠굽따는 아쇼까의 초대를 받고 잠을 자지 못했다. 잠을 자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자지 않았다. 반얀나무 둥치에서 무념무상의 삼매로 밤을 새웠다. 반얀나무 이파리에 맺혔던 밤이슬이 정수리에 서너 방울 떨어지고 나서야 새벽의 시간을 자각했다. 우빠굽따는 무명 숄을 어깨에 두른 뒤, 야무나강으로 내려가 찬 강물로 양치하고 세수를 했다.

새벽정진을 마친 우빠굽따는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향했다. 짙은 안개는 들판을 두꺼운 이불처럼 덮고 있었다. 우빠굽따는 맨발로 걷다가 야무나강으로 흘러드는 도랑물에 발을 씻었다. 그 사이에 해가 떠올랐는지 햇살이 광활한 들판에 부챗살처럼 퍼졌다. 아쇼까의 전령이 성문 밖까지 나와 우빠굽따를 맞이했다.

"부왕께서 사문을 모시고 오라 했습니다."

"고맙소."

꼬삼비성은 저잣거리 말고는 조용했다. 저잣거리는 상인들로 붐볐다. 어부들은 밤새 잡은 고기들을 어물전 상인과 흥정했고, 식당 주방화덕에서는 요리사가 짜파티를 부지런히 구웠는데, 밀가루가 타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다. 과일가게 주인은 망고와 바나나를 노상좌판으로 옮기느라고 분주했다. 우빠굽따는 전령을 앞세우고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걸어갔다. 아쇼까가 하룻밤을 보낸 길쭉한 군막은 야무나강이 보이는 사원 안쪽에 임시로 가설돼 있었다. 아쇼까가 군막 밖에 있더니 우빠굽따에게 다가왔다.

"사문이시여, 어서 오시오. 어젯밤은 내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소."

"소승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도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사문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소. 꼬삼비를 떠나기 전에 더 들려준다면 나는 얼마든지 듣겠소."

"과찬입니다만 여기 고시따라마 사원은 부처님께서 직접 머무셨던 곳입니다. 이곳에 오면 소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 저기 뜰에 공양을 마련해 놓았소. 가시지요."

"소승에게 공양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왕자님께서 마음을 내셨으니 기꺼이 받겠습니다."

식탁은 뜰 한쪽에 이미 옮겨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주식으로 볶은밥과 짜파티가 큰 접시에 각각 놓여 있었고, 빵에 찍어 먹는 커리와 달은 작고 오목한 접시에 담겨 있었다. 후식으로 먹는 과일로 망고와 바나나, 사과, 포도 등이 대바구니에 가득 쌓여 있었다. 육식을 하지 않는 우빠굽따를 생각해서인지 공작요리나 닭요리, 생선구이 등은 식탁에 올라와 있지 않았다. 아쇼까가 어젯밤에 요리사를 불러 우빠굽따를 위한 식단을 만들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우빠굽따는 공양을 하기 전에 아쇼까를 위해 기도했다. 붓다의 가피로 무기를 쓰지 않고도 적을 평화롭게 제압하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기도였다. 우빠굽따의 기도를 가까이서 들은 아쇼까는 대단히 만족했다.

"사문의 기도가 옳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군주야말로 위대한 왕이오."

"왕자님이시여,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진정한 무기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오?"

"소승이 공양을 받았으니 기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빠굽따는 잠시 침묵했다. 아쇼까가 자신의 말을 받아들일 만한 인연인지를 마음속으로 헤아렸다. 아쇼까가 참지 못하고 재촉했다.

"사문이여, 어서 말하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형상 없는 무기입니다."

"하하하. 부처님의 가르침이 칼보다 위대할 수는 없소. 마우리아국을 세운 것은 할아버지 짠드라굽따왕의 칼과 아버지 빈두사라왕의 칼이었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소. 내 말이 틀렸소?"

우빠굽따는 또 다시 침묵했다. 아쇼까는 아직 불법을 받아들일 인연이 아니었다. 아쇼까가 배가 고프다는 듯 짜파띠 두 장을 들더니 한 장을 우빠굽따에게 권했다. 우빠굽따가 다소 의기소침해지자, 그가 자신만만해할 화제로 돌렸다.

"부처님이 이곳 고시따라마 사원에 계실 때 무슨 일이 있었소?"

"식사를 드시는데 이 이야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괜찮아요. 계속 하시오."

"부처님이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오셨을 때 이곳에는 두 비구가 각각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비구는 경을 가르치는 강사였고, 또 한 비구는 계를 가르치는 율사였다. 어느 날 강사 비구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왔는데, 사소한 계율을 범했다. 계율에 따르면 화장실을 사용한 비구는 다음 비구를 위해 화장실 변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물통을 거꾸로 해놓고 나와야 했다. 그런데 강사 비구는 밖의 일이 급한 나머지 말끔하게 뒤처리를 하지 못했다. 우연하게도 바로 뒤에 화장실을 사용하게 된 사람은 율사 비구였다.

잠시 후 율사 비구가 강사 비구에게 "이것이 계율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강사 비구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참회하겠습니다." 하고 사과했다. 그러자 율사 비구가 "행위 자체는 계율에 어긋납니다만,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허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율사 비구가 제자들에게 이 일을 발설함으로 해서 이 일이 강사와 율사를 따르는 제자들 간에 큰 논박으로 번졌다. 이 같은 서로의 언쟁과 비난은 붓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붓다가 나서서 서로 화해하도록 권유했지만 다툼은 잦아들지 않았다. 마침내 붓다는 충격적인 방편을 썼다.

"부처님께서는 탁발을 하신 뒤 홀로 빨릴레이까 숲속으로 들어가셔 버렸습니다. 아난다 비구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으면 고시따라마 사원을 떠나셨겠습니까?"

코삼비 재가신자들도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붓다를 뵈러 갔다가 계시지 않은 것을 알았다. 한 재가신자가 비구들에게 물었다. 어느 비구가 "부처님은 숲속에 홀로 계십니다."하고 궁색하게 말했다. 그러자 재가신자가 "왜 거기에 홀로 계십니까?" 하고 캐물었다. 결국 비구들은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재가신자들은 비구들에게 실망하여 탁발을 나와도 음식공양을 일체 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곤란을 겪게 된 비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화해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자 재가신자들은 두 가지를 결의했다. 비구들이 숲속에 계신 붓다에게 가서 참회할 것과 붓다를 다시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모셔올 것을 요구했다. 비구들은 신자들의 요구로 아난다를 따라서 빨릴레이까 숲속에 계신 붓다에게 가서 참회했다. 그러자 붓다가 비구들을 용서하며 '다툼을 일으키면 그 피해는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마련이며, 화해를 한다면 그 공덕이 자신의 미래를 훌륭하게 만들게 된다.' 고 설법했다. 그러면서 붓다는 다른 왕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자기 아들에게 그 왕을 용서할 것을 권한 브라흐마닷따왕을 예로 들면서 게송을 읊었다.

어리석은 자들은
목숨에 끝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무의미한 다툼을 계속한다. 그러나 현자는 이 사실을 잘 알아 모든 다툼을 쉬어버린다.

아난다를 따라온 비구들은 눈물을 흘렸다.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는 눈물이었다. 재가신자들의 요구로 하게 된 참회였다. 아쇼까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우빠굽따의 걱정과 달리 계속해서 식사를 했다. 〈계속〉





혜암
미술 공예품
개·점·안·내

5월 10일, 불상·불화·만다라·도자기등을 전시 판매하고자 **경북 포항시 기북면 불원사 경내에 혜암 미술 공예품 매장을 오픈** 하였습니다. 불상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소장성이 많은 희귀불상, 티벳 불상, 현대불상 불화는 티벳, 네팔에서 직접 구입한 여러 가지 만다라를 전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혜암 미술 공예품을 찾아 주시는 스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찾는 불화나 불상이 있으시면 찾아 드리겠습니다.

혜암 미술 공예품 대표 **신 재 훈** 배상

네비게이션에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855번지 불원사"**로 검색 하십시오.

문의 010-5652-0174, 010-4504-0174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14 무자화두 참구법



▶ **한줄 요약**
무자를 의심하여 잠시도 간단(間斷)이 없이 의심이 지속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망각할 경우에는 화두수행에 병폐가 발생한다.

無자 화두 '是甚麽'로 참구해야

간화선의 수행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온 화두 가운데 하나가 구자무불성화(狗子無佛性話)이다. 여기에서는 무자를 의심하여 잠시도 간단(間斷)이 없이 의심이 지속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망각할 경우에는 화두수행에 병폐가 발생한다. 그에 대한 내용은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로부터 구체적인 몇 가지 항목으로 제기되었다.

무자화두의 참구에 대한 이와 같은 주의사항이 선병(禪病)의 개념으로 고려에 전승된 것은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 무렵이었는데, 지눌의 경우에 거기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지눌은 납자들을 지도하고 교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대혜의 어록에 보이는 간화의 수행법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두었다. 그 결과 대혜가 주창했던 무자화두의 참구법에 대하여 나름대로 수용을 하고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병폐를 10가지로 규정하였는데, 그 10가지는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최초에 해당한다. 이것은 무자화두를 그토록 강조했던 대혜의 경우에도 확정적이지 않았던 점이다.

지눌은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에서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10가지 주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有나 無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 진무(眞無)의 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 도리를 따져서 이해하지 말라. 의미를 동원하여 사량하거나 헤아리지 말라. 눈썹을 치켜 올리거나 눈동자를 깜박이는 것으로 근거를 삼지 말라. 언어를 끌어들여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 아무런 일도 없는 그 자체에서 해답을 구하지 말라. 화두 자체에 해답이 있다고 간주하지 말라. 문자 속에서 해답을 이끌어내지 말라. 깨침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한편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주의할 사항이 원대에는 몽산 덕이(蒙山德異, 1231~1308)의 〈무자십절목(無字十節目)〉에서는 약간의 변용적인 계승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지눌은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에서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10가지 주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눌이 처음으로 규정한 무자화두 참구법의 주의사항 10가지에 대하여 이후에 그의 제자인 진각혜심(眞覺慧諶, 1178~1234)은 〈구자무불성화간병론(狗子無佛性話揀病論)〉을 저술하여 무자화두의 참구법에 대하여 체계적인 설명을 가하였다. 여기에서 혜심은 무자화두의 연원을 〈굉지선사광록(宏智禪師廣錄)〉에 수록되어 있는 조주와 한 승의 일화에 근거를 두고 지눌의 10가지 주의사항에 대하여 그 순서와 항목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였다. 무자화두 참구의 잘못을 다스리기 어렵고 쉬움을 기준으로 난이(難離)와 이이(易離)로 구분하였다. 다시 무자화두를 추구하는 자세로서 유심(有心)으로 추구하지 말라. 무심(無心)으로 추구하지 말라. 어언(語言)으로 지어가지 말라. 적묵(寂默)으로 통하려고 하지 말라고 사병(四病)으로 구분하였다. 분별심의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사의(思義)와 부사의(不思議)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혜심은 지눌이 정립한 10가지 주의사항에 대하여 각 항목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중심으로 하여 무자화두를 직접 참구하는 납자의 입장에서 분류하였다.

이후로 조선 중기에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1604)의 〈선가귀감〉에서도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어서 조선 후기에 백파 긍선(白坡亙璇, 1767~1852)은 〈무자간병론과해(無字揀病論科解)〉를 지어 10가지 항목을 재평가하면서 혜심의 사병(四病)을 중심으로 화두를 드는 것은 유심(有心)과 어언(語言)에 해당하고, 화두를 들지 않는 것은 무심(無心)과 적묵(寂默)에 해당하며, 문자 속에서 해답을 이끌어내는 것은 화두를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에 두루 통한다고 정리하였다.

이들 기존의 대혜와 지눌과 혜심과 청허와 백파가 말한 무자화두를 참구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보여준 각각의 방법은 분명하다. 곧 대혜종고에게서는 무자화두를 참구할 때의 주의사항으로서 한꺼번에 10가지를 제시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최소 2가지로부터 8가지 및 10가지 이상에 이르는 사항을 지적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겹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다. 무자화두의 참구법에 대하여 처음으로 당시에 잘못된 방법을 지적하고 그것을 퇴치하려는 시도를 보여준 것은 대혜였다. 지눌은 그것을 계승하여 〈간화결의론〉에서 무자화두의 참구법을 10가지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혜심은 〈구자무불성화간병론〉을 저술하여 본격적으로 무자화두에 대한 잘못된 참구법을 지적하고 그것을 체계화하였다. 청허 휴정은 〈선가귀감〉에서 화두를 참구하는 주의사항으로서 기존에 전승되어 오던 사항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무자화두의 참구법에 대한 10가지 주의사항을 한층 공고히 하였다. 백파 긍선은 혜심의 〈구자무불성화간병론〉에 대한 해설서의 성격을 지닌 〈무자화두간병론과해〉를 저술하여 10가지 낱낱의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붙이고 전체적인 구조를 더욱더 명료하게 하였다.

간화선서 가장 보편적인 무자화두
의심 망각 시 화두 수행 병폐 발생
대혜종고스님 구체적 항목 제기해
보조지눌국사 禪病 개념으로 전승

근대에 이르러 백용성은 〈총론선병장(總論禪病章)〉이라는 글을 통하여 무자화두의 10가지 주의사항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보여주었는데, 그 근원적인 이유와 낱낱에 대하여 낱낱의 항목을 용성 나름대로 설정하여 해설을 붙였다. 일찍이 대혜 종고 · 보조 지눌 · 진각 · 혜심의 경우에는 가령 부득작유무회(不得作有無會)처럼 10가지 주의사항의 항목 맨 앞에 모두 부득(不得)을 붙여 설명하였다. 이것은 화두를 참구하는 납자를 주체적인 입장으로 간주하여 그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선지식이 무자화두의 무(無)에 대하여 있다[有] 내지 없다[無]는 의미로써 이해하려는 것을 간별해준다는 것은 납자의 잘못에 대하여 선지식이 그와 같은 병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체는 화두를 참구하는 납자가 아니라 그들을 지도해주는 입장에 있는 선지식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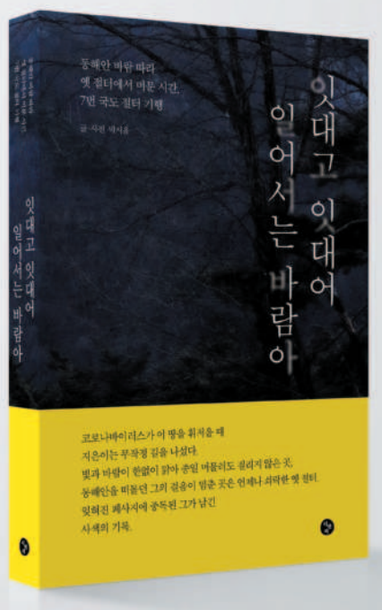
한편 백용성의 경우 이와는 달리 10가지 모든 명칭의 맨 앞에 논(論)이라는 글자를 붙여두고 있는데, 이때 논의 주체는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납자로 되어 있다. 가령 논유무지병(論有無之病)에서 납자가 무자화두의 무에 대하여 유무의 무를 가지고 논의하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병(病)이라고 선지식이 진단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용성은 〈총론선병장〉의 결론적인 대목에서 대혜 종고의 말을 인용하여 10가지에 떨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권장한다. 곧 무자화두의 참구에 대하여 분별의 관념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분별사식(分別事識)으로도 도달할 수가 없어서 분별(分別)이 단절되고 의로(義路)가 소멸된 곳을 향해서 곧장 촉발할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분별의 입장에서 무자화두를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무자화두에 접근하려는 일체의 행위가 병폐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有와 無라는 개념을 가지고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이고, 무심의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이며, 평상의 이치를 이끌어내어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이고, 절묘한 불법의 도리에 적용시켜서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이며, 인간의 분별의식으로 이리저리 재고 비교하여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이고, 어떤 이치나 예측이나 사량을 가지고도 파악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눈썹을 치켜뜬다든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는 것으로 자신의 깜냥을 드러내어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이며, 본래부터 천진한 면목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 까닭에 굳이 이러쿵저러쿵 노심초사하는 것은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격이라고 하여 아무런 작위도 없다는 것을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이고, 무자화두 그 자체에 처음부터 대단한 그 어떤 공능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선상(禪床)을 치거나 불자(拂子)를 휘두르는 것을 가지고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이며, 경전이나 어록 가운데 즐겨 인용되고 있는 일화를 끄집어내어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그것으로 증거를 제시하여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이고, 중생의 입장에서는 직접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까닭에 불보살과 조사가 터득한 현묘한 경지에 대하여 시간이 지나고 인연이 도래해야만 가능하다고 이해하여 마냥 그대로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가지고 논의하려는 것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이다.

그리고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경우에 잘못된 방식을 이처럼 비록 10가지 병폐로 나누어서 보다 친절하게 그것으로부터 구제해주려는 가르침으로 10가지를 제시하였을지라도, 그와 같은 선병이 발생하는 근원에 대하여 다시 백용성은 지해(知解)로부터 의미를 따지는 의로병(義路病) · 이치를 따지는 이로병(理路病) · 문자로 이해하려는 문해병(聞解病) · 사려분별로 이해하려는 사상병(思想病)의 4가지 병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무자화두의 참구에 대하여 대혜로부터 언급된 이들 다양한 주의사항은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무자에 대하여 '이것이 무엇인가[是甚麽]' 하는 방법으로 참구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인가에 해당하는 것이 곧 '시심마(是甚麽)'이다. 따라서 시심마는 무자화두를 비롯하여 화두를 참구하는 방식으로 모든 화두참구에 공통한다. 달리 시심마 자체를 화두의 하나로 간주하려는 경우도 있다.

〈동국대 HK교수〉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숨은 옛 절터로 향한
박시윤 작가의 7번 국도 절터 기행

잇대고 잇대어 일어서는 바람아

"더 늦기 전에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옛 절터의 아름다운 소멸"

흔적만 남은 폐사지에서 보낸 시간을
박시윤 작가 특유의 문학적 언어로 기록한 기행에세이

글·사진 박시윤
140×210mm | 378면 | 17,000원

YES24.COM
예스24 6주 연속 베스트셀러
한국사/한국문화 top100

도서 평점
알라딘 9.8점
YES24.COM 9.6점
인터파크 9.1점

불교 전통의식 수강생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서울 범패 1기생 : 교육과정 1년 ❖

사물다루는 법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시식
천도의식
천도재, 49재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시식)
각종 바라작법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

❖ **개강일시** :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교육원장 : 대광스님) ※경우에 따라 요일 변경
❖ **자 격** : 승, 속 관계없음
❖ **장 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 설법전
(경북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302번지
(모서별봉길 52-33))
❖ **수 업 료** : 교재비포함 3개월 30만원
❖ **연 락 처** : 054-762-5888 (종무원)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

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1800년도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사)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의식교육 28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조석예불 및 불공)	목	2시~3시30분	00명 (2년)
의식 전문반	·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 법 각종 사찰행사전문반 · 전통예능 (범음범패 : 삼신이운, 진언성, 복청게, 원강도량, 운심게, 오공양소리, 진령게, 사다라니, 욕건이, 실개수공발보리, 칭양성호, 관욕게, 합장게, 영산작법소리 등 30여곡)	수	2시	
작법무반	작법무(바라, 나비) 불교무용단 환영	수	3시30분~	
국악기반	태평소, 대금		5시~	

■ 개강일시 : 2021년 9월 8일(수) 오후 2시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50번 나길 80-42 (사)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010-2314-1279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 추천 (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영남불교예술대학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⑭ 아미타삼존내영도



▶ 한줄 요약
일본 호도지(法道寺) 소장 고려불화 〈아미타삼존내용도〉는 삼존 형식 내영도 중 3대 수작으로 불리는 작품이다. 주존 아미타불 광배의 후대 보존처리가 미흡하지만, 특유의 '금선묘'로 표현한 투명 광배를 확인할 수 있다.

투명 광배, '반야의 빛' 표현하다

고려불화에 등장하는 부처님과 보살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투명한 광배다. 물론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가늘고 가는 금선묘의 문양. 그것이 고려불화 특징 중 최고 압권이지만, 이와 동시에 또 하나의 손꼽을 만한 특징은 투명한 요소의 표현이다. 화려한 보관의 두 협시보살과 금빛 보상화문 넘실대는 가사를 입은 부처님.(그림1) 아미타 삼존의 장엄한 공덕을 완성시키는 화룡정점은 투명한 금테의 광배이다.(그림2) 마치 커다란 보름달 3개가 순차적으로 뜬 것처럼 교교(皎皎)하고 영롱하다. 일본 호도지(法道寺) 소장 고려불화 〈아미타삼존내영도〉(그림1)는, 삼존 형식의 내영도 중에 일본 MOA미술관과 한국 호암미술관 소장품과 더불어 3대 수작으로 손꼽힌다.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일본 오사카 호도지 소장 고려불화 〈아미타삼존내영도〉의 모습.

그림②. 호도지 소장 〈아미타삼존내영도〉 중 삼존. 사진 왼쪽부터 대세지보살, 주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후대에 새로 입힌 주존 아미타불의 광배를 제외하면 두 협시보살의 투명 광배는 잘 보존돼 있다.

日 호도지 소장된 삼존내영도
내영도 중 3대 수작으로 꼽혀
불보살 투명 광배 표현 '눈길'
고려 불화 특유 '금선묘' 확인

'금선묘 디테일' 재확인

삼존 가운데의 아미타불 광배 역시 투명했을 것인데, 일본에 유출되어 약 8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의 어느 시점에 하얀 불투명한 색이 살짝 입혀져 버렸다. 지난 연재 일본 쇼호지(正法寺) 소장 〈아미타독존내영도〉의 아미타불 광배를 참고하면, 본래 어떤 모습의 광배였는지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존하는 고려불화 약 160여 점에 등장하는 모든 부처 및 보살의 광배는 일관적으로 투명하다. 고려불화에 투명하지 않은 광배는 없다고 보면 된다. 반면, 조선시대, 특히 조선후기 불화의 불보살 광배는 녹색인 경우가 많다. 도상학적으로 본다면, 고려불화의 광배 표현이 보다 여법(如法, 법의 이치에 합당)하다고 하겠다. '신묘(神妙)의 경지'라 칭송받는 고려불화 '금선묘 디테일'의 품격을 한 번 더 그 정점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바로 투명한 요소의 표현이다.

광배 이외에도 투명한 염주, 투명한 정병, 투명한 사라, 투명한 영락 등 고려불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투명한 도상들이 많이 있다. 그 치밀하고 정밀한 화려함에 투명함이라는 고도의 기술을 더해 종교화로서의 완성도를 극치로 끌어올렸다.

고려불화는 '투명함'이라는 깨달음의 요소를 표현하는 데 성공하였다. 고려불화를 그린 화승(畵僧)들은 깨달음의 풍경과 깨달음의 요소를 철저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온 힘과 정열을 기울여 투명함을 표현하는 데 용맹 정진했고 그것을 기필코 구현해 냈다. 주지하듯이, 〈수월관음도〉에 표현된 투명한 사라의 표현은 고려불화의 세계적인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수행을 하다보면, 무수한 투명한 요소들과 만나게 되고 그것과 합일하게 된다. 뿌옇던 하얀 빛은 점점 밝아지더니 급기야 투명해진다. 무엇을 관찰하던 결국에는 모두 투명해져 버린다. 그러다가 공空의 자리가 드러난다. 세상의 풍경 역시 투명하고 영롱하게 반짝인다. 마치 양파 껍질이 벗겨진 듯, 탁한 필터가 제거된 듯 갑자기 맑게 게인 듯 보인다. 사마타 수행 끝에 만나는 여의주 역시 투명하다. 무량한 빛이라는 강력한 빛 역시 발광하는 빛줄기가, 지상의 빛처럼 반사되거나 퍼져나가지 않고, 희안하게 투명하다.

생전 처음 보는, 뭐라 설명 불가한 빛의 모습이다. 빛은 빛인데 발광(發光)하지 않는다. 바탕 공간에 편재하는 각성(覺性)의 마음은 투명하다. 대승경전에서 자주 만나는 '청정법신(淸淨法身)'이라는 용어에서 보듯, '투명하다'를 '청정하다'라고 표현한다. 깨달음과 합일한 부처 보살의 몸체에서는 '깨달음의 빛', 즉 청정한 '반야지혜의 빛'이 퍼져 나온다. 이것을 제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고려불화의 광배이다.

"광명 만나면 진정한 휴식 얻으리"

〈무량수경〉에 언급된 이 밝은 빛 또는 광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아미타불의 밝은 광명은 가장 높고 뛰어나서, 달리 무량광불(無量光佛)이라 부른다. 만약 중생이 아미타불의 광명을 만나게 되면, 탐욕과 성냄, 어리석은 마음이 저절로 스러지고,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냥해지면, 기쁨이 가슴 가득 넘치고, 진리를 구하려는 마음이 용솟음친다. 지옥과 아귀, 축생의 삼악도에서도 이 광명을 만나게 되면, 평안한 휴식을 얻어 다시는 괴로움을 겪지 않고, 목숨이 다한 뒤, 해탈을 얻는다."

이 빛을 만나면 치성했던 탐진치貪瞋痴가 그대로 녹는다고 한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 빛을 만나기 전에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요, 휴식도 휴식이 아닌 것이다.

"세상을 비추는 이 밝은 지혜는 생사의 먹구름을 거두나니"라고 하여, 생사윤회의 검은 에너지를 타파해 버린다. 이 빛으로 자아의 바탕인 탐·진·치의 마음이 녹아버려야, 자아가 없어져야만이 세세생생 윤회하던 기나긴 고단함이 드디어 쉴 수 있다.

눈 먼 사람이 어찌 길 안내를

아미타삼부경은 극락세계를 제시하고 또 이러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삼부경 중, 특히 무량수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용이 참으로 깊고 심오하다.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심신으로 행동해야 된다. 진정 사랑한다면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극락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는 공덕'을 설한 부분인 '극락왕생의 인행(因行)'을 보면, 중생뿐만 아니라 보살에게도, 그러니까 중생과 보살 모두에게 극락왕생의 인행을 간곡히 설법하는 내용을 만날 수 있다.

중생에게는 상중하(上中下)의 근기(根機, 본인이 쌓은 수행 가능한 능력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왕생하게 되는지 설명하였고, 보살에게는 게송으로 당부하고 있다. 보살들의 소원, 극락정토를 이룩하려면 "법의 성품이 공하고, 무아임을 깨닫고, 보살도를 닦아 공덕을 갖추라"라고 하시고, 중생 구제의 다짐을 받는 내용이 나온다.

"지극한 서원 세워 자신이 사는 땅, 극락으로 만드려면 모든 중생 제도할 것을 다짐하라! 교만하고 삿되고 게으른 사람은 이 법문 만나기 심히 어렵다. 날 때부터 눈 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길 안내를 하려 함과 같다. 온 세계 불길 가득하여도 반드시 뚫고 나가 불법을 깨닫고 부처되어, 생사 헤매는 중생을 구하라!"

'내가 공함을 깨닫고 남을 이끌라'라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길만이 보살의 유일한 길이자, 이곳을 극락으로 만들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이룩되어 있는 극락정토는 법장 비구(아미타불의 전신)가 5겁의 오랜 세월을 두고 깊은 선정에 들어 이룬 불국토"라고 한다.

이렇게 공들여 만들어진 "극락세계에는 모두 몸에서 빛이 나는 보살들이 있는데, 그 보살들 중에 가장 존귀한 두 보살이 있다"고 한다. "한 분은 관세음보살이고, 또 한 분은 대세지보살이다."

이 두 보살 역시 속세에서 세세생생 보살행을 닦을 결과로 극락에 태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극락이든 지옥이든, 중생이든 성자이든, 어디에든 인과법(因果法)은 적용된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동일하다는 불이법(不二法)이 납득이 가게 된다.

불교의 특징, '自力'의 제시

경전에는 "거지는 왜 거지이고, 임금은 왜 임금인가?"라는 질문에 "전생에 지은 복덕의 과보"라는 답과 함께 아무리 속세에서 임금이 되어도 "보살에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니 보살이 되고자 마음을 내라는 것이다.

아미타신앙이라고 하면 타력(他力)신앙이라고 흔히 규정한다. 타력 신앙이란 아미타불의 위신력에 전적으로 의탁하여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생의 마음은 나약하기에 거의 모든 종교는 타력신앙을 제시한다. 특정 신(神)을 믿고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 안에서 타력신앙이라고 불리는 아미타신앙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타력과 함께 자력(自力)을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수행의 결과로 스스로 부처가 되라는 것이다.

"참으로 극락에 가는 길은 쉽건만, 가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극락세계의 존재와 극락왕생의 방법을 간곡히 얘기했건만, 마음 내는 사람이 없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온갖 욕망을 좇아 봤자 그 과보로 아득한 나락에 떨어져 다시 헤맬 뿐인데도.

"사람들은 어찌 덧없고 너절한 세상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가? 젊고 건강할 때 힘을 다해 선정을 닦고 정진하여 생사의 고해를 벗어나려 않는가? 어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큰 도를 구하지 않는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즐거움을 바라는가?"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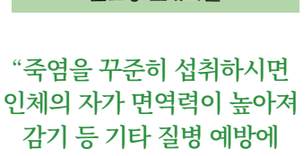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박원자의 母情佛心 14 목련 존자의 어머니



▶ 한줄 요약
목련 존자의 어머니는 생전 탐욕과 악행으로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를 구하기 위해 아들 목련 존자는 고군분투하고 어머니를 구제한다. 이것이 백중의 기원이다. 결국 스스로 자성을 깨우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이다.

깨달음 얻어 어머니를 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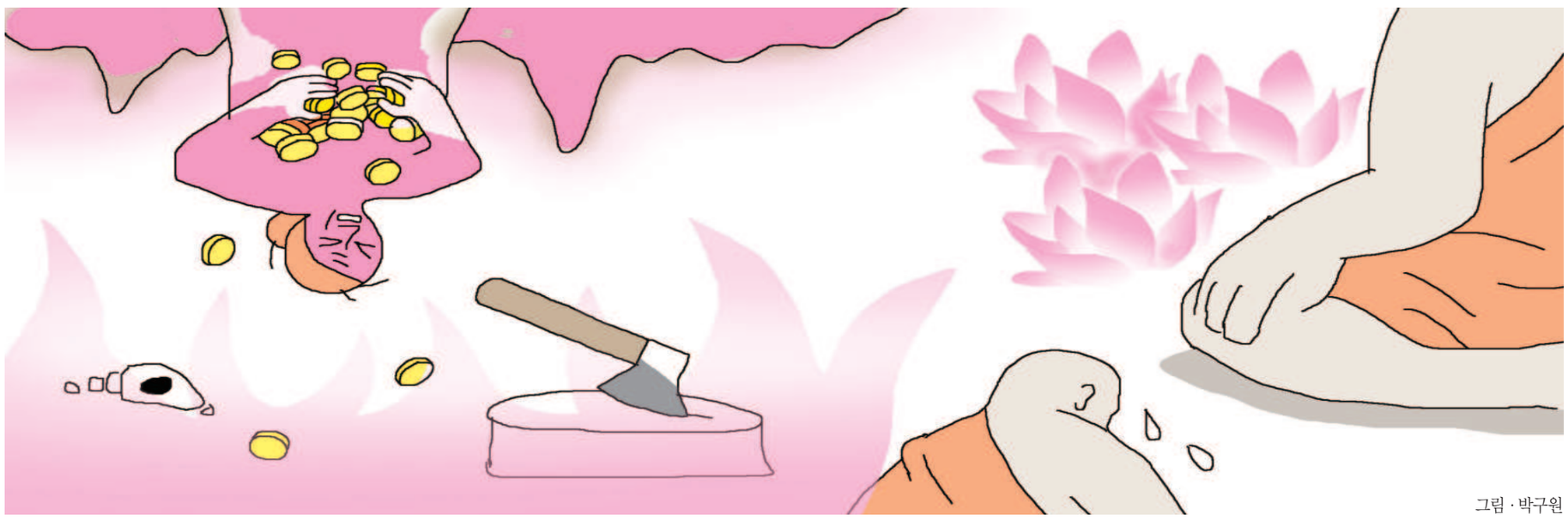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해 지나 우리 오남매가 함께 남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얼마 안 되었을 때고 아들딸들이 모였으니 자연스레 어머니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다. 각자 추억을 꺼내들었는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어릴 때 엄마한테 몇 번 되게 맞았지.", "엄마 굉장히 우리한테 엄하게 대했어."

그런데 나는 어머니한테 맞은 기억이 없었다. 맞지 않았을 리가 없다. 아버지를 도와 농사지으며 자식 다섯을 키우려면 매를 안들 수가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무서웠다'는 기억도 없다. 어머니는 그저 자식들을 위해 헌신적이고, 지혜로운 분이었다는 기억뿐이다. 집이 동네 입구에 있어서 항시 동네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장날이면 지나가다 들어와 이런저런 얘기를 풀어놓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은 우리 집 밥상에 끼어 앉아 밥을 드시곤 했다.

동네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너희 어머니에게 변호사 사무실을 하나 차려주어야 한다' 고 했을 정도로 어머니는 동네에 이런 저런 일이 벌어지면 현명한 해결사가 되곤 했다. 장 담그는 솜씨도 일품이었고, 반찬도 뚝딱 잘 만들어내셨다. 지금도 텃밭에서 막 뽑아온 여린 배추로 끓여낸 된장국 맛을 잊을 수 없다.

말할 수 없이 부지런했고 매사 총명했던 어머니가 어느 날 보니 아궁이 앞에서 불을 때며 무언가를 외우고 있었다. 작은 쪽지에 쓴 '주기도문'이었다. 가을 추수를 하고 나면 떡을 한 시루 해서 장독대에 올려놓고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렸던 것이 어머니의 종교였는데, 말하자면 개종을 한 셈이었다. 두런두런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당에 나가던 어머니가 절에 다니게 된 계기를 알 수가 없다. 어쨌든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이었다. 다니고 있는 절에 신도회장을 맡았다고 하시면서 가족들 이름을 다 한자로 적어달라는 것이었다.

"엄마, 그냥 한글로 쓰면 되잖아." 귀찮아하는 나에게 엄마가 말했다.

"얘, 스님께서 한자 이름을 써서 축원하시는데 내가 한자를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니."

불효막심한 내가 무학인 어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었다. 가끔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곤 한다. 귀찮아하는 딸을 달래 한자 이름을 받아내 종이에 적으며 열심히 연습하던 모습.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 한자 이름을 외우던 것이 어머니의 불교였다.

지금 생각하니 어머니의 나이가 오십도 안 되었을 때였다. 어머니는 시골의 작은 절 신도회장을 한 십년 쯤 하시면서 불사에 앞장섰다. 가을 철 추수가 끝날 무렵이면 권선책을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들러 쌀을 보시 받았고 공양금도 약속받았다.

"어느 집에 가니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라. 포기하지 않고 몇 번 다시 찾아가서 시주를 권했더니 미안했다고 하면서 쌀 한 가마니를 내놓더라고."

나중에 내가 대학에 들어가 불교에 입문하자 어머니는 동지를 만났다는 듯 신이 나서 불사하는 데 화주 노릇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어머니의 불심은 아버지에게도 전해졌다. 오로지 근검절약하며 자수성가해 자식들만을 위해 사셨던 아버지의 주머니를 열게 해 보시하게 했고, 말년에는 3천개 보리수 열매가 달린 염주를 넣어둔 바구니가 아버지 머리맡에 있게 되었다. 주무시기 전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늘 염주를 돌리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다.

가끔 생각해보곤 한다. 당대 제일간다는 불교학자에게 불교기초교리를 배우고, 명망 높은 스님들을 찾아뵙고 이것저것 물어대고 글을 쓴 나보다 〈반야심경〉을 못 외웠던 어머니가 왜 훨씬 불교적인 생활을 하셨을까. 당신 앞에 왔던 모든 일들을 무심으로 수용하고, 잘 났네 못 났네 판단하지 않고, 이미 지난날들을 두고 후회하거나 원망하는 법이 없고, 자식들에게도 무엇을 바라거나 집착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든 단결에 하라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일구었던 어머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어머니는 '현재'만을 살았던 깨어있는 분이었다. 나에게 어머니는 그런 분이었다. 살아가면서 '백번 깨어나도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겠구나'를 느꼈기에 어머니를 추억하는 자리에서 혼이 났다는 생각도 무서웠다는 생각도 나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너무 아쉽고 불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매일 〈지장경〉을 읽고 참회의 3백배를 올렸다. 〈지장경〉은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 계시면서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법을 설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기도를 하는 동안 꿈에 여러 번 어머니가 나타났다. 꿈에서도 어머니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조계종 종정을 지내신 법전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내가 공부해서 마음을 깨치면 부모형제들이 죽어 어디에 가 있는지 알게 된다고. 그래서 진정한 효도는 내가 자성을 깨치는 일이라고 간곡히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신통력을 얻어서 부모님이 천상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알게 되는가보다 라고 생각했다.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 구하는
목련 존자 일화, 백중 기원돼
중생 향한 자비 부모 돕는 일
자성을 깨치는게 진정한 효도

그런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내 마음을 알게 되면 나와 부모가 둘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 내가 평안하면 부모님도 평안한 것이고 내가 괴로우면 부모님도 고통 속에 계시다는 것을. 그러므로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 본래면목인 참 나로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효도임을.

백중기도 입재를 한지 몇 주가 지났다. 시댁 어른들과 함께 친정 부모님 기도도 함께 하고 있다. 매년 백중기도 때가 되면 어머니 생각이 더 난다. 1년에 한 차례라도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 다행이다. 아마 부처님께서도 이를 알고 제자인 목련이 어머니를 구제하는 것을 통해 수많은 자식들이 백중기도를 통해 효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게 아닐까 싶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목련 존자는 신통제일의 수행자로 알려져 있다. 출가 전 목련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한다. 그는 재산의 3분의 1은 어머니에게 드리고, 3분의 1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기로 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면 그 공덕으로 부모가 좋은 세상에 가게 된다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나머지 3분의 1은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쓰기로 한 목련은 아버지를 위해 떼어둔 몫의 재산도 어머니에게 맡기며 잘 써달라고 부탁하고 무역업을 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아들이 떠나자 어머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재산을 내놓기가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그 돈으로 땅을 사서 가축을 키워 도살해서 파는 도축업을 시작했다. 남을 돕기는 커녕 살생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목련이 사업에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서 어머니는 죽음을 맞았다. 목련은 자신이 가진 재산 모두를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국가에 내놓고 출가했다. 출가해서 깊은 수행 끝에 신통 제일의 부처님 제자가 된 목련 존자는 깊은 선정에 들어 어머니가 아귀지옥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옥 천정에 매달린 채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어머니를 보게 된 것이다.

〈불설우란분경〉에 보면,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낭비가 심해 재산을 아끼지 않고 썼으며, 귀한 가문만 믿고 교만해서 남을 무시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몰랐다. 남에게 함부로 대하고 귀하게 여길 줄도 몰랐다. 도축업을 하면서 산목숨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가족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하질 않았다. 너에게도 스님들을 공양하고 이웃에게 돈을 썼다며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쾌락만을 쫓아서 살았구나."

뼈만 앙상한 어머니에게 아들은 발우에 음식을 담아 어머니 입에 넣었으나 거꾸로 매달려 있는 탓에 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밑으로 쏟아져 내렸다. 신통력이 뛰어났던 목련존자도 지옥에 매달려 있는 어머니를 구제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돌아와 부처님께 어머니의 구제를 부탁한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본 분이었으니 목련존자의 어머니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모님을 구제하도록 방법을 일러주었다.

"청정하게 수행하는 출가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돕는 일이 가장 큰 공덕을 행하는 일이다. 매년 7월 보름, 출가수행자들의 안거가 끝나는 해제에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시를 행하라. 그 보시가 그대 어머니와 세상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구원해 줄 것이다."

안거가 끝나는 해제에 목련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음식을 차려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 일이 오늘날 백중(百衆)의 유래가 되었다. 백중은 백 명 이상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날이라는 뜻이다. 백중을 우란분재라고도 부른다. 우란분은 '거꾸로 매달린'의 뜻이고 재는 '베푼다'는 뜻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어 지옥에 거꾸로 매달려 고통 받던 목련존자의 어머니처럼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게 했을까. 당시 스님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했기 때문일 것이다. 밥을 빌어먹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또 수행자는 고통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출가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것이 곧 중생을 돕는 일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살아있는 부모는 물론 돌아가신 부모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이다.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그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주신 부처님의 은혜도 백중을 맞이해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 〈작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1년 9월 8일(수) ~ 10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수업참여 오프라인(황룡원), 온라인(Zoom)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불교의 현대적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9월 8일, 수)	2일차 (9월 9일, 목)	3일차 (9월 10일, 금)
09:00~12:00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마음과 과학 특강
14:00~17:00	불교상담과 마음치유	현대인을 위한 포교	
18:30~20:30	한마음 교육의 원리 '나로부터의 시작'	온택트 시대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1 안양시 시민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

제7기 행복한 부모되기
마음 치유와 자녀심리 이해

대상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자 하는 누구나(선착순 40명)
기간 2021년 5월 25일 ~ 2021년 7월 13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한마음선원과학원 3층(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신청 및 문의 함께하는 진화 홈페이지 edu.hansi.org
전화 031-470-3198, 3200
매주 월요일 휴무
수강료 무료교육(안양시 지원금으로 교육진행)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1회	(5/25)	괜찮아(수용하기)
2회	(6/1)	다그치지 말아요(무의식 이해하기)
3회	(6/8)	평가하지 말아요(마음 자각하기)
4, 5회	(6/15)	쉼(관계의 통찰) & 걷기명상
6회	(6/22)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7회	(6/29)	고맙습니다(부모 역할 자각)
8회	(7/6)	우리, 안아줘요(건강한 가족)
9, 10회	(7/13)	내 안의 꽃을 피워요(성찰과 비전)

〈법화경〉 좋아하는 것 엄청난 공덕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㉗ 법화경 공덕

그때 미륵보살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은 얼마만큼 복을 받습니까?"

그때 부처님이 미륵보살마하살에 이르셨다.

"아일다여, 여래가 열반한 후에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나 그 밖의 지혜가 있는 이로써 어른이나 젊은이나 이 경전을 듣고 기뻐하고 법회에서 나와 다른 곳에 가서, 승방이나 한적한 곳에서나 도시, 거리, 크고 작은 마을에서 법회에서 들은 대로 부모, 친척, 스승, 친구들을 위하여 능력 따라 설해주면 이들이 듣고 나서 기뻐하여 다시 남에게 말하고 이렇게 하여 점점 전해져서 제50번째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아일다여, 그 50번째 전해들은 선남자 선여인의 기뻐하는 공덕을 내가 이제 말하리니 잘 들어라.

어떤 시주가 4백만억아승지 세계 안의 육취(六趣)의 중생들이 복을 구하기에 그들의 요구대로 즐길 물건을 모두에게 보시하되, 하나하나의 중생들마다 염부제에 가득한 금, 은, 유리, 자거, 마노, 산호, 호박 등 온갖 아름답고 진귀한 보배들과 코끼리, 말이 끄는 수레와 칠보로 된 궁전, 누각 주었다. 이 큰 시주(施主)가 이렇게 보시하기를 80년을 채우고 나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미 중생들에게 즐길 물건 보시하여, 바라는 대로 주었으나, 이들 모두 이미 늙어 백발에 주름이 져서 죽을 날 멀지 않으니, 내 응당 불법으로 가르쳐 인도하리라.' 하고, 곧 이 중생들 모아놓고 법을 설하여 교화하여 가르치고 이익이 되게 하며 기쁘게 해, 일시에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를 얻게 하며, 온갖 번뇌가 없어져 깊은 선정에 자재함을 얻게 하고 여덟 가지 해탈을 갖추게 하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큰 시주의 얻는 공덕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미륵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 사람의 공덕이 매우 많아서 한량없고 그지없겠나이다. 만약 이 시주가 다만 중생에게 온갖 좋아하는 것만 보시했다 하여도 공덕이 한량없겠거늘, 하물며 아라한과를 얻게 해 준 것이야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에게 이르셨다.

"내 이제 분명히 그대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온갖 보시한 물건으로 4백만억아승지 세계 육취의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시 아라한과를 얻게 해 준다 해도, 그로 인해 얻는 공덕이 이 50번째의 사람의 묘법연화의 가르침 게송 하나를 듣고 기뻐하는 공덕만 못하니라. 백분, 천분, 백천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나아가 산수, 비유로서도 능히 알 수가 없느니라.

아일다여, 이와 같이 50번째 사람이 차례로 전해 받아 법화의 가르침 듣고 기뻐하는 공덕도 오히려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지이거늘, 하물며 맨 처음 법회 중에서 듣고 기뻐하는 자는 더 말할 게 있겠느냐. 그 복이 더욱 뛰어나 한량없고 그지없어 아승지로는 견주지 못하니라."

'수희공덕품'에 나오는 위의 이야기는 〈법화경〉을 듣고 기뻐할 때 얻어지는 공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설하는 법회에 참석해 법문을 들었다. 그리고 그가 들은 법문을 다른 곳에 가서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준다. 전해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준다. 이렇게 전해져 50번째 전해들은 사람의 공덕을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다.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법화경〉을 수지(受持)하는 것이 탑을 세우고 절을 짓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 데서 경의 가치를 천명한 것처럼 〈법화경〉을 좋아하는 것이 복이 되고 엄청난 공덕이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금강경〉에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七寶)를 보시한 복덕보다도 경 4구게(四句偈)를 수지하는 복덕이 더 많다"고 한 말과 같다. 〈화엄경〉은 佛을 설하고 〈법화경〉은 法을 설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법을 듣고 생겨나는 기쁨을 법희(法喜) 또는 법열(法悅)이라 하는데 〈법화경〉이 법을 설한 경이므로 법희의 공덕을 극대화해서 말하고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한 번 보살은 영원한 보살"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㉗ 보살의 자서수계(自誓受戒)

걸음을 배우느라 뒤뚱거리면서 천천히 발을 떼어놓는 아기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입가에 엷은 웃음이 번진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는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져 울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써서 얼굴이 새빨개지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기를 일으켜 세워서 한 발짝씩 조심스럽게 옮겨 디디게 한다. 이런 시도는 반복될 것이고,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 혼자서 성큼성큼 걸을 것이다.

대승 보살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이도 걸음마를 뗀 아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보살은 악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적극적으로 선한 행동을 해야 하며, 다른 이를 이롭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일정한 경지에 다다른 보살이 아니라면, 보살의 마음가짐은 상황에 따라 느슨해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한다. 이럴 때마다 보살은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스스로 북돋우기도 하고, 다른 이에게 격려나 위로를 받기도 한다. 보살의 삶을 맹세한 이가 늘어나면서 자신의 내적 결의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절차가 생기게 된다.

보살의 수계에 대해서는 중기 대승경전에 산발적으로 나오지만, 〈유가론(瑜伽論)〉의 보살지(菩薩地)에는 보살의 수계작법(受戒作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논의 '계품(戒品)'에는 자서수계(自誓受戒)가 설해지는데, 계사(戒師)가 될 만한 인물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방법이다. 즉, 수계 희망자는 불상 앞에서 자신이 직접 모든 부처님이나 모든 보살에게 말을 거는 것에 의해 수계를 행한다. 이때 수계 희망자는 자신의 맹세를 시방의 모든 불보살에게 말을 걸어 인증을 받는 것이다. 이런 수계작법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법인 까닭에 보살계의 특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예전의 수계작법은 종타수계(從他受戒), 즉 다른 이로부터 계를 받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비구가 구족계를 받기 위해서는 삼사칠증(三師七證), 즉 3명의 스승과 7명의 증인이 필요했다. 여기서 3명의 스승은 계를 주는 계화상(戒和尙), 청결을 증명하는 갈마사(葛磨師), 의식을 가르쳐 주는 교수사(敎授師)이다. 이들로부터 수계 희망자가 계를 받는 과정을 지켜보는 7명의 입회인이 있어야 수계가 성립되었다. 반면에 자서수계의 경우에 수계희망자는 명상이나 꿈속에서 석가모니불이나 다른 부처님 또는 보살로부터 직접 계를 받으며, 수계의 성립을 지켜보는 증인은 시방의 모든 불보살이다. 따라서 자서수계에서는 불보살에게 보살의 서원을 스스로 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보살계는 이전의 계와 달리 이 세상에서 일생 동안 지킬 것을 맹세하여 받는 계가 아니다. 보살계의 기반이 되는 보살행은 보리심(菩提心)을 일으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최종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수계 희망자는 보살로서의 자각이 있어야만 하며, 보리심을 일으켜야만 한다. 다시 말해 수계희망자는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수계를 통해 진정한 보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살계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 또는 그다음 세상에서도 계속 보살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구호를 빌린다면 '한 번 보살은 영원한 보살'인 것이다.

동아시아불교에서는 자서수계로 보살계를 받는 경우, 수계 희망자에게 철저한 참회를 요구한다. 그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그동안 지었던 악업을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그의 마음에서 악업이 사라질 것이다. 이로 인해 그 마음이 청정해지면, 보리심을 일으켜 보살로서 살아갈 것을 스스로 맹세하고 보살계를 받는다. 따라서 보살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도 수많은 불보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③ 괴로움 원인과 윤회 비밀 (하)

선업 의지 함양이 곧 불교수행

만약에 무명업식과 근본번뇌로 인해 마음에 무지와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마음은 업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뢰야식 속에 선업과 불선업의 업종자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마음은 무명업식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생멸하며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이미 영겁의 윤회 삶 속에서 아뢰야식 속에 끝없는 업의 종자를 저장시켜왔고, 또한 제7말나식이 항상 세심하게 사량하는 항심사량(恒審思量)의 특성으로 인해 근본 번뇌와 마음의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번뇌로 요동치며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결국 중생은 이로 인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스스로 일으켜 업을 짓고, 지은 업의 과보로 끝없는 윤회의 고통을 겪으며 끝없는 업력을 일으키며 갈애와 무명번뇌로 요동치며 스스로를 구속하며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업력에 의해 만들어진 몸과 마음은 스스로를 오온의 욕망에 구속시키며 오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본무명과 마음의 오염과 번뇌의 장애를 가진 마음은 무지의 마음을 일으켜 사견(邪見)에 구속시켜 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합니다.

불자 여러분! 그러나 이처럼 근본무명과 마음의 장애를 일으키는 마음이지만 아뢰야식 속에 저장된 선과 악의 업종자(業種子)들은 무기성(無記性)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깥 경계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7말나식과 제6의식에 의해 바깥 경계대상인 연(緣)을 만날 때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선악의 업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식기관인 육근이 바깥경

자신의 괴로움 '自業自得 自作自受'
행복 위해 오염심 · 번뇌 제거하고
불성을 의지해 삼학으로 훈습해야

계인 육경을 만날 때 그 순간 집착하는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업력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좋은 업력과 나쁜 업력을 일으키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내 마음의 의지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의지만 강하다면 업력에 따르지 않고 악업을 끊고 선업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업을 키우고 지을 수 있는 마음의 의지를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수행입니다.

불자 여러분! 만약 평소에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의 실천으로 진여본성에 훈습(薰習)하여 마음에 반야지혜가 발현되어 있다면 나쁜 업력을 인욕(忍辱)으로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업을 불러일으키는 의지적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와는 반대로 탐진치 삼독심으로 몸과 마음이 집착과 욕망으로 염법(染法)을 훈습시켜 놓았다면 삼독심에 이끌려 나쁜 업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로 인해 또 다른 악업을 짓기 때문에 악도를 벗어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나의 괴로움은 누구 탓이 아니라 모두가 내가 지어서 내 스스로 받는 자업자득(自業自得)이요 자작자수(自作自受)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움을 벗어나 스스로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염심과 번뇌를 전부 제거해야 합니다. 불교 수행은 결국 오염된 마음을 청정한 본성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염심과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업을 짓는 주체인 마음을 스스로 깊이 살펴 통제하고 업력으로 인해 탐진치로 삼독심으로 가득 채워진 몸과 마음을 진여본성의 불성에 의지하여 계정혜 삼학으로 매 순간 훈습(薰習)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부처님 같이 청정하고 밝은 마음으로 진여본성을 스스로 깨닫고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실상을 모두 깨달아 마음의 장애를 벗어나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49호 | 17 | 전면광고

의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구하고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소행찬》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속성 5개월 과정 •한문 몰라도 됨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불 교 용 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신문사 양도

• 등록된 ○○신문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 종단, 연합회, 사암에서 신문사 운영하실 분
010-5412-8040

사주명리학·성명학 수강생 모집

❊ 3개월 완성 ❊
❊ 왕초보자 환영 ❊
1:1 특별과외도 해드립니다.
일주일에 2~3회 강의
강의 장소 : 부산시 또는 경주시
※ 카드결제가능
010-2523-7771

천도재, 49재 회양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보시금 35만원
010-2204-8375

★검 색★
GP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합
010-5412-8040 법광

수강생 모집

명리학기초부터
길흉판단 · 작명
단시일내
❊ 삼송정사 ❊
010-9323-5693

사찰 운영하실 분

비구니(조계종)스님
보살님(65세 이하)
전남 무안군 소재에
있는 절
010-3601-8195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78-9595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팔공산 갓바위 근처
• • •
010-4766-3200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모든지
성취시키는 기도법을 전수 (승려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易(역) 수강생 모집
•왕초보반 : 명리 · 육효 · 영가 찾는 법
YouTube 백암TV 구독 누른 후 시청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오시는 곳 : 2, 4호선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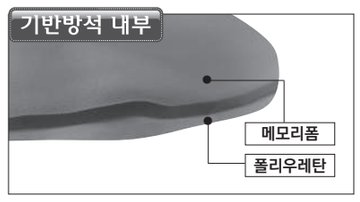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49호 | 18 | 전면광고

바른 도를 잘 닦아 익히어 진실한 법의 그
모양 알고 그 도량에 굳건히 머무르면
부처님의 보리를 성취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화엄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부지 : 3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협의

◎위치 : 경기
◎부지 : 150평
◎건평 : 120평
◎신도시중심
◎매가 : 9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시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법당(요사채 최신형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올창, 편백나무 5천그루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대지 230 평
●법당 20평, 산신각, 공양간, 찻방, 아담한 산밑자락
●가액: 3억(대출5천만원) 절충가능

010-9389-7457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15년 기반 포교원 안내

●위치 : 대전 복합터미널 근처
●제반시설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 60평
●2층건물, 옥상 60평 사용
●보증금 1000만, 월세, 관리비 60만원
●일체 인수 가능하신 분

010-3452-1123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가액 : 11억

010-4547-0023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인천 사찰안내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건물 : 지하1층:창고형, 1층: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방3, 화장실, 3층: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가액 : 3억 5천 (시세이하, 급양도합, 사찰연력 40여년) ●답사 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기도 도량 안내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가액 : 4억(협의가능)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사찰(급)안내

●위치 : 대전 중구 보문산5거리 (당산나무옆 2층)
●시설 : 삼불전, 약사전, 요사채(2) 42평
●권리금 : 1천5백만원(바로 법회 가능)
●임대보증금 : 3백에 월 30만원, 절 이전으로 시설권리금을 저렴하게 책정하였음.
●서기가 있어 영험한 기도도량입니다.
●기도가 아름다운 절 보문산 지장사

주지 무진 010-3049-5816

사찰(급)안내

●위치 : 부산 동래구
●부지 : 1천평(또는 4백평)
●가액 : 상담(방문)후 결정
●부산 최고 명당자리
●전시컨벤션 ●복지시설

010-2822-1080

사 찰 안 내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대지 : 350평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가액 : 4억 8천만원 (절충가능)

010-7710-8334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 안양시 관악산 (관악산 둘레길 참배객 많음)
●대지 : 360평 외 국유지 약 200평
●건물 : 6동 외 미륵전
●가액 : 18억

010-5330-8599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진주시내
●대지:100평 ●건물:법당25평.요사채 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간.화장실2개) ●해수 관세음보살 입불상(7m) ●부처님 진신사리3과(기증) ●가액:2억8천만원(대출6천만원 포함)절충가능 ●전.월세가능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010-2807-0509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산청군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추모공원 안내

●수목장10,300평
●사찰과 납골당 부지 6,000평
●김해광제IC에서300m
●가액 70억

010-2913-7963

사 찰 안 내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지 : 335평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불교용지760평, 대지800평, 전체 계획관리
●대웅전, 연못, 요사채, 산신각, 대형휴게실, 대형 찜질방3개, 종각, 전각8채, 감곡천척역10분, 대웅전 대형 잔디광장, 요사채별장, 대형정원, 전원주택별장은 신축, 540평 건물, 정원연못, 생광석 찜질방 다양하고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양원하고 같이 운영하시면 됩니다. ●상담 : 이미정

010-5883-2255,010-3564-6881

암자 안내

●위치 : 해인사초입고령
●조립식법당 약10평 요사채 약25평, 방사겸 창고2, 176평 밭40평, 주차5~6대가능
●1억4천 대출5천 안고 9천인수가능

010-4687-1483

사찰터 안내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1구 산30-3
●임야 12,429㎡, 가액 1억 8천 8백이면 사찰 판넬로 건물 지어줄수 있음
●농림지역, 전기, 도로 포장되어있고 토굴, 암자터 최고, 두릅나무 심어져 있음

010-5454-8315

전통 암자 안내

●위치 : 충북 괴산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학교, 시장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단청, 공원같은곳(종교용지 900평)
●은행대출 1억5천안고, 2억4천5백만 합계 3억9천5백만(공원같은곳)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함

010-3535-7906

사 찰 안 내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법당 70평 외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가격절충)

010-9015-4040
010-2077-7820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대지 235평. 법당 25평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가액 : 3억8천5백만원(절충가능)

010-5550-9725
010-4001-8476

포 교 원 안 내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1층 : 93.3725㎡(방음시공)
●법당, 방1, 공양실
●보증금 1000만 / 월 61만
●권리금 2000만원

010-8752-9477
010-9459-9477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궁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지장원(地藏院)



지장원은 지장보살을 주존으로 하여, 9존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화부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장은 대지(大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첫째, 모든 것의 기반이 되어 결코 파괴되지 않으며 광대하고 견고한 대지를 말하고 둘째, 생명을 무한히 탄생시키고 길러서 풍요롭게 하는 의미가 있으며 셋째, 금은, 보석, 광석을 무진장으로 함유하고 있음을 대지라고 한다.

이 대지는 우리에게 무한의 풍요를 주는 것과 같이 지장보살의 견고한 보리심으로 중생의 고뇌를 없애고 열반의 즐거움을 증득하게 한다.

지장보살을 육도(六道)에 배치하여 중생을 제도 교화 하는데 하는데 다음과 같다.

단타지장(檀陀地藏)은 지옥(地獄)중생을 제도하고.
보주지장(寶珠地藏)은 아귀(餓鬼)중생을 제도하고.
보인지장(寶印地藏)은 축생(畜生)중생을 제도하고.
지지지장(持地地藏)은 수라(修羅)중생을 제도하고.
제개장((除蓋障)은 인간(人間)중생을 제도하고.
일광지장(日光地藏)은 천상(天上)중생을 제도한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⑭ 뇌병변장애인 성희철 씨

'장애' 보다 더 큰 장애, 편견

절마다 백중기도를 입재하여 기도 중이다. 글을 쓰면서 백중의 의미 속에 장애가 있는 자식이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과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의 시작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작은 체구의 경상도 사투리를 부드럽게 쓰는 성희철 씨는 부산에서 꽤 유명한 뇌병변장애인이다. 눈웃음 하나만으로도 억센 억양의 부산 사투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이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장애인식개선 강사, 시인, 생명의 전화 상담봉사원, 시낭송모임 활동, SNS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5년부터 장애인식개선 강사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현장이면 어느 곳이든 찾아가 교육을 한다. 강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자신이 생각해도 실습으로 한 강의를 참 못했었는데 큰 질책을 하지 않고 차근차근 가르침을 준 지도 선생님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단다. 그분들은 희철 씨 스스로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로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믿음을 갖게 되니 행복도 하였다고 한다. 그 믿음과 행복감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장애인식개선 강사가 되었고 열심히 활동하게 되었다.

희철 씨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현장에서 일화를 들려주었다. 교육을 나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장애인을 만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물었다고 한다. 무섭다고 답을 한 아이들이 다수였다고 한다.

아이들의 답을 듣는 순간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자신을 키우면서 어떤 아픔을 느끼고 계셨는지, 남들과 다른 모습의 자식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물밀듯 밀려왔더랬다. 중증의 장애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잘 자라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먼저 가지 않을까 하는 숱한 고민을 안고 노심초사 키워주신 부모님 마음을 헤아렸다는 것이다. 자라면서 부모님을 원망한 시간도 잠시 있었으나, 특수학교를 다니던 어린시절 매일 아침 스쿨버스를 태우며 배웅하던 어머니 모습은 잊히지 않고 인식개선 강사를 하면서 부모님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희철 씨는 지난 4월에 생애 첫 시집 〈수박 속같이 붉은〉을 냈다. 보리수아래 감성시집 여섯 번째 시집으로 독자들의 좋은 반응이 아직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시집에 수록된 시들은 희철 씨의 삶에 대한 감사와 희망, 미래에 대한 꿈을 적은 것들이며, 가족 안에서 늘 자랑스럽고 남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고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다.

희철 씨는 시 '나의 어머니' 에서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 주시다가도/ 아픈 물리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도리질을 하면 불호령을 내리셨던/나의 어머니/ 조금만 더 조금만 더/노력하면 내 친구 너석과/똑같이 걸을 수 있다고/ 아무리 자신 없다고/목소릴 높여도/애써 고개를 돌리시며/두 귀를 막으시던 /나의 어머니 / -중략-/ 나의 어머니에게 /나는/숨겨놓고 아끼는 화분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시 '계단' 에서 보면 "나의 어린 시절/땅바닥을 기어 다닐 때/나의 부모님은 꼭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부산뇌병변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성희철씨

사람이 되라는 다짐을 받았다./-중략-/ 다리 수술 후/ 나 홀로 계단을 내려오는 힘을 잃었을 때/ 어머니는 뒤에서 바지 끝만/ 잡아 주는데도 난 신기하게/ 내려오는 것이었다./ 외출을 할 때/ 난 늘 어머니를 부른다/ -중략-/날 계단 내려보내는 일은 /나에겐 자유에 대한 첫 관문/ 어머니에게는 아들을 위한 노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시는 자신의 이층집에서 계단 내려오는 모습을 묘사한 시다. 희철 씨의 시에는 장애 자식을 둔 부모님의 마음, 장애가 있는 희철 씨의 마음, 장애를 초연히 받아들이는 어머니와 희철 씨의 두 마음이 합쳐져서 그린 풍경 등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다. 가만히 읽다 보면 눈가가 젖어온다.

희철 씨는 사람들에게 장애에 대해서 단정을 짓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시도해보지도 않았고 기회를 얻어보지도 못했는데 못하는 것으로 단정을 지어버릴 때 희철 씨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장애 자체보다 더 큰 장애가 되었고 "너는 못 하잖아" 하면 맥이 풀리고 존재 이유까지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아는 사람들이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야"라고 선을 그을 때 자신이 꿈꾸며 되고 싶은 것에 대한 의지가 비상하려다 꺾인 새의 날개가 되던 날이 있었다.

어찌 희철 씨만의 경험이었겠는가. 장애인이라면 다 겪었을 일이기도 하다.

희철 씨는 장애인들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못해"라는 단정적인 말을 듣거든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희철 씨에게 백중은 부모님을 위한 시를 직접 낭송하여 공양 올리는 날일 것이다. 위트와 재치를 지닌 그가 재미있게 이끌어가는 장애인식개선 강의를 스님과 불자님들이 들으실 기회가 곧 오리라 기대해 본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틀 안의 강의가 아니라 즐겁게 들으면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며 장애인을 이해하게 되는 희철 씨의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이 꼭 있지 않을까.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14 그렉 브레이든, '디바인 매트릭스: 느낌이 현실이 된다'



▶ 한줄 요약
우리 안에는 변화의 원동력이 모두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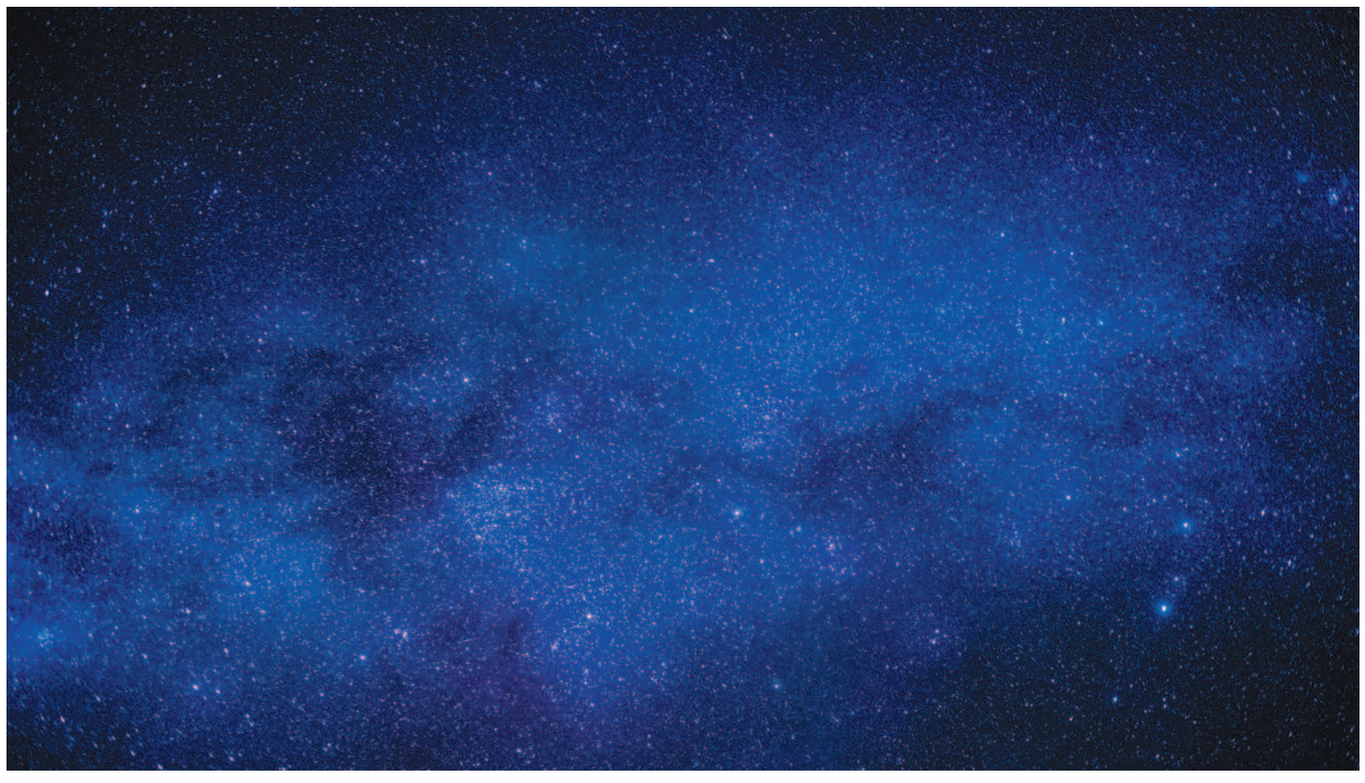
양자학과 고대지혜 만남, '디바인 매트릭스'



그렉 브레이든(Gregg Braden)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다섯 차례나 이름을 올린 작가이자 세계적인 명강사. 현대 과학과 인간의 잠재력 및 영성을 통합하는 비전을 제시해 왔다. '세계에서 영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실존 인물 100인'(영국 왓킨스 저널 선정)에 7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2020년에는 인간의 비전을 확장하는 개인에게 수여되는 템플턴상 후보에 올랐다.

1970년대의 에너지 위기 당시에는 컴퓨터 지질학자로, 이후에는 시스코 시스템즈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에서 컴퓨터 시스템 디자이너로 일했다. 시대를 관통하는 영원한 지혜를 찾기 위해 22년 이상 동안 외딴 수도원과 산악 마을은 물론 고대의 잊혀진 문헌들을 탐사해 왔다.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Secrets of the Lost Mode of Prayer〉, 〈신의 코드 The God Code〉, 〈이사야 이펙트 The Isaiah Effect〉, 〈지혜 코드 The Wisdom Codes〉, 〈프랙탈 타임 Fractal Time〉 등은 그 열매로서,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끌고 있다.



생각의 박스 안에 갇힌 존재들

인류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들을 박스 안에 가두어 왔다. 자신들을 스스로 박스 안에 가두고 어둡다고 징징거려 왔다. 박스 안이 얼마나 어두운지, 스스로 갇혀 사는 어둠이란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부자유스러운지, 필요충분할 만큼 경험해 왔다. 그 안에는 자유도 없고 풍요도 없다는 것을 실컷 체험학습해 왔으니, 이제는 그만 졸업할 때가 되었다. 스스로 박스를 풀어헤쳐 벗어날 때가 되었다. 물론 갇힌 자의 의식이 성장한 그만큼 박스의 크기가 커져서 운신의 폭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커져도 박스는 박스일 뿐이다. 감옥의 크기가 커질수록 자유와 풍요의 크기 또한 커지지만, 죄수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감옥의 크기가 커질수록 스스로 감옥에 갇힌 죄수임을 망각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감옥 안에 갇혀 살면서도 할 일이 그리 많은 것은 모두가 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함이다. 성취를 하면 할수록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풍요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얼마전에는 더 많은 것을 더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법칙이라는 것이 널리 회자되기도 했다. 상위 2%의 죄수들만이 알고 있고 삶 속에 적용하고 있다는 '비밀의 법칙'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이 바로 그것이다.

존재의 주소 다시 쓰기

꿈과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너무나 간단하다.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바뀐 현실을 생생하게 느끼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에 젖어라."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를 현실 속에 적용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왜 그럴까? 끌어당기는 힘이 그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가 충분히 강하지 못할까? 그만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믿음이 약할까? 끌어당김의 법칙이 왜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 토대와 작동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소원대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 보려 하지만 쉽지 않다. 상상으로도 얼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또 감사할 수 있겠는가? 표면의식에서는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잠재의식에서는 가당치 않다고 속삭일 때,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은 줄다리기를 할 것이다. 누가 이길까? 당연히 잠재의식의 승리다. 꿈과 소망은 멀찌감치 달아나 버리고, 비루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닥치고 만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시도하기 이전에 기초부터 점검하고 바닥부터 탄탄히 다져야 한다. 무엇이 기초이고 토대일까?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의 숨겨진 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 지난 세기 동안 현대 과학은 인간 존재의 실상에 대하여 엄청난 비밀들을 발견해 왔고, 그 비밀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속삭인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스스로 설정해 놓은 그 어떠한 박스에도 담을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이다.

꿈을 현실화 위한 대기상태
'우주 에너지 그물망'의 일종
접속위한 '느낌'의 언어필요

그렉 브레이든은 인지과학, 뇌과학, 생명과학, 양자과학의 주요한 실험 결과들과 발견물들이 가리켜 보이는 '우리 몸과 마음과 우주의 구성 물질의 본질'에 대하여 성찰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시 쓰여져야 함을 역설한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 몸 안에 시간이나 공간이나 심지어 죽음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즉 우리는 모든 것이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는 '초공간적nonlocal'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져다놓은 내 몸의 세포 하나가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 고스란히 반응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대 과학은 우리가 아무리 비루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한들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존재들'임을 증명해 낸다.

우리가 고전적인 물리 법칙에 제한받지 않는 존재일 수 있는 것은 우주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이자 그릇의 역할을 하는 초공간적이고 홀로그램적인 '디바인 매트릭스'가 우주 어디에나 없는 곳 없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 구실을 함으로써 우리의 꿈과 소망을 현실화시켜 주는 것도 바로 이 매트릭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의 지혜 전통과 현대 물리학

현대 과학에 의해 밝혀진 우리들 존재와 우주의 본질은 그러나 20세기의 결실만은 결코 아니다. 우주 만물을 남김없이 담고 있는 '순수 의식'의 통일장(곧 '디바인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는 베다에도 등장하고, 불교('제석천의 그물망')에도 나온다. 불교와 도교, 힌두교, 수피즘, 고대의 인디언 전통, 20세기에 발견된 도마복음 등도 양자 물리학이 발견한 놀라운 진실들을 똑같이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양자 물리학과 고대의 지혜 전통이 손잡고 가리켜 보이는 존재의 진실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아직도 체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일까? 우리 자신과 세계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지니지 못한 것일까? 어느 시인이 "우리는 얼마나 기이한 존재들인가! 어둠의 밑바닥 지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불멸성은 떠올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네"(루미, 재인용)라고 통탄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그렇게 통탄해야 한다. 하여 우리의 믿음 코드를, 우리의 현실 코드를 다시 쓰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소망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눈부신 불멸성을 이 땅에 육화하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진실을 제한시키고 왜곡시켰던 근대 과학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했던 믿음의 체계를 거부해야 마땅하고, 새로운 언어로 다시 써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까지도 바꿔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렉 브레이든이 말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변화든 그 변화를 창조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잠재의식을 변화시킬 힘까지도!

'느낌', 디바인 매트릭스 소통언어

'우리는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서 살면서 신비로운 양자 캔버스를 통해 내면 깊은 곳의 열정, 두려움, 꿈, 열망을 표현하는 예술가들이다.' 우리는 '캔버스 자체이자 캔버스 위에 그려지는 그림이며 물감인 동시에 붓'이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 모두는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현실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디바인 매트릭스와 통하는 언어를 알아야 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언어는 바로 "느낌"이다.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미 실현되어 있음을 "느낌"으로 느끼는 것은, 꿈과 소망의 현실화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도 같다.

"20세기 말의 과학 실험이 입증한 대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우리의 현실을 이루는 것들에 영향을 준다. 외부 세계의 원자, 전자, 광양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적 언어이며, 이는 밖으로 내뱉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느끼는 느낌이다. 우주의 양자 힘(quantum force)과 소통하는 것은 감정의 언어이다. 디바인 매트릭스가 인식하는 언어는 바로 우리의 느낌인 것이다."

과학이 지원하지 않는 믿음은 힘이 없다. 믿음에 의해서만 지탱되는 신비는 언제까지나 현실 너머에서만 어른댈 뿐일 것이다. 과학은 믿음은 서로가 서로에게 삼투되어야 한다. 과학은 믿음의 뿌리가 되어주어야 하고, 믿음은 과학의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힘을 키워 나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이제 (믿음의) 신비는 과학에 의해 소환되었고, 과학과 믿음은 삼투작용을 통하여 힘이 배가되어 '나와 너의 현실'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바탕살림을 갖추기 시작한 것 같다. 그렉 브레이든의 〈디바인 매트릭스〉와 그의 전작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또 거기에 갇혀 왔던 감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자유의 열쇠'를 제공해 준다. 그것은 곧 양자 물리학과 (불교를 비롯한) 고대의 지혜 전통이 손을 잡고 21세기의 인류를 위해 가리켜 보이는 미래의 영토이자 '지금 여기에서의 천국'을 여는 길이기도 하다.

〈작가〉

BTN불국토상조와 함께하는 백중(7/5~8/22)맞이 특별한 혜택

마지막 가는 길 부처님의 품 안으로!
극락왕생을 위한 불교식 장례

백중기간 가입 최대 7~11회 특별할인!

불국토330	불국토450
월 20,000원 165회 (11회 할인)	월 30,000원 150회 (10회 할인)
월 33,000원 100회 (7회 할인)	월 45,000원 100회 (7회 할인)

지금 빨리 상담 신청하세요!

가입상담 02-3270-3377

상품명			불국토 330	불국토 450
시다림			스님의 여법한 집전 (입관에서 성복례까지)	
장례인력	장례지도사		1명 3일간 파견	
	입관보조		1명	
	도우미		2명(8시간/1인당)	5명(8시간/1인당)
장례용품	상복	현대식	남자 2벌(와이셔츠, 넥타이 포함)	남자 5벌(와이셔츠, 넥타이 포함)
			여자 3벌(개량한복)	여자 5벌(개량한복)
		전통식	각 5벌	필요량 제공
	관		화장시:18mm(오동관)	화장시:18mm(오동관)
			매장시:30mm(오동관)	매장시:45mm(오동관)
	횡대		-	제공
	수의		불경수의 (저마100%, 기계직, 원단:중국, 제조:한국)	불경수의 (대마100%, 기계직, 원단:중국, 제조:한국)
	입관		초혼, 수시, 입관(연화대렴)	
	고인용품		도포, 원삼, 습신, 천금, 지금, 명정, 보공, 관보, 소창 등	
	빈소용품		향, 반야심경초, 위패, 방명록	
장의차량			장의리무진, 유족버스	장의리무진, 유족버스
			왕복 100km 제공	왕복 200km 제공
			(초과 시 2,000원/km)	(초과 시 2,000원/km)
앰뷸런스			관내 제공	
제단 꽃장식			-	25만원 지원
헌화			헌화 30송이	
유골함			일반 유골함	고급 유골함
특별 서비스			생화꽃관장식, 지장보상살 크리스탈 위패 제공	
환급 항목			수의, 차량, 도우미, 시다림 미사용시	

BTN불국토상조
● 당사는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이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고객 환급의무액 15,455,450,000원, 상조 관련 자산 19,991,320,000원입니다. ● 대표이사 : 구본일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 홈페이지 : www.btnlife.co.kr ● 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 : 서울-2011-제68호



대행 스님

부처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부처가 있으니 바깥으로 끄달리지 말라

오늘은 우리 인간이 모든 식물과 더불어 씨름하고 있는 이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 도량에서는 항상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건만 그 살생은 살생이 아니라 우리 살아나가는 데에 그것이 한 진리요, 삶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괴로움도 없고 쓸쓸한 마음도 없고 또 고독한 마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자에 자기가 잘못해서 지어진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금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할 텐데, 자기가 괜찮았을 때를 생각하고 아주 호의호식할 때를 생각하기에 지금 가난하거나 또는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없는데 자식들은 있고 그런 삶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우리가 바탕을 삼고 거름을 삼아서 우리 인간의 됨됨이를 자기 생각으로써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갖다 주고 뺏어 가는 건 아닙니다. 업보나 운명도 물론 자기한테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어서 자기가 한 거고 자기가 고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딴 데다 원망을 하고 딴 데 부담을 주고 딴 데를 성가시게 하기보다는 자기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거라는 거를 생각할 때 하나도 남을 원망할 게 없습니다.

그런 건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하다못해 먹는 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수많은 밥과 반찬 또 간식으로 실과들 또는 어떤 땐 육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먹을 때 그거는 생명이 없던가요? 그것도 생명이 있고 피가 있고 마음이 있고 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공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그 한생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도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히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진정으로 진실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다못해 실과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렇고 밥을 먹는다, 반찬을 갖추어서 먹는다 또는 때에 따라서 몸이 좀 이상하면, 먹고 싶다 하면 육식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식사를 할 때에 그 또한 생명, 피, 살, 마음, 이 마음이 없는 줄 아시지만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바치듯이 그것들도 여러분한테 다 송두리째 바칩니다. 바쳤을 때 그, 바친다고 해서 바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입니다. 낮은 식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낮으면 낮은 대로 높은 데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관계상 그것을 먹을 때에 우리가 '야, 먹었더니 배부르고 참 흐뭇하고 좋더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쓰라리고 아프고 괴로움이 거기에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먹는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먹는다는 것 때문에 남을 칼로 찌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밟고 일어설 수도 있고 또는 남을 욕을 할 수도 있고 남하고 싸움을 할 수도 있고, 고통을 겪는 이치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는 반면에 하다못해 참외 하나를 깎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몸뚱이의 내 중생들이, 바로 나를 형성시켜 놓은 나의 그 중생들이 이 몸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많이 운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상 자기는 운동을 해 주는 그 중생을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먹습니다. 뭐, 배가 고프면,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도둑질을 안 하고도 먹을 수 있는 문제지마는 도둑질을 안 하더라도 그것도 엄연히 생명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육신과 더불어 내 살이요, 내 생명이요, 내 피요, 바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둘로 보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나한테 이롭고 갈등이 생기지 않고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모든 게 합류화돼서, 바로 나로 인해서 그 식물도 모두 다 융합이 돼서 한 사람의, 즉 말하자면 무주상으로서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도 식물이나 그런 것은 다 진화돼서 나와 더불어 바로 인도환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거나 보고, 이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꽃이 우리 인간의 노예라고 생각을 한다면 노예지마는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웃으면 꽃이 핀 거와 같고 우리가 늙어서 찌부러지면 이것도 스러지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는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도 업신여길 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전부터 얘기해 왔지마는, 수억겁을 거쳐서 진화돼서 이날까지 형성시켜서 나온 그 주인을 자기가 업신여겨서도 아니 되지마는 모든 식물 이 자체를 먹는 데도 둘로 보지 말고 자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밥상을 놓거나 간식을 먹거나 할 때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그와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감사합니다' 하는 걸 진실로 느끼고 먹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내가 내 욕심만 채우고서 남의 살과 남의 피를 배불리, 배가 넘치도록 먹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욕심으로 인해서 남의 생명과 남의 살과 피를 그대로 그냥 많이만 먹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억지로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억지로 줄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항상 중도로서 마음을 항상 향기롭게 두고 겸손하게 두고, 하다못해 그거를 하나 깎더라도 '이것이 바로 내 살이요, 내 마음이요, 내 피가 아닌가.' 그것을 일부러 생각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한 번 음미해 볼 수 있다면 전체 우리가 살림살이할 때 그것이 다 그렇게 공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살생이 아니라 바로 즉석에서 요리를 해서 자기의 모든 이 중생들이 이 안에 들어서 자기를 크게 인간으로서 형성시킨 것처럼 그 식물도 다 거기에 융화가 돼서, 다 인연이 돼서 역시 인도환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육식도 그렇습니다. 고기가 고기로 보여서 못 먹을 때는 둘이지마는 내 살과 내 피, 내 마음, 내 생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즉석에서 바로 인간으로 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그렇게 기복으로만 나갈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공덕이 되는, 전체가 둘이 아닌 까닭에 우리는 한 길이요, 한 진리요, 한 벗이요, 형제 아님이 없는 것이요, 사랑 도의 의리, 이것을 떠나지 않는 것이 존엄성 있는 고등 동물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 마음과 더불어 폭이 넓고 지혜가 넓고 물리가 터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무(無)의 세계 50%, 유(有)의 세계 50%를 맞쥐고서 내가 자유권을 가지고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모두가, 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무렇게나 먹어 치우는데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나와 똑같이 둘이 아니게 볼 수 있으니…. 그 섬기는 마음은, 자기를 송두리째 바치면서도 그 섬기는 마음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서 이 몸에 들어가도 스스로서 살이 되고 스스로서 좋은 피가 돼 주고 그렇게 체하는 법도 없고 그렇게 이 몸을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런 거죠.

동물과 식물, 모든 생물들이 모두가 인간에게 지배를 받고 있지마는, 인간에게 지배받는 것은 스스로서 지혜가 쩔고 물리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으로만 그렇게 가고, 이것이 모든 살아나오던 집착에 의해서 그 그릇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는 일체 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체 신이라면 신이 많아서 신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여러분 각자의 자(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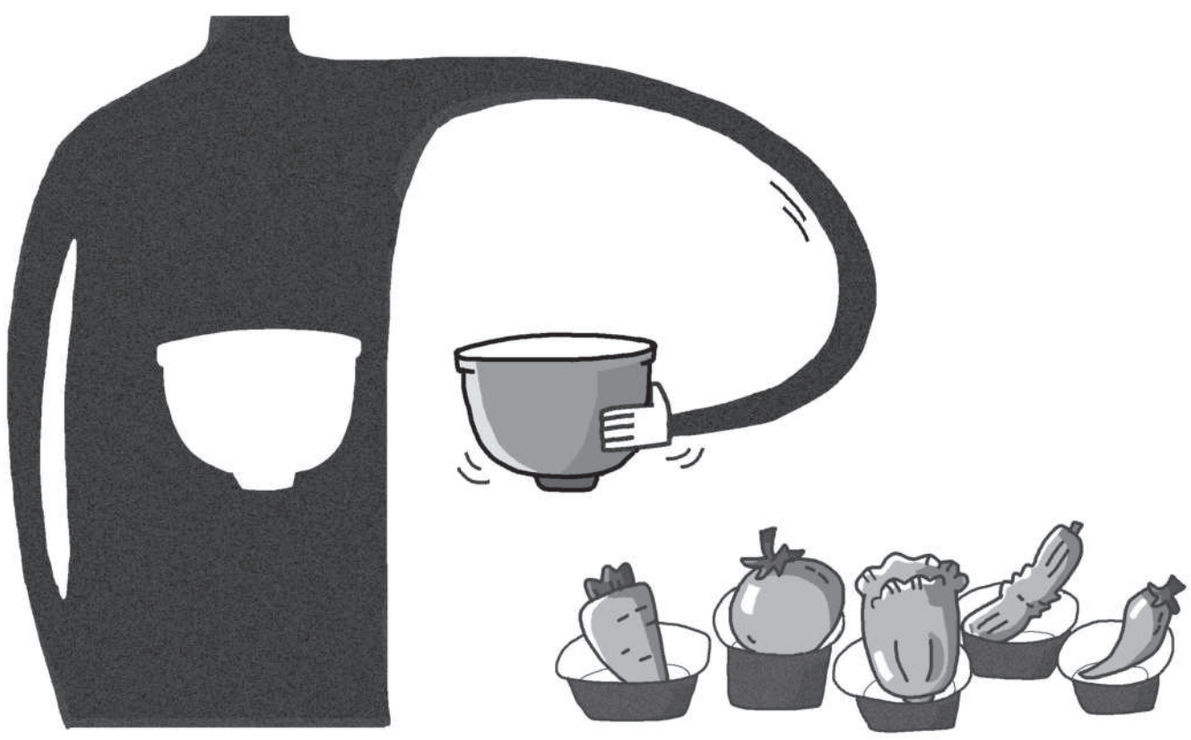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22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으로 마음을 조작하지 않는다면 모든 게 걸리지 않는다

☞ 21면에서 계속

신(神)이 있습니다. 자 신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마음이 쩔고 무의 세계의 뜻을 모르지마는 당신들의 여러 신이, 바로 자 신이 자기를 이날까지 끌고 다니면서 가르쳐 왔는데 그 뜻을 몰라서 욕심이 앞서고 집착이 앞서고 애정이 앞서고 이 삼독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물질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물질이라면 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돈을 벌어야만 하고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모든 것을 욕심을 내서 끼어야만 하고 가져야만 하고 먹어야만 하고 써야만 하고 자기 걸 만들어야만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앞을 가려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를 이날까지 진화시켜서 끌고 나온 그 주인의 참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자불 노승을, 즉 말하자면 자기 나오기 이전 자기 자불 노승을 몰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테면 자기 부모를 모를세라 하고 나만 먹고 살면 된다는 뜻이죠. 그런 거나 똑같이, 비유하건대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거는 각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의, 그 자기의 스승이며 자기의 아비며 자기의 주인인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주인에 의해서 제자인 것이요, 자기 주인에 의해서, 불가로 치면 시자인 것이요, 또 기독교에서 말하면 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그 자불 노승하고 둘이 아니어야 하는가? 가만히 차가 굴러가는 걸 보고 마차가 굴러가는 걸 보십시오. 옛날에는 마차가 다녔기 때문에 마차로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은 차로 비유를 해도 됩니다. 만약에 심봉이 양쪽에 꽂히지 않았다면 절대 바퀴가 올바르게 굴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심봉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자기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그 지배자인 한 신입니다.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불성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처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부처가 있으니 각자 누구나가 바깥에 끄달리지 말고 바깥에서 찾지 말고 바깥에서 원하지 말라. 안에서, 바로 자가발전소와 같고 원자력이나 마찬가지니까 거기에서 구하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을 거기에서 찾고, 거기에서 감사하고, 거기에서 물러나지 말고, 거기에서 모든 해결을 하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의 참맛을 알며, 모든 사람의 생명과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보람을 줄 수 있는 그런 바로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신의 노예인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유스럽게 산다고 하지마는 자기가 묶여 있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이치에서 한 발 한 발 딛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데마다 창살 없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것을 안다면, 창살 없는 감옥에서 훌쩍 벗어난다면 바로 자기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컴퓨터나 로보트나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노예로 삼아 쓰고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일체가 인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어디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로보트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 로보트의 정신력이나 이런 것이 자기가 생각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고등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가 말했죠. 새로이 새 언어로 얘기를 해 보면, 오신통을 컴퓨터니…, 항상 얘기하죠. 여기 안 들은 분이 있으면 들으시라고 다시 재차 얘기를 하건대 우리가 자유스럽게, 영원한 자기의 주인공에 의해서 스스로 있는, 영원히 있는 그러한 망원경이나 컴퓨터나 탐지기나 또는 천체무전통신기나 책정기나 또는 영사기 이런 것이 자기한테 그냥 본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원력이 동시에 있는, 이 굴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이치가, 바로 그런 능력이 스스로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물체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쓰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떡하면 인간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하게 할 수 있나 하고 그 의식을 통해서 자꾸 만들어 냅니다. 만들어 내되 만들어 내면 만들어 내는 대로, 예를 들어서 수십 개를 만들어 봤는데 어떤 거는 특별히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의식으로 통하는 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도 너와 같아.' 하되 그것이 사랑과 의리 그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곧바로 나가는 거, 한번 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대로 막 치고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그 만들어 놓은 데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자체에 죽고 산다 하는 것은 자유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만들어 놓고도 항상 그걸 둘로 보지 않게끔 사용을 한다면 절대로 망하는 수도 없고 또 모든 것을 흥하게 만들기 때문에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로보트를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그 상대성 원리가 바로 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그러는 것도 둘이 아니지마는 여러분의 자성과 지금 심봉과 굴레바퀴가 둘이 아닌 까닭에 우리가 그 모두를 만들고 써도, 지금 세계적으로다가 어떠한 것을 한번 누르면 이 세상이 다 타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람의 마음의 조작이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인간의 마음 한생각이면 좌우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좌우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졌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자리를 지킬 수도 있고 융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데 그 오신통의 문제만 가져도 우리가 한생각을 내서 대의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또는 앞으로 세계적으로도 어떠한 나라가 독재적인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쁜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을 조절시켜서 다 이 세상이 평화스럽게 될 수 있는, 좀 다져 줄 수 있는, 요량 있고 지혜 있고 그렇게 조금 유동성이 있게끔 공산주의도 좀 더 윤화를 시키고 반체계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비슷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세워서, 그 해이하고 약한 마음을 버리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쪽은 또 너무 센 거는 조금 줄이고 우리는 조금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합류화시킬 수 있다면 앞으로 이 자리가, 호국 불교가 따로 있고 호국 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생각이 세계를 살릴 수도 있고 모든 생명들을 융화시킬 수도 있고 참답게 인간의 노릇을 할 수 있게끔 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청소년들을 기르면서도 얼마나 타격을 받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둘로 보지 않고 나의 원자력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가 있는 대로 내 전화가 있으면 내 전화에서 돌리면 바로 걔한테도 갑니다. 그럼으로써 말없이,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않고도 그 애를 잘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게 인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자기가 가는 데마다 창살 없는 감옥이 있습니다.**
> **그러나 자기가 이것을 안다면,**
> **창살 없는 감옥에서 훌쩍 벗어난다면**
> **바로 자기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사랑을 받게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좀 더 가난치 않게 할 수 있고, 괴로운 사람은 괴로움이 없어지고, 또 팔자 운명이, 그런 것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팔자 운명을, 자기네들이 마음으로 지어 놓고 팔자 운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자 운명이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또 비약적으로만 나가고 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만 하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살아야만, 언제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만 살아야 합니까?

항상 내가 얘기해 드리죠. 절간에 가서 칠성이다 산신이다 용왕이다 이렇게 붙여 놓은 이름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는 엄마가 됐다가도 때에 따라서는 아내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누이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동생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며느리가 되고,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을 고정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 이름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한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많아도,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살아가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그 작용을 하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마음에서 천만 가지 만만 가지, 아니 일체 만법을 다 들이고 내는 것이, 바로 우리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한 마음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을 잘 쓰면 잘될 것이고 잘못 쓰면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남의 말만 그렇게 잘 듣고 나가지 마십시오. 왜냐? 남의 말을 듣는 것도 옳은 말이라면 자기 거를 만들어서 양식을 삼고 또 옳은 말이 아니라면 바로 떨쳐 버리는 그러한 마음과 더불어 내 마음의 주인공에 의해서 믿고 그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물처럼 항상 순조롭게 나가면서, 겸손하게 나가면서, 남의 생명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명과 똑같이, 하다못해 올챙이의 생명이라도, 바로 나도 과거에 올챙이였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애당초부터 사람으로 등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과거의 나인 것이고 미래의 나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았다면 바로 내일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오늘이나 어저께가 둘이 아니요, 오늘 자체가 영원한 것이니까 오늘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그 도리를 모른다면 항상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신에 의해서 항상 지배를 받게 되니 그 지배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마음을 마음으로 조작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지 마음으로 조작하지 않는다면 모든 게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이런 공부를 하나?' 이런 것도 좀 거기다 맡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빨리 해야지.' 하는 것도 거기다 맡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것도 거기에서, '되는 거, 안 되는 것을 거기에서 관장하고 열쇠와 자물쇠를 다 가졌으니까 거기에서 하시겠지.' 이렇게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물러서지 않는다면, 감사함이 있다면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중략)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인간까지 돼 올라온 것도 조그마한 미생물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이라 하면 부처 될 수 있는 가망이 90%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선장이라면 잘 끌고 나가셔야 이 몸뚱이에 있는 중생들도 잘 끌고 나가게 돼서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가정이 건강하고, 좀 폭이 넓어지니까 모든 우환, 가환, 병고 액난이 다 무촉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서 그냥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하고 얻다가 빌어야만 하겠습니까? 얻다가 빌 데가 없습니다. 자기가 있고서 이 세상이 났고, 자기가 있고서 상대가 있었고, 자기가 있고서 자식이 있었고, 자기가 있고서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빼놓고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딴 데서 물질적으로 발전소를 만들어 놓는 거는, 때에 따라서 전기가 나가면 전깃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자가발전소는 아무리 전기가 꺼졌다 하더라도 항상, 바로 불을 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밝습니다. 저 태양과 같이 밝으면서도 이 마음의 밝음은 땅속까지도 밝혀 줄 수 있는 뜻이 있습니다. 온 천하의, 온 세계의 어떠한 중생들이라도 다 밝혀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여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6년 7월 19일 일반법회 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현불 논단

코로나 수행과 戒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4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해방 기대한 사람들 다시 움츠려

팬데믹 상황서 '戒定慧' 떠올리며
코로나를 극복 아닌 수행 여기자

삼학 토대 계, 바른 생활의 규범
방역수칙도 규제 아닌 자유의 길
자신만의 계로 여기면 수행 가능

이를 어쩌랴. 코로나19의 불길이 가까스로 잡히는가 하더니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다. 지구촌 곳곳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여 기승을 부리고 있고 코로나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면서 부풀어 있던 많은 사람이 다시 움츠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필자는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이 언뜻 떠오른다. 이것은 아마도 코로나 극복의 과제는 단순한 의학적인 방법이나 통제적 수단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19의 변이는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출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엉뚱하다고 하겠지만 코로나를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수행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싶다.

이것은 필자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60세가 넘어 정년이 가까워지면서 나의 전공인 윤리학과 사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붓다의 정치철학을 탐구하는 저서를 냈으면 하는 서원을 했다. 그러나 쓰다 말다 하면서 7~8년을 민둥민둥 보냈다. 그런 와중에 소화기 장애가 생겨 입원도 하고 술도 삼가면서 근신생활을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유폐된 기간에 붓다의 정치철학에 관한 책을 출간할 수 있었다. 참으로 고마운 병이었다.

확장되고 있는 코로나 범유행 상황에서 계정혜 삼학을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 삶의 양식에 이로운 효소로 작용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바람 때문이다. 필자는 삼학 중에서 계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계는 구속적이고 방편적인 수단 가치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불교 공부를 하면서 계의 중요성을 점점 체감하게 된다. 계는 삼학의 토대로서 계의 실천을 통해 정과 혜로 나가는 큰길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 계율이 붓다의 가르침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불교라는 종교는 없었을 것이다. 아마 '붓다학'이란 이름으로 남아 있을 자는 모르지만. 계의 기본은 불제자로서 지켜야 할 계율을 잘 닦아 잘못된 것을 막고 좋은 습관을 익히는 생활상의 규범이다. 계는 바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불교 공동체의 핵심이다.

지금 코로나 시대의 질곡을 살면서 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지금 세계 각국의 방역 당국은 코로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통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 통제 방안이 무력화되는 장면이 지구촌 곳곳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로 축구대회에서 마스크 없이 광란의 응원을 하는 장면을 TV에서 자주 보게 된다. 코로나의 통제 틀에서 벗어나고픈 인간의 욕망이 처처에 난무한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계를 생각하는 것은 계가 단순한 구속적 규범이 아니라, 구속적 규범을 넘어 큰 대자유의 길로 보기 때문이다.

색·수·상·행·식이 엉겨진 오취온(五取蘊)인 인간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염된 삶의 바다를 항해한다. 안전한 항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논란도 다양하다. 이와 함께 통제적인 항로에서 벗어나 저기 보이는 그럴듯한 섬에 정박하고 싶은 충동은 항상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항해는 결코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 삶의 일상적인 고해의 항해일 뿐이다. 코로나 시절에 요구하는 사회적 규범을 하나의 계로 받아들이고, 또한 자신만의 규범인 계를 만들어 실천하면 이것이 바로 코로나 수행일 것이다. 코로나 수행을 통해 뜻깊고 멋진 삶을 사는 기회를 얻는다면 이 얼마나 환희로운가.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CPE교육은 '발효 수행'

지난 7월 4일 전국비구니회 CPE센터는 8명의 첫 교육수료생을 배출했다. 16주간의 장거리 마라톤 같은 교육이었지만, 그렇기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15주 동안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마지막 주인 16주에는 대면으로 CPE센터 강의실에 모여앉아 평가하며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시작할 때는 자신들의 약점에 민감하였는데 어느새 학생들은 자신의 약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의식을 확장해가는 모습으로 성장해 있었다. 자신을 '작은 돌'로 비유했던 한 학생은 보잘 것 없는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의 중심을 잡아주고 돌과 돌 사이를 연결해주는 더 큰 돌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그렇게 교육생 모두는 마치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통해 구법의 여정을 하듯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거울삼아 자신을 깨닫고 변화해 갈 수 있었다.

수료식에는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께서 직접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수료 후에는 케이크까지 마련해서 사중 스님들과 함께 축하파티를 개최했다. 여운이 깊게 남는 수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림 · 최주현

교육이 끝나고 한 기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교육을 마치면서 받게 되는 수료증이 사회에 어떻게 쓰이고 병원 포교에 활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나는 피식 웃음이 났다. 처음 '깨침 수행'을 통해 한 소식하면 마치 초인처럼 바로 세상에 이바지하는 존재가 되는 줄 알았던 나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간화선이 '깨침 수행'이라면 CPE교육은 '발효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PE교육은 타인을 돌보는 데 걸림돌인 자신의 약점들을 교정하여 객관적인 돌봄의 능력을 겸비한 깊이 있는 돌봄가로서 거듭나는 수행인 거죠."석연치 않아 하는 기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나는 수료증이 사회에 쓰이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결성된 '자비실천 병원포교단'을 소개했다. 병원포교를 '자비실천수행'으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수행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모인 스님들의 승가결사체를 기자도 알고 있었다.

나는 앞으로 병원포교의 원력을 세운 수행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위기에 처한 이들이 스님들의 영적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CPE교육을 주도해갈 지도자를 양성하여 불교 CPE수퍼바이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는 말도 함께 전했다.

기자는 "스님 굉장히 기대가 되고 교계의 기자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고 좋은 기사로써 함께할테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라고 하며 진심어린 응원을 보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社說

남방불교 승단에 온정을

탁발의 전통을 지켜온 남방불교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하고 있다. 사찰 운영의 근본적인 토대인 탁발공양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스님들의 생계는 물론 수행을 지속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남방불교 전통에 따르면 스님들은 공양물이 아닌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 먹지 못하며 공양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탁발공양이 급감하면서 스님들의 생계는 물론, 사찰 운영 및 사찰 차원의 사회적 회향인 복지사업에도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

이에 로터스월드와 전국비구니회가 위기에 처한 남방불교 스님들을 위한 긴급 캠페인 '탁발이 어려워진 불교국가 스님들의 발심출가를 지켜주세요'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한국불교계의 정성을 모아 남방불교 수행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최근 로터스월드와 전국비구니회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사찰을 위한 1차 긴급지원을 진행했다. 지난 6월 14일 캠페인을 시작한 지 꼭 한달 만에, 한국 사찰과 불자들이 모연한 후원금으로 사찰 4곳에 쌀과 라면, 생필품 등을 지원한 것이다.

지원금은 현지 사찰의 사정에 맞게 분배해 로터스월드 현지 지부를 통해 현금으로 전달됐고, 각 지부는 지원금으로 쌀과 라면, 설탕과 식용유, 비누 등을 현지 구매해 사찰에 지원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3개국 4개 사찰이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찰들이 산적해 있다. 캠페인을 통한 모연 동참이 지속돼야 하는 이유다. 한국불교계의 자비온정이 위기에 처한 남방불교 승단의 더 많은 사찰로 가 닿길 발원한다.

'복날' 생명존중 채식문화로

7월 11일 초복을 지나 7월 21일 중복이 왔다. 삼계탕 등 보양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오랜 문화이자 세시풍속이다. 대부분 닭백숙이나 삼계탕을 먹지만 선조들은 보신탕을 즐겨먹었다. 복날의 이름 자체도 사람인(人) 변에 개견(犬)을 붙여 쓴 복(伏)이다. 최근에는 삼계탕 대신 몸에 좋은 다양한 음식을 먹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환경연대가 말복인 8월 10일까지 삼계탕과 같은 육식 보양식 대신 채소로 만든 채계장 등을 먹자는 복날 채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만연된 공장형 축산시스템은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가축을 생명이 아니라 공장의 제품으로 취급하는 공장식 축산업은 환경파괴와 자원 소비를 가속화한다. 광우병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등 현대사회에 유행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배경도 공장식 축산시스템에 있다.

생태위기와 기후위기는 물론 대량식육 소비문화에서 직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복날 만큼은 채식문화로 불자들 식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은 무엇보다도 오계의 으뜸인 불살생계를 이해하고 삶의 지남(指南)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에게 뭇생명을 해칠 권한을 받은 타종교의 교리보다 불자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이러한 가르침이 수승함을 알기 때문이다. 불살생계를 평소에는 지키지 못하지만, 복날이라고 하여 애써 파할 이유가 있을까.

채식을 활용한 복날 식문화를 불교계가 이끈다면 이는 불교 가르침을 실천하는 또 다른 기회이자, 불교 가르침을 일반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복날 채식 식단을 개발하여 새로운 문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ANTI-BACTERIAL · DEODORIZATION · 항균&소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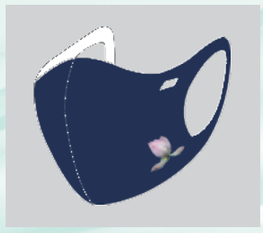
FDA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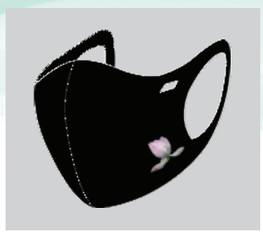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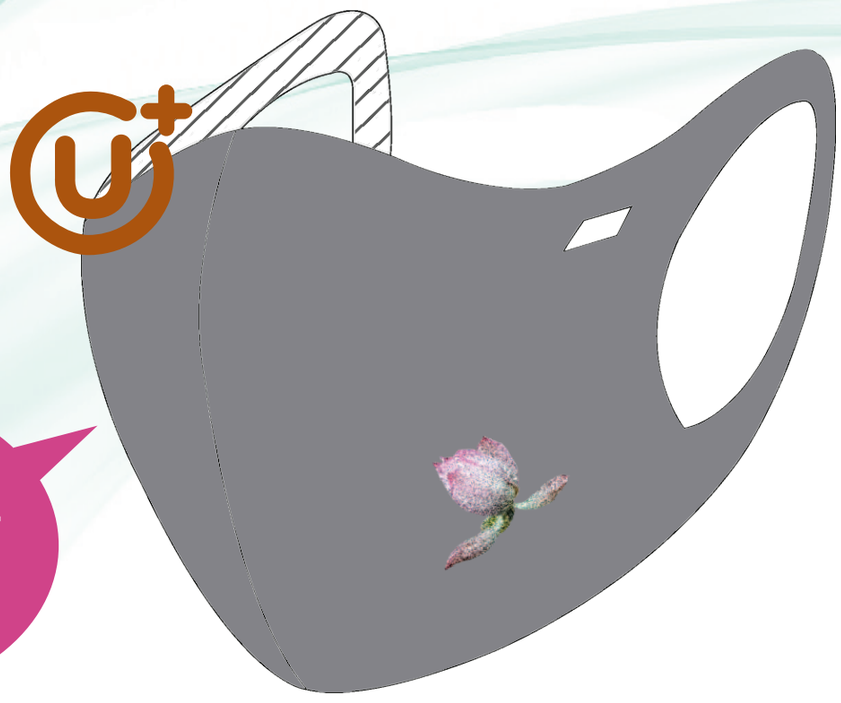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구리마스크는 일반마스크보다 항균력이 탁월합니다.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나만의 솔루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출시!!



자외선 차단 및 빠른 건조기능으로 야외활동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된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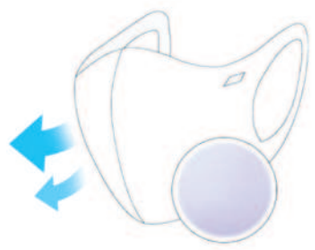
기존제품과 다른점

1. 바깥면의 발수기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
2. 이중 압축으로 기존제품보다 얇음
3. 냉감(시원함 정도)이 우수하여 무더운 날씨에 적합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청량한 색상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연회색, 블랙** 5색에 **연꽃문양**이 아름답게 인쇄된 여름용 **Cool~ 마스크**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색상별 1세트 (100장)

~~550,000원~~ →

350,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여름용 쿨 마스크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제작기간은 5~7일 소요 ※ 최소주문수량은 색상별로 100장 이상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